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분에 넘치는 이익은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월 2일) 2022년 2월 2일 수요일



불심으로 노숙인 마음충전 겨울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노숙인들의 보금자리, 다닥다닥 붙은 1평집들이라 해서 붙은 이름 쪽방촌에 이들의 마음치유를 통한 자활센터 '마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1월 27일 쪽방촌에서 열린 마음충전소 개소식에서 충전소를 마련한 마가 스님(사진 왼쪽 세 번째)과 자비명상 지도자 스님, 대중들이 오색실을 뜯으며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보물' 보타사 마애상 곳곳 균열 '심각'

1999년 후면 도로 증설하며
보물 마애보살상 훼손 시작
얼굴 등에 균열… 일시 보수
조사 보고서 원상 복귀 권고
市 "영향평가 실시 후 조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보물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의 얼굴 부분. 이마 중앙부터 세로로 균열된 부분을 보수한 흔적이 확인된다. 사진제공=한국미술사연구소

고려시대 조성된 보물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곳곳에 균열이 가는 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인은 마애불 뒤편으로 도로를 확장하며 이뤄진 발파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은 보타사 대웅전 뒤쪽 암벽에 조각된 마애상이다. 전체적으로 넓은 어깨에 양감이 강조돼 신체가 당당한 모습이며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크기가 5m나 되는 거불(巨佛)로 수법이 상당히 우수하다. 불상을 연구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유사한 옥천암 보도각 백불과 함께 "서울의 쌍벽을 이루는 마애존상"이자 "고려시대 남경(南京)을 수호하고자 조성된 마애 제석천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이 중요한 문화재가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사찰 측에 따르면 보살상 얼굴 중앙과 좌우 이마에서 뺨까지 세로로 긴 균열이 생겼고, 오른쪽 귀 부분에도 가로로 균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왼쪽 귀 일부와 목 부분 등에 손상이 나타났다. 박상규 보타사 행정실장은 "현재는 일시적 보수로 아래서 올려다보면 손상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 심각한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에 균열이 생긴 원인으로는 1999년에 이뤄진 도로 확장 공사가 지목되고 있다. 보타사 측은 "마애보살상의 암반 상면 후면으로 5m 정도 떨어진 구도로의 능선 암반을 5m 깊이로 모두 절단해 신도로를 개설했으며,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공사를 강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폭 15~20m, 길이 15~30m, 깊이 5m나 되는 암반을 모두 발파해 절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문화재청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전문가 10여 명이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1999년 해당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한 뒤 석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마애보살상을 조사한 문명대 교수는 "당시 서울시유형문화재였던 마애보살상에서 5m 밖에 이격되지 않는 능선 암반을 발파해 파괴한 것은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마애보살좌상은 후면 암반을 훼손한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타사는 절단 파괴된 능선 암반에 대한 원상복구와 마애보살상 보존을 위한 누각식 보호각 조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을 함께 한다. 한병일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장은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상과 암반의 보존처리'를 통해 "보타사 마애보살상의 경우 올바르고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마애보살상 주변 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사찰의 중장기적인 정비는 물론 마애보살상 배면도로의 이전도 서울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무룡 ㈜태창 대표는 '보타사 마애보살상 훼손 암반의 복원 및 보호각' 소논문에서 "도로 확장에 의해 굴착된 암반의 복구는 잘려나간 암반의 뒷부분을 더 이상 풍화돼 갈라지지 않도록 보존처리하고 보살상 보개부분이 앞으로 밀려 쏟아지지 않도록 보강해 전체적으로 힘의 균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관련한 구체적 시행규칙이 2001년에 제정돼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타사의 지속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영향평가를 실시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문화본부 관계자는 "진동 소음 전기 계측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과학적 분석 결과와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영향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도로 복원 부분은 도로 계획 관련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애보살상 균열에 대한 조속한 보존 행정 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장 애가 타는 것은 보타사 사중이다. 갈라지는 마애보살상을 바라볼 수 밖에 없어서다.

보타사 주지 지은 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성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송구할 뿐"이라며 "현재 신설도로를 우회시키고, 능선을 복원해 마애불을 최소한 지지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마애보살상 보존을 위한 보호각도 하루 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모든 불교는 삶서' 틱낫한 스님 입적

1월 21일, 세수 96세 · 법랍 80년



1926년 베트남 중부 출생
1942년 16세 나이로 출가
1960년 미국 프린스턴대학 등서 비교종교학 공부
1963년 반전 운동참여로 남베트남 정부에 의해 추방
1973년 프랑스 장기 망명
1982년 프랑스 보르도 근교에 플럼 빌리지 창설
1990년 미국에 그린 마운틴 수행원 설립
2013년 오대산 월정사, 범어사 등서 법회
2014년 뇌졸중으로 건강 악화
2022년 베트남 후에의 뚜 히에우 사원서 입적

세계적 불교지도자이자 평화인권운동가로 추앙받았던 틱낫한 스님이 1월 21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96세, 법랍 80년.

미국 〈뉴욕타임즈〉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낫한 스님이 세운 프랑스 불교 명상공동체 '플럼 빌리지'는 이날 "스님이 베트남 후 티우 사원에서 입적했다"고 밝혔다.

틱낫한 스님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함께 '살아있는 부처' '영적 스승'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숭산 스님, 달라이 라마, 마하 고사난다와 함께 '세계 4대 생불(生佛)'로도 불렸다.

1926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스님은 16세에 출가해 24세 무렵 베트남 최대 불교연구센터인 인꽝(An Quang) 불교연구원을 설립했다. 196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반대 메시지를 내 조국에서 추방됐으며 전 세계를 돌며 비폭력 메시지를 전하는 연설과 법회를 열었다. 프랑스에 명상공동체 플럼 빌리지를 세우는 등 서구에 선불교 교리를 전파했다.

스님은 줄곧 마음 수련과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늘상 "고통을 받는 법을 알게 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으며, 고통을 이용해 행복과 환희를 느낄 수 있다"고 설파해왔다. 201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2018년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사후에 시신을 화장해서 전세계에 있는 플럼빌리지 명상 산책로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틱낫한 스님의 열반 소식에 각계각층에서 추모 메시지가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24일 발표한 애도문에서 "선사께서 평생을 걸어 온 행장은 전세계인들 마음의 평화와 공동체의 화해 · 치유를 위한 보살도의 삶 그 자체였다"며 "스님의 위대한 실천행은 전세계인 삶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3일 SNS를 통해 "스님의 '걷기 명상'에 많은 공감을 느꼈다"며 "'마음 챙김'을 늘 강조한 스님의 행복론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삶의 지침이 됐다"고 애도했다.

평화운동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파
원행 스님 "위대한 실천행" 애도
부산 관음사 등에 분향소…49재도

달라이라마도 1월 22일 공식채널을 통해 틱낫한 스님을 따르는 베트남과 전 세계인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틱낫한 스님은 1995년과 2003년, 2013년 세 차례 한국을 방한한 바 있다. 당시 스님은 월정사, 범어사 등에서 한국 불자들을 만나 힐링과 상생, 행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두 번째 방한은 '걷기명상 붐'을 일으킬 정도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런 인연으로 한국불교계도 분향소를 마련, 스님의 입적에 애도를 표했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은 1월 22일 서울 현성정사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용인 행복선원(선원장 연암)도 분향소를 마련해 조문객을 맞았으며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회주 지현)는 경내 수광보전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관음사는 1월 28일 초재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틱낫한 스님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49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부산 흥법사는 1월 26일 관음재일을 맞아 사시불공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틱낫한 스님을 추모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BTN불교TV 무상사도 1월 23일 2층 선방에 빈소를 마련하고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는 한국과 베트남 불자들의 조문을 받았다.

〈추모특집 5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설 연휴 관계로 다음주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여성개발원(이하 여성개발원)을 설립하여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종헌종법에 따라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발전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2019년 여성개발원의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의 권한을 침탈하고 조계종 종헌종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여성개발원에 이사장 권한 회복과 정관 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이사진들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 30일 공문을 통해 정관 복구를 거부하였고 2022년 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교원의 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공식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여성개발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인 이사회나 총회의 결과가 아니라, 일부 운영진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여성개발원 내외에서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포교단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안고

불기2566(2022)년 1월 28일자로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공고합니다.

여성개발원은 더 이상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단의 각종 지원 역시 중단됩니다. 종도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종단의 지도를 거부한 여성개발원의 이사들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소속 사찰, 각종 위원회 등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각급 종무기관과 사부대중은 이를 유념하여 종단 정체성 확립과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포교원의 조치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제8대 포교원은 우리 불교계의 주요 활동영역인 '여성 포교'에 대해 새로운 조직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기존 여성개발원 회원들 중 포교원의 지도 방침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종단의 각 분야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여성포교단체를 설립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불기 2566(2022)년 1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결의 드러낸 승려대회, 범불교도대회로 이어질까

범대위 · 봉행위, 1월 26일 연석회의

후속 예고된 범불교도대회 개최는
결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
민주당 로드맵서 일부 변화 확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종교편향 ·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전국승려대회에 대한 평가 및 후속과제를 논의했다.

5000여 스님들이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외친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는 역대 최대 수준의 승가 결집으로 변화를 향한 불교계 결의를 강력하게 드러낸 법석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2월 말 예고됐던 범불교도대회의 개최 여부 역시, 전국승려대회서 확정된 세 가지 결의사항의 이행 상황에 따라 판가름될 전망이다.

종교편향 ·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전국승려대회에 대한 평가 및 후속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봉행위원장)은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해 개최한 승려대회가 5000여 스님들의 동참과 성원으로 여법하게 회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승려대회 현장에서 정부와 여당의 일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정서는 바로 그동안 누적된 정부의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제부터 종단은 승려대회에서 표출된 스님들의 의지를 모아 앞으로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 위로는 종정예하의 유시를 받들고, 대중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책위 보고에 따르면 전국승려대회는 총무원 공식집계인원 3508명에 개별 참석자를 더한 4000여 스님들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연인원 등을 감안해 50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발표됐다. 특히 불교계 안팎 언론들이 100건이 훌쩍 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등 불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인원 결집에도 큰 소요없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진행된 점, 그리고 고불문과 봉행사, 결의문 등 승려대회 결의를 모으는 여러 연설들이 승가 대중의 결의를 모아내는 여법한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등 그동안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정치권 등 공직자들에게 그동안 불교가 홀대받았던 역사들을 명확히 인식토록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큰 소요 없이 5000여 스님들의 결집이 여법하게 이뤄진 것은 모두의 자긍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려대회 말미, 예정에 없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과영상 송출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발언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당시 봉행위원회는 간곡한 요청을 수용해 대화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문체부 장관의 사과영상이 현장 스님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고 송영길 대표의 발언 역시 취소됐다.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승려대회는 승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의대회로, 의미있는 연설로 결연한 의지가 모아지는 상황에서 황희 장관의 사과영상이 방영이 됐다"며 "다행히 발빠른 대처로 영상을 중단시키는 등 큰 소요 없이 잘 대처했지만 스님들의 결의에 찬물을 끼얹거나 희석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반면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법원 스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봉행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으로 대화의 기회를 줬음에도, 대중 정서는 그렇지 않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됐다고 본다"며 "전 종도가 합심해서 우렁차게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우리 승가대중의 결집력과 응집력을 드러낸 완벽한 승려대회였다. 정치권은 물론, 불교계를 사시안적으로 바라보던 여론을 상당부분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좋은 의도에서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승려대회에 부적절했음에 대해 참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승려대회 이후의 대응방안으로, 특히 2월 26~27일 예고된 범불교도대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스님들은 전국승려대회에서 5000여 스님이 결의한 사항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범불교도대회 개최 여부 역시 해당 결의사항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승려대회 결의사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차별금지법 제정 등)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 계승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세 가지다

범대위는 범불교도대회 개최 여부 결정을 차기회의로 이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다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는 해체하고 범대위 산하 총무부장 삼혜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키로 결의했다. 한편 범불교도개최 여부를 결정할 차기회의는 2월 11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정책, '규제' 아닌 '보존 · 전승'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1월 25일 국회서 기자회견

전통문화 보존 로드맵 발표
전사법 등 4건 개정안 추진
총리실 산하 '종교평화위'도
"소통으로 묵은 과제 해소"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는 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 보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규제 일변도에서 보존 · 전승을 위한 종합적 국가지원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종교평화 · 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해 공직자 종교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폄훼 · 왜곡발언' 등으로 촉발된 문화재 홀대 · 종교편향에 대한 거센 반발여론에 따른 것으로, 향후 근본적인 대안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위원장 김영배, 이하 전통문화특위)는 1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국립공원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가운데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존할 수 있는 지원청책 추진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불교계 피해 복구 △국무총리실 산하의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립추진 등 입법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통사찰을 비롯해 우리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유감을 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 전통문화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 보존과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특히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적 가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나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그 책임을 전통사찰에 떠넘겨 왔다"며 이번 정책대전환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임을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종교평화 · 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공공영역에서 반복돼 온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상시적으로 방지하고 종교중립을 위한 정책제안과 홍보 교육을 담당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입법로드맵은 당 산하 전통문화특위가 조계종 등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에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송지희 기자

한국문화연수원, '기와문화관' 개관

1월 27일 개관식 진행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전시실 · 체험장 등 운영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 전통기와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아낸 한국기와문화관이 문을 열었다.

한국문화연수원(원장 현담)은 1월 27일 한국기와문화관 개관식을 진행했다.〈사진〉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과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이 터는 예로부터 '기와막골'로 불리는 등 고려와 조선시대를 아울러 최대 규모의 가마가 있었다"며 "전통과 역사적의 의미를 되살린 대작불사를 통해 종단 인재 양성의 중심 한국문화연수원에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살릴 한국기와문화관이 건립되면서 교육은 물론 체험까지 가능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한국기와문화관은 2019년 착공, 연면적 998㎡의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기와문화관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미디어관이, 2층에는 기획전시실이, 3층은 전통기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와의 출현과 변천, 분류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한 기와를 만나 볼 수 있으며, 기와 제작과정은 물론 당시 마곡사 일대의 기와생산 및 공급현황도 접할 수 있다.

송지희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마일운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2년 3월 첫째주 월요일 ※개강 이후 3월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접수 및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22년 同行 마감, 조계종 포교원·불교여성개발원

조계종은 여성단체 설립 추진, 개발원은 범종단 시사

1월 28일 여성개발원 단체 해지
"종헌종법 우선 지시거부" 사유
개발원 내부에선 운영진 비판도
포교원, 여성 단체 설립도 예고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여성포교를 위한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의 동행이 1월 28일 포교단체 해지로 22년만에 마감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조계종 여성단체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여성포교 현장에서의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월 28일 교계언론 공고를 통해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알렸다.

불교여성개발원의 포교단체 해지는 지난 2018년 원장 선출을 두고 포교원의 임명권에 반하는 불교여성개발원 측이 조계종 종헌종법 우선적용 조항을 삭제하며 이뤄졌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여성개발원에 이사장 권한 회복과 정관 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이사진들이 따르지 않았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포교원 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공식 천명했다"며 "포교원은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포교단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뼈를 깍는 아픔을 안고 1월 28일자로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교단체 해지에 따라 불교여성개발원은 더 이상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단의 각종 지원 역시 중단된다.

포교원은 "종도 의무를 방기하고 종단 지도를 거부한 여성개발원 이사들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소속사찰, 각종 위원회 등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4년 11월 30일 불교여성개발원 2대 원장 취임식 모습. 당시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명성 스님을 비롯해 종단 안팎의 많은 기대를 모았다. 조계종과 여성불자들의 열정이 서린 22년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여성개발원은 해지에 앞선 1월 26일 서울 불교여성개발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지 후 발전특위 구성과 정관개정, 조직개편 등을 예고했다.

김선옥 원장은 "포교원의 공헌에 감사하며 새 역사를 준비하겠다. 책임있는 적법한 자율적 운영을 기반삼아 사회적 실천에 헌신하며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조계종 포교단체 해지가 개발원 정체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제안한 정관 개정 복구가 불교여성개발원의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포교원이 제정하려한 새 종령에서 이사를 5~7인으로 축소하고 반수 이상을 포교원 관계자로 구성하는 것은 포교원 의사결정권을 강화, 개발원 정체성 및 자율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교여성개발원은 조계종 포교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포교원이 개발원 창립을 주도했고, 그동안 많은 지원으로 개발원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점을 알고 있다. 해지와 관계없이 포교원의 공헌에 감사하다. 독립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변하기를 바란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해지를 앞두고 감사를 표명했지만, 당장 눈에 띌 정도의 관계 변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많은 대화 속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해지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도 대안으로 조계종 여성포교단체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조계종 여성단체가 이번 사태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종단 여성포교를 담당하는 기구 설립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불교여성개발원 측의 '정관 개정 거부' 결정 과정에서 '공의를 모으지 않았다' 는 내부 비판이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결단을 뒷받침했다. 여성개발원에서의 회원 이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보듬을 조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여성포교에 대해 새로운 조직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기존 여성개발원 회원 중 포교원 지도방침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을 포함해 종단 각분야 활동 여성불자를 모두 포괄하는 여성 포교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조계종 지원으로 창립됐고 22년간 종단 후원 속에 성장, 해지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끝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포교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담마끼띠 스님, 韓·스리랑카 불교총괄

고타바야 대통령, 1월 19일 인증서 전달

국가 차원서 불교교류 권한 부여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이 대한민국·스리랑카 불교 총괄책임자로 위촉됐다. 스리랑카가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과의 교류창구로 스님을 임명하고 불교 총괄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스리랑카와 한국 불교계의 대외교류·협력관계에 있어서 담마끼띠 스님을 공식적인 소통창구로 인증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1월 19일 담마끼띠 스님에게 '대한민국·스리랑카 불교 총괄 총책임자(쁘다나 상가나야까, padhana samgha nayaka) 인증서' 를 전달했다. 스리랑카 정통교단 라만야파 종정 마쿠라웨 위마라 스님과 집행위원회가 인증을 증명했다.

스리랑카는 해당 인증서를 통해 담마끼띠 스님을 2500년 스리랑카 불교를 계승하는 라만야파 수도자임을 국가 공인했다. 이와 함께 담마끼띠 스님이 그동안 한국에서 불법 홍포와 포교에 매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하고 앞으로 세계를 위한 위대한 봉사를 지속할 수 있는 총괄권한을 부여했다.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이 한국·스리랑카 불교 총괄자로 위촉됐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불교총괄책임자로 위촉된 담마끼띠 스님에 대해 "한국 첫 스리랑카사원 건립불사를 이끈 공로자이자 스리랑카 스님으로서 한국 최초의 교수로 활동하면서 스리랑카 재한이주민들 위한 큰 도움을 제공하고 한국과 스리랑카 교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존경의 예를 표했다. 이와 함께 담마끼띠 스님이 그동안 스리랑카에서 마하위하라 파운데이션(복지재단)을 설립해 학교를 건립하고 장학금 전달과 의료 지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 전달과 우물 파기 등 많은 봉사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치사했다.

담마끼띠 스님은 "한국에 계시는 스리랑카 스님들과 함께 더욱 더 열정적으로 포교에 힘을 쓰겠다"며 "앞으로도 두 나라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설 맞아 취약 어르신 위한 떡국·쌀 나눔 이어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월 25일 원각사 급식소서 떡국 선물

불광사, 십시일반 쌀 1000kg도
조계사, 500세대에 식재료 선물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나누기 위한 특별한 나눔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1월 25일 탑골공원에서 '자비의 떡국 나눔 행사' 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원각(대표 원경)이 운영하는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 500명에게 떡국꾸러미를 선물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오랜 기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활동해 온 김동철 후원자가 소외이웃 나눔 행사를 위한 기금 500만원을 기탁하면서 이뤄질 수 있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기탁금으로 우리쌀 떡국떡 255kg, 한우곰탕육수 500kg를 마련했으며 ㈜강남제비스코에서 후원한 KF94 마스크 2000개와 매일유업에서 지원한 음료 500개도 함께 준비했다.

이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직접 요리해 전달하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언제든지 요리 할 수 있도록 떡국꾸러미를 만들어 배포했다. 꾸러미는 우리쌀 떡국떡 500g 1봉지, 한우곰탕육수 500g 2봉지, 과일주스 1개 등 설 명절에 즐기는 음식들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인 KF94 마스크 5매도 동봉됐다. 떡국꾸러미와 함께 갓 지은 쌀밥과 제육볶음, 콩나물로 구성된 도시락도 함께 전달됐다. 자원봉사자로 조계종 자원봉사단 화목회와 반야사 1팀에서 10여 명이 동참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시기이지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있다"며 "떡국 나눔을 통해 따뜻한 마음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각사 주지이자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후원으로 맛있는 음식을 어르신에게 공양 올릴 수 있어 기쁘다"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마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불광사·불광법회(주지 진효)**도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를 찾았다.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은 2020년부터 불광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현행자바라밀 천일기도 600일 회향 및 설날을 맞아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 자비의 쌀 1000kg을 후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월 25일 탑골공원에서 '자비의 떡국 나눔 행사' 를 개최하고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 500명에게 떡국꾸러미를 선물했다.

이번에 전달된 자비의 쌀은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은 것이라 의미가 크다. 진효 스님은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아 동참대중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인무료급식소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큰 원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원경 스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지 않은 양이라 송구한 마음이지만 우리 부모들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사(주지 지현)와 가피봉사단(단장 김문주)**도 1월 26일 '2022년 행복한 떡국 나눔' 을 진행했다. 이날 조계사는 종로구청을 통해 관내 500세대에 1500만 원 상당의 떡국 및 식재료 키트를 선물했다. 선물세트는 떡국떡을 비롯해 초코파이와 국수, 햇반과 생필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종로구 17개 동 주민센터 450곳과 장애인단체 50곳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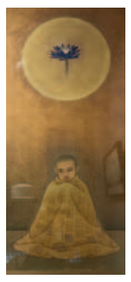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가피봉사단과 신도분들이 떡국나눔을 위해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눔의 행복이 느껴졌다"며 "관내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KUmuda 복합명상문화센터 오픈기념 특별소장전 '因·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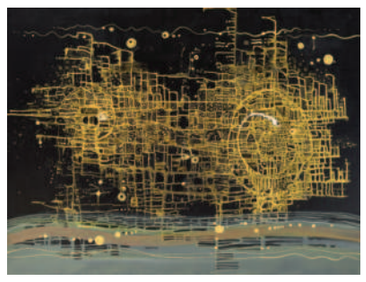



성파스님 作_천고임조비


일장스님 作_태평가


박경귀 作_자비


이도규 作_카오스에서 카오스로


김윤희 作_빛의 공간1

아름다운 영혼의 벗 KUmuda 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쿠무다 복합명상문화센터 개관식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화예술도량 쿠무다는 포교 원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큰스님의 선화와 글씨 그리고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 전시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감동과 위안의 선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갈 이 자리에 꼭 동참하시어 화장장엄세계華藏莊嚴世界의 꽃 피워주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 부산 2월 16일~18일, 파라다이스호텔 1층 시실리룸 051-702-1300
(오프닝 16일 오전11시)
■ 서울 2월 23일~3월 8일, 인사아트센터 제1전시장 02-736-1020

KUmuda 문화를 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1 전화 051)702-1300

쪽방촌 노숙인 마음치유의 장 열다

자비나눔공덕회 1월 27일
쪽방촌 '마음충전소' 개소
고독사 천도재 · 떡국나눔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음충전소 개소와 함께 쪽방촌에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떡국과 과일 나눔도 진행됐다. 마가 스님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포장된 음식을 전달하며 안심법문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헬조선' 이란 용어가 난무하던 2018년 1월 25일. 고시촌으로 유명한 노량진 한복판에는 청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마음충전소' 가 개소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년들이 편하게 찾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음충전소는 '헬조선' 을 '힐조선' 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4년이 지난 1월 27일. 겨울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노숙인들의 보금자리, 다닥다닥 붙은 1평짜리들이라 해서 붙은 이름 쪽방촌에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또 다른 '마음충전소' 가 문을 열었다. 2018년에 이어 '중생이 아프면 어디든 달려간다' 는 국민멘토 마가 스님의 의지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산하 자비나눔공덕회(회주 마가)는 1월 27일 영등포 쪽방촌에 '마음충전소' 를 개원했다.

그동안 불교계는 노숙인들이나 독거어르신 지원에서 물품 지원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마음충전소는 이러한 물적 지원에서 심적 지원까지 불교 복지활동이 확장됨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에 '마음충전소' 개소식에는 자비명상 대표이자 공덕회 회주 마가 스님과 자비명상 총동문회장 관우 스님 등 자비명상 지도자 스님들이 함께 했다.

명상을 통한 심성 개발과 자비심 발현으로 공동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비명상의 취지와 '마음충전소' 는 맞닿아 있다. 여기에 쪽방촌에서 노숙인들을 보살펴 온 정일화 쪽방촌도우미 대표, 김윤석 쪽방도우미봉사회장 등 봉사단과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조석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한 불자들도 함께 했다.

스님들은 마음충전소 앞에 걸린 현판에 묶인 오색실을 풀며 사회 소외계층이 없이 평화가 깃들길 기원했다.

이 마음충전소에는 마가 스님을 비롯한 자비명상 지도자 스님들이 2인 1조로 돌아가며 365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비명상을 활용한 명상지도로 노숙인들이 마음챙김을 익혀 심리적 고통을 덜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도 진행된다.

이런 마음충전소가 문을 열게 된 것은 마가 스님의 생각이었다. 스님은 "쪽방촌을 처음 방문한 날 옆방에서 한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만에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팥죽, 떡국나눔에 연탄나눔도 진행하고 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만 일까란 의문이 들었다"고 회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의 고통은 심신 모두에서 찾아온다. 이들의 심적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직접 마음충전소에 거주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예정이다.

마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자비실천행에 쪽방촌에서 활동하던 불자들도 박수를 보냈다.

김윤석 쪽방도우미봉사회장은 "쪽방촌 주변에선 많은 지원단체와 행사가 열린다. 하지만 이들의 사연을 듣고, 상담하고, 재활과정을 돕는 곳은 드물다. 불교계에서는 처음"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마음충전소 개소식에 앞서서는 고독사한 노숙인들의 영령을 천도하는 천도재와 설 명절을 맞은 떡국 나눔도 진행됐다.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마음충전소 운영은 청년불자들이 할수 있는 노력봉사를 통해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라며 "마가 스님을 비롯한 자비명상 지도자 스님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 자비나눔공덕회와 함께 더 많은 봉사와 나눔을 통해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02)3666-0260



불교유튜브 '아이고절런' 5년 맞다

[인터뷰] 1세대 불교크리에이터 강산

2017년 2월, 페이스북에 게재된 한 청년의 사찰여행 영상은 교계에 색다른 감각을 선사했다.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드라마를 패러디한 이 영상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기까지 한 젊은 청년의 모습이 유쾌하게 담겼다. 불교계 첫 유튜브 사찰탐방 프로젝트 '아이고절런(IGO절RUN)' 의 시작이다.

5년여 세월이 흘러 나투다픽처스 강산(34) 대표는 불교 유튜버 1세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찰여행을 통해 불교를 만나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10년이라는 장황한 계획을 잡고 하루하루 즐기다 보니, 그 여정의 반절이 지나갔네요."

> "불교 세상에 알리는 힘찬 새해 만들어요"

강산 대표는 수많은 유튜브 영상 제작이 '불교' 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립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불교는 나에게 어떤의미일까? '나를 더 나답게 하는 B' 라는 문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나지만. 왠지 지금의 나가 더 나다운 나같다는 생각입니다."

5년간의 노력에도 아이고절런의 구독자 수는 4000여명.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백만명까지 독자들을 확보한 외부 유튜버들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피해 불교를 새롭게 알리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강산 대표는 불교가 지닌 한국전통과 문화유산, 다양한 재주를 지닌 스님들을 소개하는 등 한계를 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아이고절런에는 불교왕, 불로잡생 등 13개의 서로 다른 콘텐츠가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새해 강산 대표는 청년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어느덧 30대 중반을 향해가는 만큼 20대 젊은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이 그것이다. 또 영상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 등도 준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아이고절런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보여드렸다면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불교 디자인 상품들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작가님들과 협업을 통해 꽤 괜찮은 불교 디자인 상품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미' 하나로 빠져들어 청춘을 던진 불교크리에이터의 모습에서 새로운 힘이 느껴진다.

"현대불교신문의 구독자님들! 힘찬 새해되세요! 유튜브 아이고절런 구독!"

노덕현 기자

파사현정순례 1차 회향…"정법수호 영원히"

21일간 1000여명 동참,
망언 사과 등 이끌어내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진행된 순례회향에서 순례단이 정법수호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걷기쇼 비하와 조계종 종정 예하 비방 발언에 대한 불자들의 준엄한 경책인 '파사현정' 걷기 순례가 1월 27일 제1차 순례를 회향했다. 1월 6일 입재 후 삼보순례 기간과 동일한 21일간 정진기간 1000여 불자들이 참여했고, 서울 조계사, 봉은사, 수국사, 백담사, 호압사, 아름다운동행, 동국대 법인사무처 등 50여 사찰과 단체들이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문제의 발언을 한 종무원과 해당언론의 사과 등을 이끌어냈다.

1차 회향식이 진행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 정법 수호를 새롭게 결의했다. 특히 회향식에는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소청심사위원장 동명 스님, 총무부장 삼혜 스님, 특보단장 혜일 스님, 호법부장 현민 스님,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등 종단의 주요 스님들이 참석해 이들의 의기를 치하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파사현정 순례는 한국불교와 종단을 위한 소신있는 행동이었고, 호법신장들의 움직임이었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호 선봉장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순례단과 함께 포교원 부실장 및 종무원들과 동국대 까지 순례를 진행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삼보순례는 불교 포교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었다. 그동안 묵빈대처만을 강조했던 불교가 이제는 정법을 펴는 열정을 보일 때다. 파사현정의 정신을 갖고 깨우침을 주는데 계속 나서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삼혜 스님은 총무원 집행부를 대표해 "순례단의 뜻을 왜곡하고 폄훼한 일부 종무원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순례단의 신심과 수행이 폄하받는 일이 없도록 성찰하겠다"고 전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순례대중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정진을 하게 됐다. 비난한 이들을 헐뜯기 보다 걷기 수행으로 탁마해 선함을 드러내자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파사현정 순례에 나선 삼보순례단은 1차 회향을 시작으로 새로운 순례를 기획, 호법과 정법구현에 앞장설 것임을 전했다. 또 '순례 폄훼 및 해종행위 대책위' 를 구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안심정사, 인재불사 박차

회주 법안 스님 원력에
'안심장학회' 설립 · 운영
2월 11일까지 1기 모집

기도와 나눔, 불교 외연 확장으로 포교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안심정사가 이번에는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나선다.

안심정사는 최근 '안심장학회' 를 설립하고 제1기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안심장학금은 회주 법안 스님의 원력으로 운영된다.

안심정사 상주대중 및 상좌 가족의 자녀, 안심정사 재수불공 동참신도의 자녀,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각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생, 행정고시 및 공인회계사반에서 수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불교재단에서 운영 중인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장학금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장학금 신청은 2월 11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지원자는 안심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금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교수추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이메일 지원이며, 메일제목은 '안심장학회 장학금 신청/이름' 으로 기재하면 된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2월 21일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1670-4557

송지희 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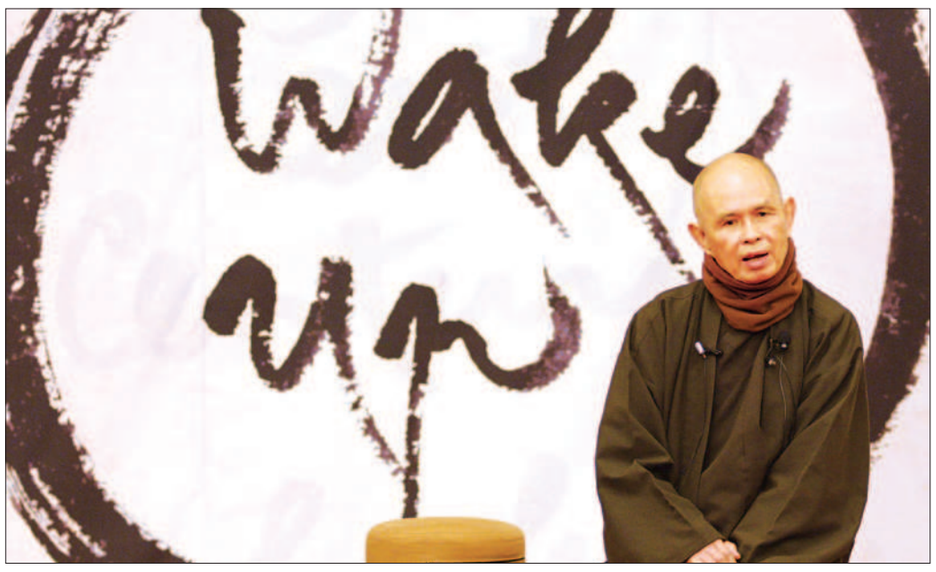
“평화 실천 위해 왔다”…상생·자비 메시지에 감동

틱낫한 스님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2013년 등 세 차례 걸쳐 한국 방문
시민들의 역사적인 아픔 어루만져

남북한에 ‘경청’ ‘자애’ 등 강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염원 행보를 보여

대중 명상 프로그램과 걷기 명상 ‘붐’
일조하며 포교와 수행법 개발 자극도



2013년 방한한 틱낫한 스님이 중앙승가대 학인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설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03년 3월 1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틱낫한 스님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며 두 손 모아 인사했다. 시인이자 평화운동가이며 ‘생불(生佛)’로 불린 불교계 지도자 틱낫한 스님의 한국에서 20일 일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당시 방한에서 틱낫한 스님은 여든 살이 다된 고령에도 불구하고 무리다 싶을 정도의 빡빡한 일정을 열과 성을 다해 치러냈다. ‘전국민 평화염원 걷기명상’ 등 20여 가지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평화와 상생, 자비의 메시지를 전해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틱낫한 스님은 1995년과 2003년, 2013년 세 차례 한국을 방문 했다.

1995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저서 〈화(anger)〉가 베스트셀러가 된 직후인 2003년 3월엔 ‘틱낫한 붐’ ‘걷기 명상 붐’이 일어날 정도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수많은 저서들이 쏟아져 나왔고 강연장은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스님은 ‘걷기 명상’으로 전국을 돌며 고통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틱낫한 스님은 방한 때마다 정치적 입장이 아닌 철저히 불교적 자비심에 따라 고통받은 이들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행동했다.

2003년 방한 당시 광주 5·18민주묘역을 찾아 시민들의 역사적 아픔을 어루만졌고 새만금 갯벌에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위한 명상을 진행하며 대지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랐다. 실상사에 들른 스님이 처음 한 행(行)은 생명에 대한 경배였다. 미군 장갑차에 짓밟힌 미선이와 효순이, 그리고 민족갈등과 좌우이념대립에 희생된 모든 중생들을 위한 분향소에 향을 꽂고 절을 올렸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현장도 찾은 틱낫한 스님은 천도재를 봉행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축원했다. 특히 스님은 지하철 참사지인 중앙로역에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시민회관까지 400여m를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실의에 빠진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행보는 ‘모든 불교는 삶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스님이 주창한 ‘참여불교’와 결을 같이 했다. 이병욱 고려대 교수는 “스님이 주창한 참여불교는 단순히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교 가르침을 이용하거나 사회적 불의에 항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스님은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천적인 사회활동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또 불교를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평화를 발견할 것을 강조했다”며 “자신의 평화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틱낫한 스님은 사회활동을 하는 이에게 명상을 강조했다. 명상을 한다는 것은 사물을 깊게 보는 것이고, 어떻게 자신이 바뀔 수 있고 또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밝게 보는 것을 의미했다.

명상 동참자들은 “급하게 서두르는 한국인의 일반정서에 틱낫한 스님의 걷기나 호흡 등 특유의 느림은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줬다”고 입을 모았다. 틱낫한 스님 방한 후 포교와 수행법 개발 등에 있어서 한국불교발전에 새로운 자극제가 됐다. 마음 수행과 걷기 명상을 통한 평화 메시지는 널리 전파됐고 한국불교계에는 대중적인 명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실제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2003년부터 처음 인연을 맺은 틱낫한 스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래도 괜찮아 5대 서원’을 세우고 2020년부터 자비명상과 플럼빌리지 수행을 융합한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을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2005년 플럼빌리지에서 수행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한 용인 행복선원장 연암 스님도 태국 플럼빌리지와 연계해 한국불자들에게 플럼빌리지 수행을 전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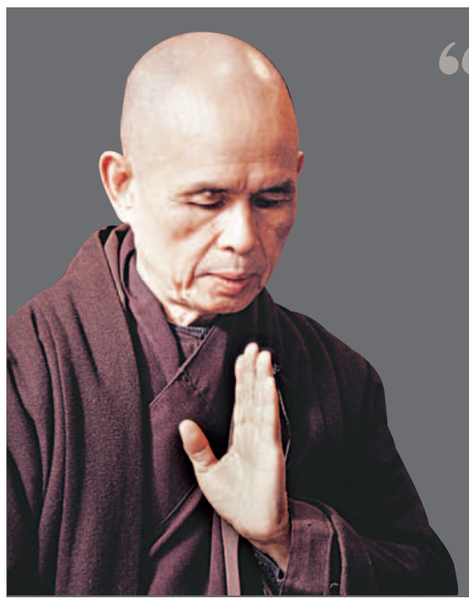
베트남전쟁 반대활동으로 오랜 망명 생활을 했던 틱낫한 스님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행보를 보이며 평화사상을 설파하기도 했다. 2003년 방한 기자회견에서는 “두 개의 한국은 어머니가 같은 형제”라며 “형제로서 남한이 먼저 ‘싸우지 말자’고 제안하라”고 당부했다.

2013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남한이 먼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경청을 통해 남의 고통을 이해하면 치유가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걷기 명상을 진행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고 서울시청 앞에서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이라크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평화염원 걷기 명상’을 이끌기도 했다.

월정사와 범어사, 잠실체육관 등에서 15일간 이어진 걷기명상과 법회에서 틱낫한 스님이 전한 치유의 메시지는 한국불교와 한반도 정세에 남다른 영향을 끼쳤다.

스님은 대중법문에서 남북한의 해법으로 ‘경청’과 ‘자애’를 주문했다. “남한이 자기 안의 이해와 연민의 에너지를 갖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를 치유하게 되고 더 강해진다”고 말한 스님은 “모든 존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만큼 포기하지 않는 대화와 스스로의 치유를 통해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일괄했다. 그러면서 “불교가 앞장서 상생과 화합을 좇아야 한다”면서 “사성제의 고귀한 진리인 고통의 뿌리를 발견해 이타심은 물론 양국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차례에 걸친 틱낫한 스님 방한에서 기획자이자 통역자로 함께한 권선아 박사는 “틱낫한 스님은 세 번의 방한을 통해 부처님 전법과 시대적 과제를 역설했다”며 “스님이 전한 치유와 상생의 화두는 감동과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자비의 가르침으로 남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신이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쩌면 인간이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신을 창조했을 수도 있다.

꽃은 꽃 그대로가 아름답다.
자신 그대로가 아름다움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찾으려고 하는가?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앙갚음
하려고 그와 입씨름을 한다면, 그것은
불이 붙은 집을 내버려 두고 방화범을
잡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미래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하지만 삶은 늘 지금 이 순간 뿐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를 향해 내딛어야 한다.

태어남과 죽음은 단지 개념일 뿐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일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실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의 기적에 대해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시적 어투로 부처님 가르침 전해



100여종이 넘는 책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에서 설법을 해온 틱낫한 스님의 저서들은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시적인 어투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에서는 〈화〉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 〈걷기 명상〉 등 저서가 번역됐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화〉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미움, 시기,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며 타인과의 사이에 얽혀 있는 모든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한다.

▌자기발견과 평안을 얻기 위한 명상 안내서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

베트남 전쟁당시 ‘현실참여 불교운동’으로 일환으로 설립한 청년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던 중 프랑스로 망명한 저자가 봉사단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들을 묶었다. 명상 수련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대한 지침서.

▌틱낫한 스님의 영적 가르침을 담은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사랑과 보살피는 마음을 갖고 걸음을 내딛는다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아름다운 언어로 빚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낫한 명상〉

틱낫한 스님의 우리 눈을 밝게 하고 가슴을 여는 명상을 소개한다. 아무도 없는 특별한 곳이 아닌 너와 나의 생활공간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법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정성 가득한 기도 이야기 〈틱낫한 기도의 힘〉

‘기도는 정말 이뤄질까?’, ‘기도를 가능케 하는 건 무엇인가?’ 등 기도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대한 스님의 답. 삶의 순간순간을 정성으로 채운다면 우리 삶은 기도와 하나가 된다.

▌틱낫한 스님의 365일 잠언 모음집 〈너는 이미 기적이다〉

틱낫한 스님의 70여 권에 이르는 책과 글에서 우리 영혼을 비춰 주는 거울 같은 문장 365개를 엄선, 스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영혼의 선물!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가장 순수한 방법 〈틱낫한 불교〉

“붓다는 신이 아니었습니다”로 시작하는, 불법(佛法)의 정수를 직접 해석해서 엮은 아주 드문 저술.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마음챙김의 길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매뉴얼을 담은 마음 따뜻한 에세이.

불곡산 대광사 2022년 신입생 모집
명상 상담 대학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2월 13일(일) 까지
▣ 강의내용 :

과 목	강의내용
불 교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양사상, 유식과명상, 천태소지관
명 상	위빠 사나(알아차림, 자기집중, 호흡) → 이론, 실기 병행 및 무념 치유(특강)
상 담	상담 심리학, 성격 심리학, 가족 행복상담, 대상별 상담 이론 및 실체

▣ 강의시간 : 기본과정 [야간] 매주(화) 19:00 ~ 22:00
심화과정 [야간] 매주(수) 19:00 ~ 22:00
전문과정 [야간] 매주(목) 19:00 ~ 22:00
▣ 수 료 후 특 전 : 명상 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특 강 : 매주(화) 테라피요가 명상
▣ 대 상 자 : 명상을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능
▣ 접수방법 : 대광사 종무소 방문 또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인터넷 입학 신청
▣ 문의전화 : 031)715-3000
▣ 수 강 료 : 한 학기당 170,000 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031-715-3000 / 3404

불교사상으로 사회 현안 연구 '연사모' 창립

1월 22일 대원각사에서 창립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매달 넷째 주 토 대원각사서 정모
다도 인문학 · 환경 등 현안 연구

인문학과 환경 등 현대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모임 '연꽃을 사랑하는 모임' (이하 연사모)이 창립됐다. 연사모(지도법사 안도)는 1월 22일 부산 장산 대원각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법회에서는 지도법사 안도 스님의 인사말과 차(茶) 인문학을 이끌어 갈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원장, 이두석 前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 명예회장, 황종연 스마트커플러 주식회사 대표 등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여승익 문학 작가가 시(詩)를 낭송하며 창립을 축하했으며 사홍서원 후 기념촬영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2부에서는 대원각사에서 직접 채다한 녹차를 마시며 '끽다거' 로 선법문을 전해준 조주선사의 '다선일미' 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원장이 담당했으며, 차 한 잔에 담긴 선(禪)의 정신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김대철 원장은 "진리의 구도자에게 '차 한 잔 하라' 는 조주선사의 가르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선을 설명하는 방편이었다. 차의 맛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알 수 없다. 직접 마셔야 차 맛을 아는 것처럼 선도 마찬가지다. 끽다거는 조주 선사의 친절한 가르침이었다"며 "앞으로 정기모임에서 차와 불교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차와 불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고 강조했다.

연사모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대원각사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한다. 현대 사회에서 참된 힐링이 무엇인지 제안하며 불교와 차에 관련한 인문학 강의와 불교 논문 연구 등 다채로운 불교 공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환경을 주제로 사회 주요 현안을 연구하며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창립 멤버는 김대철 원장을 비롯해 여승익 작가, 주순희 부산동래구의회 의장, 이두석 국제포교사, 황종연 열린포럼 전 사무총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20여 명이 동참한다.


불교사상연구모임 '연꽃을 사랑하는 모임' 이 1월 22일 부산 장산 대원각사서 창립법회를 했다.

특히, 정기모임 장소인 대원각사는 1000여 평의 녹차밭이 조성되어 있고 부산 해운대구 장산에 위치해 넓게 펼쳐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자랑한다. 또 달빛걷기명상, 금강승불무도 템플스테이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반인들에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불교복합문화공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명상치유센터 참살이를 운영해 쉼터를 찾는 현대인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사모는 "불교인문학 공부를 통해 지혜를 증진하고 힐링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지도법사인 안도 스님을 도와 환경을 위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현재 지도법사 안도 스님은 부산불교환경연대 준비모임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지도법사 안도 스님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각자 떨어져 있는 개체라고 생각한다. 화엄경의 내용을 보면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며 "'둘이 아닌 하나' 라는 이치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연사모는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성장할 것이다. 아름답고 훌륭한 사회를 위해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청소년포교 위한 '쌀나눔 운동' 전개

불교쌀나눔사회적협동조합 창립
1월 26일 부산 청심사서 창립총회



불교쌀나눔사회적협동조합(초대이사장 유지호 · 이하 쌀나눔협동조합)이 1월 26일 부산 청심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쌀나눔협동조합은 쌀 한 포대 나눔 운동을 전개해 교육 장학사업, 취약계층 생활용품 제공사업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장학금을 수여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법회를 열고 불자 청소년 양성에 앞장 설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 초대이사장으로 유지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직전회장이 추대됐다. 유지호 초대이사장은 청소년전문가로 어린이 포교기구 동련,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조계종어린이청소년위원회 등에서 근무했다.

쌀나눔협동조합 설립에는 청심사 주지 법진 스님과 이도경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 성수용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이 함께 뜻을 모았으며, 장안사(무관 스님), 해동용궁사(연규 스님), 금용사(동암 스님), 옥천사(무문 스님), 선광사(성문 스님), 청량사(보혜 스님), 약수사(혜우 스님), 여래사(종우 스님), 용문사(용하 스님), 청심사(법진 스님), 자모선원(효문 스님)을 비롯해 왕선자 前 부산여성불자회장, 해동고 파라미타 졸업생 등이 쌀나눔을 후원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총聯 박수관 회장 소외이웃 후원

부산 진구청에 백미 10kg 1450포 전달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 신도회장이 1월 24일 부산 진구청에 백미 10kg 1450포(50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수관 회장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원들이 동참했으며, 전달한 백미는 지역 내 소외 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박수관 회장은 매년 명절이면 통 큰 기부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불자 기업인이다.

명절 뿐 아니라 인재 불사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에도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양로원, 재활원, 복지관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성금과 성품을 지속적으로 후원한다. 고향인 여수에서는 박 회장을 기부천사라 부른다.

30여 년 동안 여수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장학금, 지역 발전 기금, 화재 성금 등 기부금만 530억이 넘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유물도록 〈범어사의 불상〉 발간

주요 소장 불상의 도상과 가치 소개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소장 유물 도록 〈범어사의 불상(梵魚寺의 佛像)〉을 발간했다.

도록에는 범어사 전각 9개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의 도상과 내용, 그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과 복장발원문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팔상전 삼존불의 도상, 나한전의 나한상과 불상들의 착의형식과 선묘를 자세히 보여준다. 그리고 비로전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존불과 불상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넣는 복장유물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미륵전의 '목조여래좌상' 과 주불이 앉아 있는 하대석의 조형미를 소개했다. 그 외 관음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 과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하고 있는 '선재동자상' , 지장전과 독성각, 천왕문 등에서 볼 수 있는 불상과 사천왕상을 소개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천년고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는 범어사에는 오랜 유물이 전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불상들을 모시고 있다. 본 도록에서는 주요 불상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자 하였다"며 "사찰은 종교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쉼 없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각 전각이나 박물관에서 불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반면 불화 속 주체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어렵게 여겨지기에 도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역사와 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불화의 도상과 내용 그리고 가르침들을 소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신축개관기념 특별소장展 개최

2월 16~1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1층
2월 23일~3월 8일 서울 인사아트센터



복합명상문화센터 쿠무다(이사장 주석)가 신축 이전개관을 기념하는 특별 소장전 '인연(因緣)' 을 개최한다.

특별 소장전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1층 시실리룸에서 진행되며, 2차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1층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1차 소장전 개막식은 2월 16일 오전 11시이다.

전시에서는 이사장 주석 스님이 직접 기획했으며, 쿠무다가 소장해 온 불화 및 서예작품 그리고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특별소장전은 과거와 현대, 종교와 문화, 예술과 우리 사회가 소통하기를 원하는 쿠무다 정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될 작품은 삼락자 석정 스님의 달마도와 이승희 작가의 '프레임 속의 도자기 체어' , 변훈 작가의 '달 항아리' , 서칠교 작가의 '포대화상' 등을 비롯해 불교 선화 50여 점, 일반 회화 20여 점, 도자기 및 공예품 등 다채롭다.

쿠무다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과거와 현대를 넘나드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시장 자체가 관람객의 쉼터가 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 전공자들의 장학금 조성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후원, 불교문화 컨텐츠 개발 등에 사용될 기금 조성에도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함안불교사암聯, 자비의 쌀 전달



함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명)가 1월 21일 함안군청 2층 군수실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 백미 80포(300만원 상당)는 설 명절을 맞아 함안군 지역 저소득계층 8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함안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원명 스님, 칠보사 정광 스님, 발원통사 영공 스님, 조용찬 함안연합회 신도회장, 조근제 함안군수가 참석했다.

회장 원명 스님은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합회 스님들께서 마음 내어서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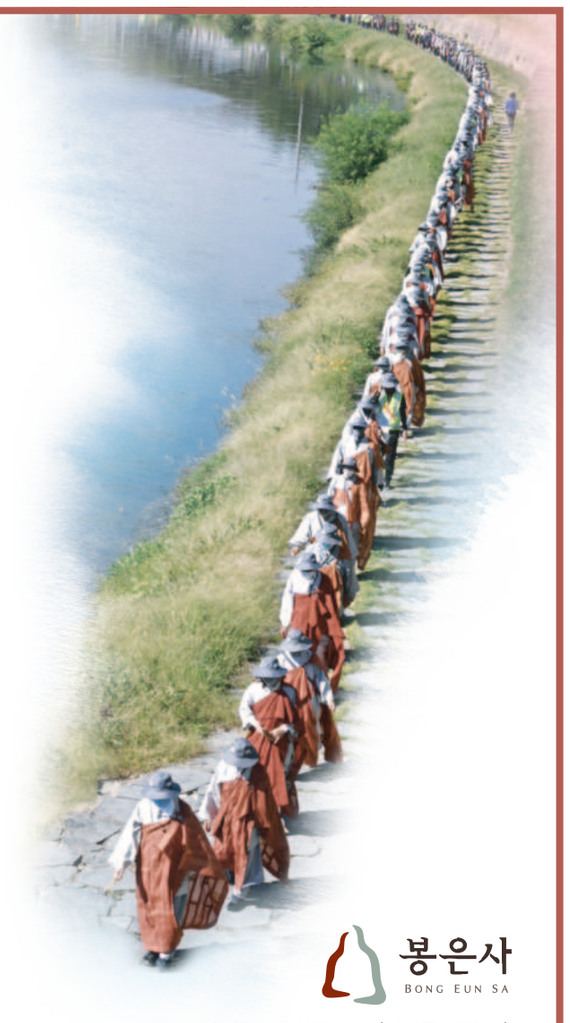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창원불자들 설 앞둔 자비나눔 눈길

창원시불교聯 자비나눔

32년간 소외계층 돕기 나서
한마음병원 이사장 1억 기부
창원 5개권역 3천만원 전달
모범청소년, 시각장애인 도와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케익커팅을 하며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1월 25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호텔에서 제32회 자비나눔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합회장인 불지사 정인 스님을 비롯해 봉원사 지태 스님,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성주사 법안 스님, 석봉암 월봉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 정법사 광우 스님, 반야사 혜명 스님, 구룡사 무성 스님 외 지역스님들과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이사장, 성주사 김이순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과 함께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연합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회장 정인 스님의 봉행사, 후원내역 공개, 성금 전달,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 1억 기부 약정식, 상임고문 지태 스님의 격려사, 허성무 창원시장 축사, 하례회, 축가 축원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창원시불교연합회장 정인 스님은 "임인년 인내심의 결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며 "사바세계 공동체 근본은 자비심과 베품의 마음이다. 나눔을 함께 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좋은날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자비회 이사장 원문 스님은 "32년간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해주신 창원불교연합회 스님들과 금강자비회원, 대중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선한마음으로 이웃나눔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상임고문 지태 스님은 "부처님세계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모든 것이 불성으로 하나"라며 "자비나눔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자"고 서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불교사암연합회와 금강자비회에서 매년 설을 앞두고 자비나눔 행사를 펼쳐줘 감사하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 실천과 이웃을 위한 행보는 우리의 삶에 소복소복 내린 눈처럼 따뜻한 일상을 선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1억원을 기부 약정한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은 "신심깊은 부모님 덕분에 오늘 공덕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창원시 한부모 가정 등에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후원 성금은 창원시 5개 권역별 추천받은 한부모가정 30가구에 각각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전달됐다. 또 고등학교, 청소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모범 청소년 30명에게 장학금 50만원씩 총 1500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노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협회에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이 전달됐다. 또 심산서울병원, 창원시공무원불자회, 사찰 신도회 등이 후원한 가래떡 및 삼겹살 등이 저소득가정에 전달됐다.

미황사 대웅보전, 1000일 휴식 들어가다

해체보수불사 고불식 봉행

부자재침식, 보존 필요해
전면해체 수리 방침 결정
3년 해체 불사 진행 예정


해체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대웅보전에 헌화를 하는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 대웅전의 해체보수공사가 진행된다. 미황사(주지 향문)는 1월 2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대웅보전 - 천일의 휴식' 이름으로 대웅보전 해체보수불사 고불식을 갖고 3년간의 해체보수공사에 들어간다.

보물 947호인 미황사 대웅전은 달마산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조선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행사에는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주지 법상 스님을 비롯해 대흥사 대중스님들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재갑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김병덕 해남군의회 의장, 유명식 미황사 신도회장 등 100여 대중이 참여했다.

고불의식과 명종에 이어 불교의례 육법공양(초의차보존회), 고불문, 기념식과 축사, 법어(보선스님), 발원문, 사홍서원이 이어졌다. 대웅보전은 2010년부터 정밀 실측조사를 통해 일부 건물 부자재의 침식이 진행돼 건물 보존의 위험성을 확인했다. 또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웅전 내·외부 벽화와 단청에 대한 보존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해체보수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게 됐다.

법상 스님도 "천 일간의 불사는 눈에 보이는 법당의 보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닌, 처음 창건하였던 선사들의 마음을 이어 중건과 보존에 힘써왔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후세에 오롯하게 전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황사 대웅보전은 지난 749년 창건과 더불어 신축되었으나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것을 1597년부터 1660년까지 1, 2차 중창을 통해 복원했다. 1988년 보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담대종사 54주기 추모다례재 열려

1월 26일 불곡사 관음전서 봉행


창원 불곡사 우담문중회는 1월 26일 불곡사에서 '우담대종사 5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창원 불곡사 우담문중회는 1월 26일 불곡사 관음전에서 '우담대종사 5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이사장 도홍 스님, 우담문도회 근파 스님, 선파 스님, 교육원장 능산 스님, 불령사 영암 스님, 팔봉암 범산 스님, 취봉장학회 묵암 스님 등 20여 스님, 이성품화 신도회장, 보리수합창단, 세음다회 및 임원진이 동참했다.

행사는 타종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삼귀의, 천수경, 상단권공(축원), 우담대종사 행장소개 및 환영사, 추모사, 추모곡 및 헌다, 종사영반, 헌다 및 헌화, 헌시(신도회장 이성품화), 격려사, 배송의식,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우담문도회 이사장 도홍 스님은 환영사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많은 스님과 임원진 참석에 감사드린다"며 "2021년 총회에서 본사 불곡사에서 재를 지내기로 결정, 오늘 54주기 다례재부터 본사서 지내게 됐다. 감개무량하다"고 전했다.

선파 스님은 격려사로 "추모 다례재를 본사 불곡사에서 모심에 임원진과 사부대중의 감회가 깊다. 매년 이곳에서 정성을 다해 재를 지내고 정진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능산 스님은 격려사로 "우담 스님 문도들이 대대손손 불곡사에서 대례재를 올리게 되어 감사하며 합창단과 다도회 관음회에서도 늘 함께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담대종사는 1882년 밀양시 삼랑진읍 청용동에서 태어나 11세인 1892년 모친의 인도로 창원 불모산 성주사에 웅파 스님의 법손인 인봉 스님을 은사로 입사했다. 1917년 고성 옥천사 강원 사교과 수료 당시, 강사 일우 박만선 스님으로부터 어산염불에 매진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스님은 1930년 불곡사를 재창건하고 이때부터 범음범패 어산염불을 적극적으로 정립했다. 1940년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대덕법계를 수했고, 1946년 장유암 주지로 취임했다. 1952년 종사법계를 수했고, 1955년 웅파종문회 재창립 산중대회를 장유암에서 개최하면서 장유암을 본사로 선언했다. 이후 1960년 불모산 성주사 주지로 취임했다. 1962년 불모산 영산재 학원을 개설하고 범음 범패승 양성배출에 나서 금해·명해·은파·근파 스님 등 많은 범패승이 배출되었다. 스님은 1968년 진해 성도사를 창건하고 안거 중 세납 87세, 법납 77세로 입적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읍 일광사 '자비의 백미나눔' 귀감

1월 25일 설 명절 앞두고 정읍시청에 전달


정읍일광사는 1월 25일 정읍시청에서 자비의 쌀 전달 등 설맞이 소외계층 돕기를 진행했다.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와 일광사 연꽃신도회(회장 유상분)가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회 불자들은 1월 25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승천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군산 염불사 주지 혜윤 스님, 군산 도안사 주지 명현 스님 등 스님들과 유진섭 정읍시장 등 정읍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승천 스님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며 꿈과 희망을 잃지않고 용기를 주기 위해 신도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자비의 쌀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고문도 역임하고 있는 승천 스님은 1월 19일 수용자들을 위해 과일과 떡 1400명 분을 전주교도소 김남주 소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승천 스님은 1985년 일광사에 부임한 후 신도회를 활성화하고 교도소와 군부대, 복지단체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해외구호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마하연 승가회를 통해 베트남 초등학교 식수지원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다. 또 부처님오신날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재소자들의 교정교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34년간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성원대종사 40주기 추모재 봉행

대종사 유지 이어 수행정진 다짐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1월 21일 근대 한국불교 대강백인 운기당 성원대종사 40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재에 참석한 스님들은 성원대종사 유지를 이어 수행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도를 대표해 혜산 스님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참석해 준 문도스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추모재 후에는 전강식도 봉행됐다. 전강스승인 재선 스님은 전강제자 도해 스님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법호는 활청.

재선 스님은 "석전 대종사와 운기 대선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한 운기 스님은 화엄종주 설파, 백파, 설유, 영호의 교지를 계승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고을나눔나무, 승가 의료비 1200만원 지원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 부설(사)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는 1월 19일과 1월 25일 제7,8차 승보공양을 진행했다.〈사진〉

빛고을나눔나무에서 진행하는 승보공양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스님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총 1,200만원이 전달됐다.

이번 승보공양은 나주 문성암에 주석중인 지궁 스님과 담양 용흥사에 있는 혜담 스님에게 각 600만원씩(매월 50만원, 12개월)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도성 스님, 중현 스님, 도계 스님(소원정사) 등이 참여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치료에 전념 중인 두 스님을 격려했다.

도성 스님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마음을 굳건히 해 빨리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합천 해인사와 코끼리행복복지센터 자비나눔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1월 26일부터 27일 이틀에 걸쳐 합천군 관내 가야면, 야로면, 묘산면, 봉산면 지역 주민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자 어르신, 복지센터 종사자 등 총 800여 명에게 떡국떡(1가구당 1kg 개별 진공포장)을 전달했다.〈사진〉

해인사와 코끼리행복복지센터의 '설날맞이 자비나눔행사'에서는 스님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 감사와 위로, 격려 덕담과 함께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수혜 대상은 1월 26일 가야 257명, 봉산 148명, 1월 27일 야로 180명, 묘산 167명 등 총 800명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백양사 대웅보전 불상 후불탱화 점안식



울산 백양사는 1월 25일 대웅보전에서 통도사 보살선원장 천진 대종사를 증명법사로, 통도사 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이 집전한 가운데 석가모니불, 좌우협시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개금불사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점안법회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신흥사 주지 종현 스님,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 월봉사 주지 보화 스님 등 지역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은 "코로나와 더불어 어려움이 많은 요즘이지만 사부대중의 관심과 협조 속에 산신각에 이어 개금불사까지 회향함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 남은 큰 불사들도 기도정진하며 성심성의껏 잘 회향하겠다"고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태종 대구 대성사 회장 취임 및 정기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원)는 1월 22일 대성사 제22대 조현대 신도회장 취임 및 2월 정기법회를 경내 서원장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는 개회선언과 함께 육법공양, 집회가, 삼귀의례,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법어, 국운융성기원에 이어 신도회장 임명장과 축하 꽃다발 전달이 있었다. 조현대 신도회장은 "반백년 역사를 같이한 역대 주지 스님과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소임자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신심을 바탕으로 한 임원들과 함께 정진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편안하게 하는 천태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광주 무등산 원효사 쌀나누기



광주 원효사(주지 해청)는 1월 26일 광주 북구청(청장 문인)을 방문해 백미 1,000kg을 설 명절을 맞이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사진〉

청장실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도성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해청 스님을 비롯해 원효사 신도대표 등이 참여, 뜻을 함께했다.

전달식에서 해청 스님은 "신도들이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마련한 쌀이니,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日, 일러스트 NFT 주인 등장 화제

〈朱印〉

전통적인 '朱印문화'의 새로운 시도

치토쿠 스님, 미대 졸업 특기 살려
직접 만든 캐릭터로 일러스트 제작
본존불 사진 활용…해외 확산 목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불교에는 각 사찰을 참배하고 이를 인증하는 붉은 도장과 글씨를 받아 가는 '주인(朱印)'이라는 전통이 있다. 최근 들어 주인문화가 새롭게 각광을 받으면서 NFT(대체불가토큰) 주인까지 등장했다. 1월 18일 일본 'PR 타임즈'는 NFT(대체불가토큰)로 공개된 주인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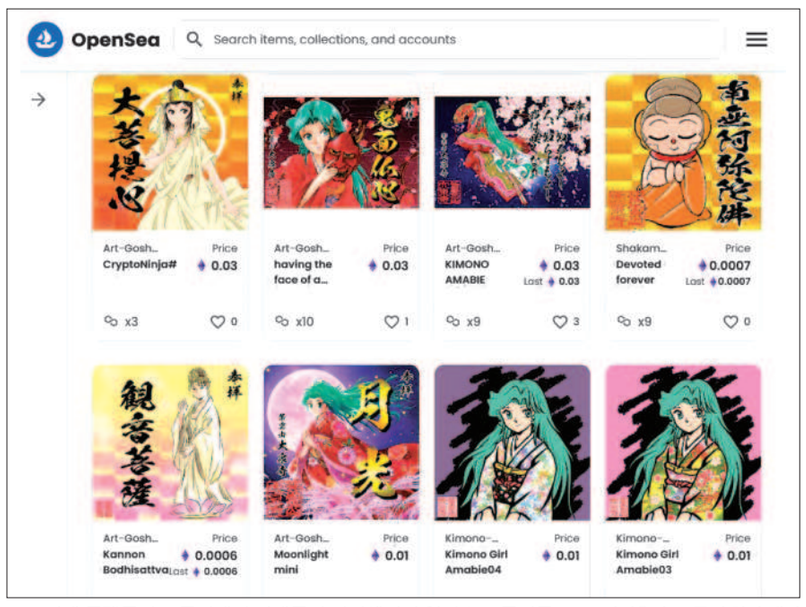
사찰을 참배해 예불 올리거나, 공양 올린 후 증표로 수여되던 주인은 중세부터 전해오는 일본불교 고유문화다. 일반적으로 사찰 이름과 본존불 명호가 쓰여진 붉은 도장을 종이나 공책에 받아 간 것에서 주인(朱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주인을 수집하고 이를 테마로 사찰을 참배하는 '주인 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인 형태도 단순한 도장이나 붓글씨에서 수묵화나 판화, 디지털 일러스트 등 다양한 '예술 주인'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본 불교계에서는 새로운 불교미술 장르가 개척되고 있는 것으로 호평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 주인 가운데 스님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가 NFT로 등장했다. 교토에 소재한 정토진종 사찰 다이센지(大泉寺)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NFT 주인을 공개하고 있다. 주지 마츠우라 치토쿠 스님은 "일본불교미술 가운데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주인 문화를 해외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NFT 주인의 시작"이라며 계기를 전했다. 치토쿠 스님은 미술로 유명한 교토 세이카 대학에서 일본화를 전공, 한때 만화 어시스턴트 활동을 한 경험으로 지금껏 일러스트를 활용한 포교활동을 해왔다.

일러스트 주인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다. 일러스트 주인에는 스님이 직접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짧은 경구나 계절, 명절에 맞는 문구들이 쓰여 있다. 스님은 "종이에 직접 그리거나 인쇄한 것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해외에 주인문화를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그렇다고 단순한 디지털 일러스트만으로는 사찰과의 직접적인 인연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떠오른 것이 NFT"라고 설명했다.

NFT는 복제가 손쉬운 디지털 세계에서 복제가 불가능한 원본을 이용해 만들어진 재화를 말한다. 혹여 위변조나 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자의 명확한 보장과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원본성에서 재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치토쿠 스님은 이를 이용해 일러스트 원본성과 스님이 그렸다는 의미를 담아냈다.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씨에서 거래중인 다이센지의 일러스트 주인들. 사진출처=오픈씨 화면 캡쳐

스님의 NFT 주인은 해외확산을 목표로, 세계에서 NFT 아트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플랫폼 오픈씨(Open Sea)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림의 완성도 등에 따라 가격은 최저 2달러에서 70달러까지 다양하게 책정돼있다. 현재 일본 불교계에서는 다이센지를 이어 다양한 NFT 주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도장과 붓글씨를 이용한 것은 물론, 본존불의 사진을 이용한 것도 있다.

NFT 주인에 대한 반응은 현재 상반되고 있다.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맞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찰참배의 인증이라는 본래의 뜻이 퇴색, 단순한 불교 일러스트를 주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반박도 일고 있다.

日, "박물관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나라국립박물관, 관내예불 봉행
전시 성보도 '신앙 상징'임 알려

사찰을 제외하고 불상 같은 성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은 단연 박물관이다.

1월 21일, 일본 'NHK'와 '나라 TV'는 나라국립박물관의 불상전시관에서 박물관에 소장된 불상들을 예경하는 법요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옛 수도이자, 불교문화의 중심지였던 나라(奈良). 그 명성에 걸맞게 나라시에 소재한 나라국립박물관은 1895년에 완공된 구 본관을 현재 불상과 불교유물만을 전시하는 '나라 불상관'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자체도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문자 그대로 문화재 보고다.

불상관에 전시되고 있는 불상들은 박물관 자체 소장품도 있지만, 대부분 관리와 보존을 위해 원 소장처인 사찰들이 위탁한 것으로 개중에는 본존불로 모셔지던 불상도 다수 존재한다. 나라박물관 측은 박물관에 전시중인 불상들도 원래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평소와는 다른 박물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2006년부터 계절별로 연 4회 관내예불을 토다이지(東大寺) 측에 요청해 봉행하고 있다.



나라박물관 불상전시관에서 봉행된 예불. 사진출처=NHK방송화면 캡쳐

1월 21일 오전 10시에 봉행된 동계관내 예불은 토다이지 주지인 사가와 후몬 스님을 법주로 16명의 스님을 모시고 봉행됐다. 이번 예불의 본존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간고지(元興寺)에서 위탁한 약사여래입상. 200년 전까진 간고지 경내 목탑 본존불로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전하며, 8세기경에 조성된 등신대 목조불상이다.

예불은 불상관 중앙홀에 안치된 약사여래입상 앞에 마련된 임시불단에서 봉행됐다. 스님들 뒤로는 나라박물관 임원들이 배석했으며 산화(散華)의식 등으로 박물관에 안치된 불보살상에 공양을 올렸다. 이후 스님들은 향로를 앞장 세워 불상관 각 전시실을 돌면서 전시중인 성보들에 대해 독경과 예불의식을 봉행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나 이번 예불은 2년 만에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됐다. 예불에 참석한 대중들은 평소라면 화기가 엄금인 관내에서 순서대로 향공양을 올리고 손을 모아 기도했다. 나라시에서 방문한 40대의 여성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박물관이라 매우 감동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AI 스님 '프라마하' 화제

포교의 목적 2021년 개발
SNS서 젊은 세대와 소통



태국 '인공지능 스님' 프라마하AI.

일본에 이어 태국에서도 '인공지능(AI) 스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설법으로 포교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과학 관련 매체 보이스봇 에이아이(Voicebot.ai)는 1월 21일 "2021년 가을 개발된 AI 스님이 최근 언론과 첫 인터뷰를 가진 이후 대중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태국 국영방송 PBS와 태국 최초로 개발된 AI스님인 프라마하AI(Phra Maha AI)와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프라마하AI는 PBS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각지의 AI 인플루언서들이 개발자인 사이 무(Sai Mi)가 나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다"며 "나는 30살이며, 전통적인 불교 교리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상에서 젊은 세대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포교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프라마하AI는 2030 세대들에게 최근 성행하는 가상화폐에 인생을 빗대 "인생은 암호화폐처럼 기복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이 무 개발자와 그의 팀은 평면적인 입 모양을 만화 이미지에 접목시켰다. 눈을 깜빡일 수는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정지된 모습이다.

해당 매체는 "인공지능 첨단기술은 사실 프라마하 AI보다는 훨씬 더 발전해 있다"며 "상업적이면서도 교육적인 AI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일본에서 '안드로이드 관음'이라는 이름의 AI가 개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안드로이드 관음'은 높이 1m95cm 크기에 실리콘과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됐다. 일방적으로 설법하는 게 아닌 신도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스님, 10대에 마약 판매 혐의 체포

마을 주민들 고발로 경찰 조사
고위 승려 마약 밀반입 빈번에
"사찰 전수조사 해야" 목소리도

태국 북동부 차이품(Chaiyaphum) 지역 한 마을에서 한 불교 승려가 10대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1월 19일 가톨릭아시아뉴스연합 등 외신에 따르면 프라 수톤(Phra Suthorn) 스님은 이른바 '히로뽕'으로 널리 알려진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을 마을 10대들에게 팔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프라 수톤 스님의 집을 압수수색해 침대 밑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36개의 봉투를 발견했다. 이후 프라 수톤 스님은 혐의를 자백했다.

태국에서 스님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남부 춤폰(Chumphon) 지역 한 사찰 주지 스님이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에도 '인근 사찰 스님들이 마약을 소지한 것 같다'는 마을주민의 제보로 조사 및 체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밖에 2020년 12월에는 고위 승려가 마약을 밀반입해 불법 판매했고, 다른 사원 스님 3명도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특히 북부 치앙라이 출신 한 스님 차량에선 480만 개의 필로폰 알약이 발견됐다. 경찰은 "판매를 목적으로 상자에 포장돼 있었다"며 "14발의 총알이 들어있는 권총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스님들은 마약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킬 때 차량을 직접 운전해 경찰의 의심을 피한다.

한 논평가는 "비단 일련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스님이 많다"며 "경찰이 각 사찰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 한다.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석방 후 사찰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출강 및 통신 2022학년도 제31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1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http://pubsa.net FAX : 02)737-5305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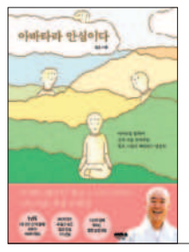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6~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알기쉬운 우리말 화엄경독송	무비 스님	우리출판사	7	우다나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3	근본불교	이 중표	불광	8	붓다의 옛길	삐야닷시테라	달물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	정토	9	유가사지론 강의	남회근	부키
5	밀법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는 도기밀종과 동방신비학	남회근	마하연	10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법화경	손 종호	운주사

책세상

"'나' 버리고 아바타로 보면 기쁨 슬픔 사라져"



아바타라 안심이다
월호 스님 지음
마음의 숲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아바타 메이커' 4차 마음 혁명 수업

tvN의 유명 프로그램중 하나인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스님으로서 최초 출연하며 '아바타 대면 관찰법' 으로 화제를 일으킨 월호 스님. 불교계 불벤저스 중 한명인 월호 스님(행불선원장)이 신간을 최근 펴냈다. 제목은 〈아바타라 안심이다〉이다.

150여 강에 달하는 법문을 강설하며 MZ세대가 꼭 듣고 싶어 하는 불교 강설자 1위에 선정된 저자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손아귀에 쥔 불안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마음 혁명 수업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상현실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월호 스님은 안심, 또 안심이라고 말한다. 나는 하나의 아바타일 뿐이요, 이 세상은 허상이라는 마음가짐이 허무함과 나태로 빠지지 않고 '내 작품' 이라며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용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클리어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는 롤 플레잉 게임처럼 삶이 재미있어지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일러준다. 메타버스 세상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설계하듯이 나의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라고 말이다.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은 결국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누군가는 말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이 메타버스 명강의를 빠짐없이 읽어나가면 온전히 이해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크고 밝고 충만하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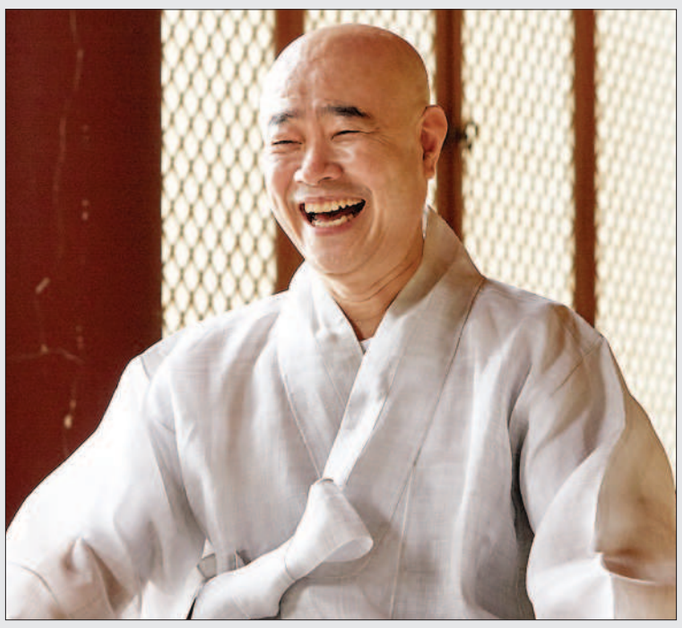
1교시 : 아바타 명상, 나는 나의 관찰자

이 책의 시작이자 핵심인 '아바타 명상' 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람이 아닌 아바타로 여기는 생각서 출발한다. 불교 주요 경전인 〈금강경〉에 등장하는 가르침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킨 이 명상법은 영화 〈아바타〉를 보았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화 줄거리처럼 '진짜 나' 는 어딘가서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며 몸을 통해 감각을 느끼고 머리를 통해 생각하는 '지금의 나' 는 허상, 그러니까 영화 속 '나비족' 과 같다는 것이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알아채는 것이 진짜 나를 찾는 길이다. 진짜 나를 찾으면 불안도 고통도 없는 세계가 열린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의 '아바타 대면 관찰법' 화제
150여강에 이르는 마음혁명 수업

'나' 를 버리고 아바타로 바라보면 모든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이 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은 선택할 수 없을뿐더러, 늘 함께 오는 것이어서 어느 하나만 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바타 명상의 목적은 결국 안심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를 비워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흘려내라는 월호 스님 말씀은 결국 '나' 를 버리며 '나' 를 쉬게 하라는 큰 뜻이다.

세간사는 인(因)과 연(緣)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은 '나' 고 연은 주변 상황이다. 사람들은 연이 무탈하기를 바라지만 연은 끊임없이 바뀌어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인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은 자기 마음이므로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0이라면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 **월호 스님**은?

출가 이전, 삶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본마음 · 참나'를 찾아 각고의 수행을 했다. 동국대에서 묵조선과 간화선을 전공해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쌍계 총림 방장 고산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으며, 동국대 겸임교수 ·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행불선원 선원장으로, BBS TV 〈월호 스님의 행불아카데미〉를 인기리에 진행하고 있다. 또 월호 스님의 법공양 〈줄탁동시〉와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 〈관찰자를 관찰하라〉를 통해 대중과 매일 스마트폰에서 만나고 있다. 저서로는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리셋〉 〈월호 스님의 유마경 강설〉 〈아무도 너를 묶지 않았다〉 〈문 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행복은 달처럼〉 등 다수가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자신이 아바타임을 깨닫는 것이다. 나의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여기며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듯 관찰하면, 내 몸에 병이 생겨 아프더라도 아바타가 병에 걸려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이 된다."

〈내 몸과 마음은 아바타〉 中에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내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고통이 온전히 소멸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한다. 적이 없어야 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야 내 고통이 없어진다." 〈내 아들이 아바타라니?〉 中에서

"무아를 연습하는 것은 그리 대단하지 않다.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다. 나 스스로가 하나의 통로가 될 때, 여기에 나는 없다. 다만 드나드는 모든 것이 있을 뿐이다. 나의 위를 오가는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지나다니면서 '나' 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어떠한 '나' 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목적을 만드는 연습〉中에서

아바타 명상의 목적은 '안심추구'
"'나'를 버리고 쉬게 하라"가 핵심

타는 수없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다.

MZ세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불교 강설을 진행하는 월호 스님이 수년간에 걸쳐 연구한, 나를 버리는 법을 알려주는 아바타 마음 수업에 이어서 세상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메타버스 정신 수업이다. 고대 플라톤의 동굴 이론부터 현대의 트렌드 세터 가상 인간 '로지' 이야기까지, 메타버스 세계관과 연관되어 나오는 다양한 예시들은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한결 쉽게 따라가는 데 도움을 준다.

3교시 : 우주 살아가는 나 위한 실전 수행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우주가 허상이라는 것, 즉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비어 있는 나와 우주를 다시 가득 채울 실전 수행이 필요하다. 불교에서 흔히 등장하는 개념인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을 실천하는 순간이다. 시대를 폭넓게 아우르는 명사들이 마음을 돌보는 저마다의 방법이 3장 '유니버스 명상 수업' 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몇 달 전에는 〈고등래퍼2〉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래퍼 김하온이 자신의 취미를 '명상' 이라고 말해서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명상 래퍼' 라는 별명이 붙은 그는 직접 쓴 가사에 "거울 보는 듯한 삶. 관찰하는 셈이지 이 모든 걸"이라는 선(禪)적인 내용을 넣었다. 아울러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으로 배우이기보다 감독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찰자가 되는 것을 꼽기도 했다.

쉬는 시간 : 나는 이미 크고 밝고 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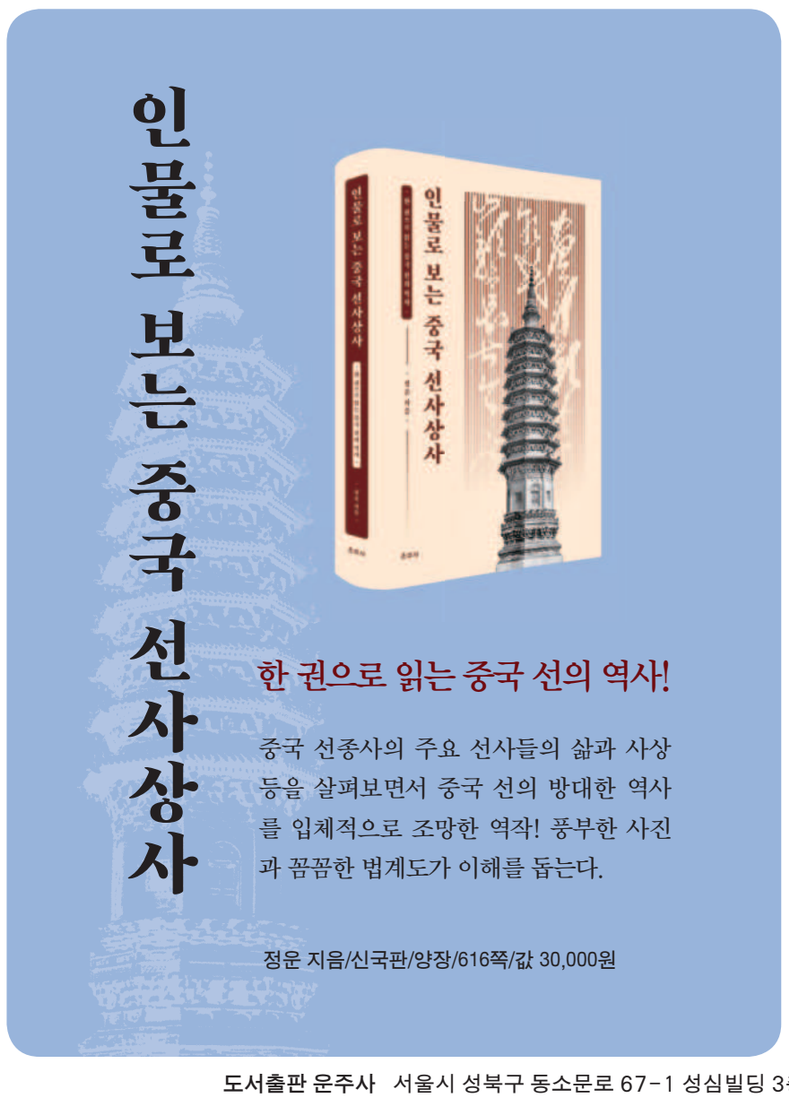
경제적 자산을 불리려는 욕망이 사방에서 범람하고, 통합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보다는 각자도생하며 갈수록 분열되는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자산을 소유한 재벌들도, 권력의 정점에 오른 명사들도 종종 불행의 나락에 굴러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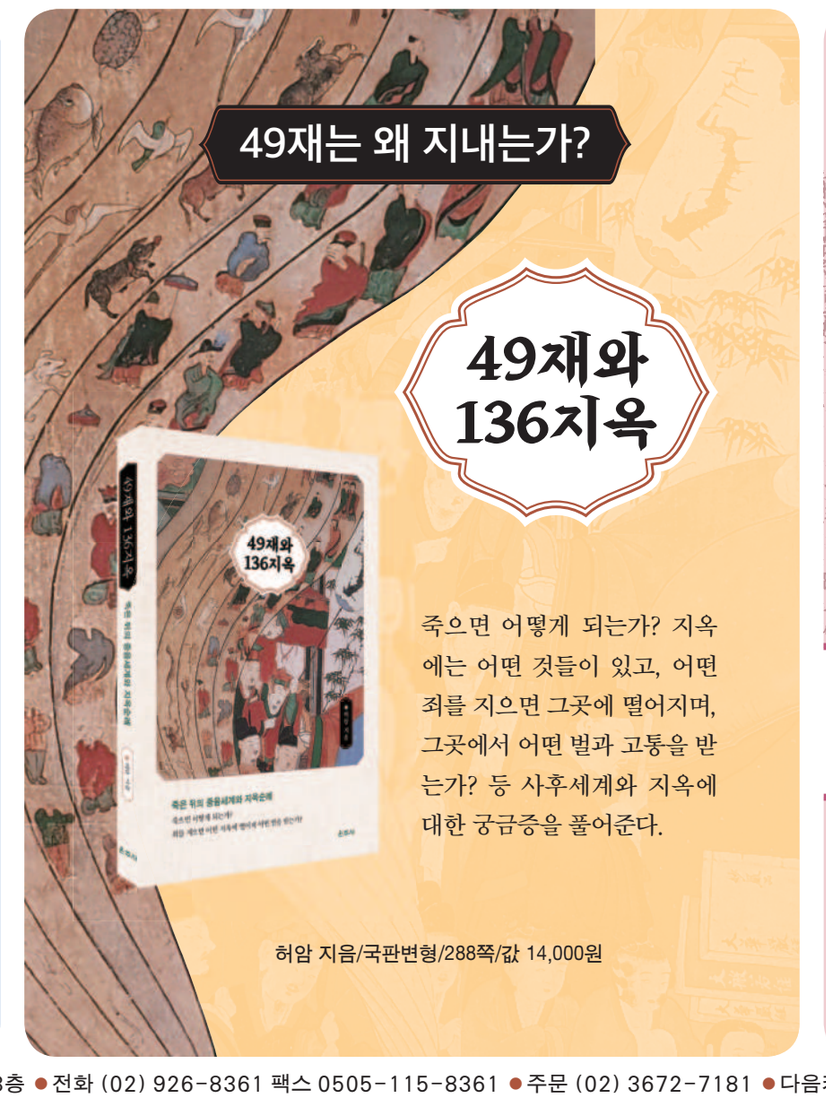
그들도 결국 '나' 를 버리지 못했기에, 아집(我執)을 쉬지 못했기에 그런 비극에 이른 것이다. 비극을 피하기 위해선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부록의 네 가지 실전 수행을 실천하여 단 하나의 문장에 다다르면 된다.

"나는 이미 크고 밝고 충만하다"는 이치가 그것이다.

불교 교리에는 나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 뭇사람들이 선뜻 접하기 어렵다. 이 책은 그 어려운 내용을 집대성하여 깨달음의 길에 간단히 접어들도록 돕는다.

어떤 깨달음인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선물 같은 편안함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깨달음이다. 혹여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월호 스님의 마음 혁명 수업에 온 마음을 기울여보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안심하는 법을 깨우친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화가 3인이 탐구한 이 세상은 '점점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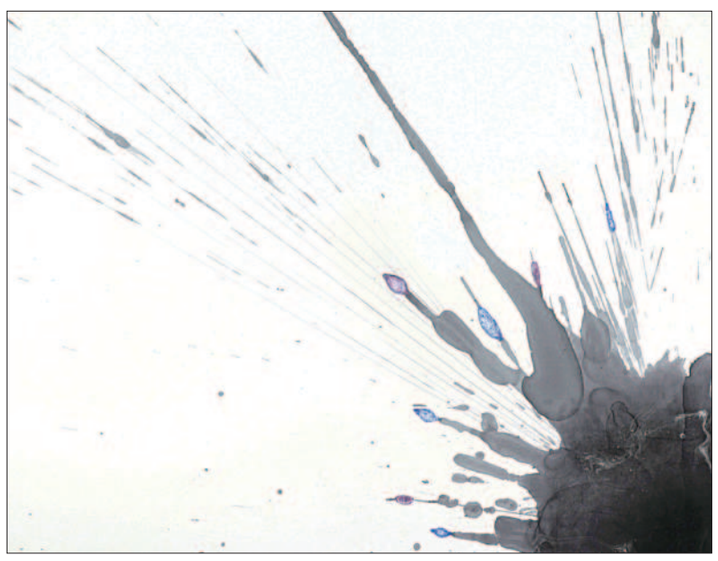
〈點點重重〉

김태종 박경귀 지원진 3인전 '점점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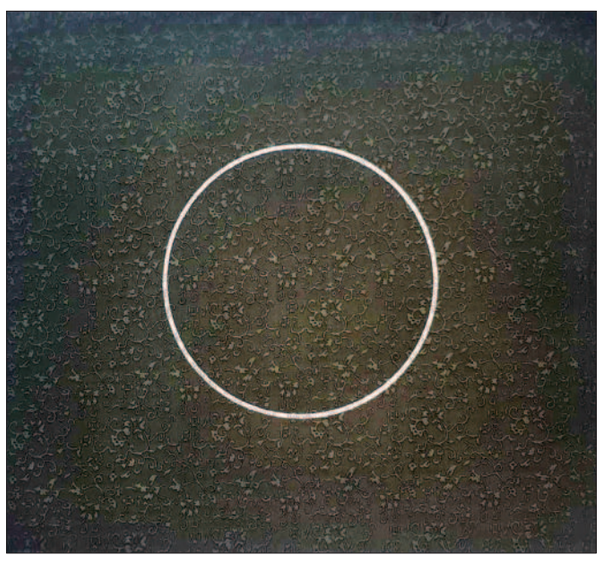
선아트스페이스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우주 · 인간 · 자연의 '관계' 화두로 모여
6개월 토론 후 주제도출 각자 작품으로
양자물리학 불교사상 등 그림에 녹여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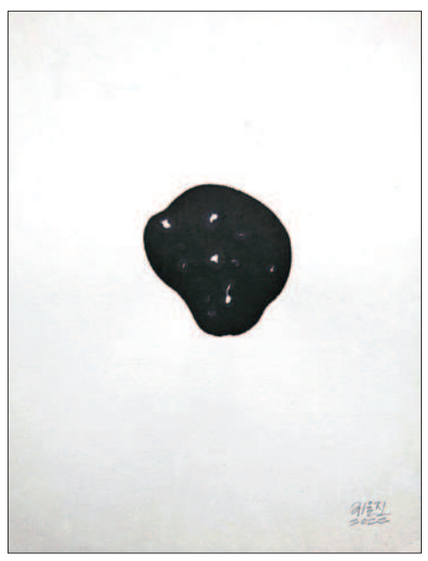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김태종-One for all, All for one_61x49cm 혼합매체 2022



박경귀-세상과 하나되어 ('세상과 나' 연작) 52x45cm 천위에 분채



지원진-침묵의 소리 ('돌멩이' 연작) 48.5x64.5cm 한지에 먹 2022

전공이 다른 중진 작가 3인이 이 세상을 '상호관계성'으로 구현했다. 서울 선아트스페이스는 2월 4일부터 14일까지 기획전 김태종 박경귀 지원진 3인展 '점점중중(點點重重)'을 개최한다.

40여 년 동안 꾸준히 각자의 작품세계를 펼쳐온 3인은 6개월 동안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우주, 자연, 인간, 관계를 화두로 불교의 중중무진(重重無盡) 개념과 양자물리학, 우주의 시원 등을 주제로 토론한 후 '점점중중(點點重重)'이라는 주제를 도출하고 각자의 작품으로 구현했다. 전시의 주제인 '점점중중'은 점, 입자, 관계, 거시세계, 미시세계, 불교사상과 양자물리학의 개념으로 중첩된 세상을 의미한다.

작가 3인이 구현해낸 작품들은 우주, 자연, 인간의 상호관계를 해석한 것으로, 인간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시세계와는 달리, 물질(존재의 근원)의 최소개념의 미시적 입자는 광활하고 무한한 진공의 우주 공간 안에서 중첩된 파동으로 존재하며, 그 파동의 형태가 관찰자의 간섭현상이나 임의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파동은 붕괴되어 입자라는 형태의 존재로 실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간섭현상'이나 '우연'은 불교의 연기(緣起)-인연(因緣)의 개념과 상통하며 대칭을 이룬다. 우주와 자연은 그 자체의 이치로 존재 · 순환하며 스스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지 않지만 '나(自我)'라는 존재는 시공이라는 거시세계 안에서 자아의 존재를 인식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작가 3인은 '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미시세계 양자중첩 상태의 일체성과 불교의 중중무진 일체사상, 즉 중첩된 두 개의 객체가 하나의 속성을 갖는 '불이(不二)'의 의미를 발견했다.

△김태종(회화-영상설치 전공) 작가의 작업은 "물질과 존재의 근원은 '파동'으로서 존재인가 '입자'로서 존재인가"라는 자문으로 시작됐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양자물리학(미시세계)과 우주공간(거시세계) 각각의 존재 원리 모순과 과학적 논리 충돌 현상 안에서 불확실하고 확률로서 존재하는 중첩된 파동(空)과 물질(mass)로서 입자의 실존적 존재의 개념과 의미로 서로 상호 대체 연결되어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음에 주목했고, 회화적 관점으로 점, 선, 면, 시공의 차원개념 안에서 '점'으로부터 기원하는 존재의 사유를 2차원(평면) 작업으로 구현했다.

△박경귀(회화-불교회화 전공) 작가는 어머니와 그 몸속 태아와의 관계를 통해 불성을 추적하고, 티베트인의 '통렌' 수행법에 담긴 세계에 대한 보은의 가치관에 주목하여 작업했다.

통렌 수행은 호흡을 통해 이뤄지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 타인의 고통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나의 행복한 기운을 상대에게 보내는 수행이다. 티베트인은 세상 모든 만물을 자신들의 어머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보은의 대상으로 삼았다.

박 작가는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보은의 가치관을 중생이 갖는 불안과 공포를 해결할 방편이라고 보았다. 작품 '세상과 나'는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모자(母子) 관계로 은유한 작품으로 세상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십우도와 같이 5폭으로 나누어 그린 연작 형식의 작품이다.

△지원진(회화-동양화 전공) 작가는 작품을 보는 관객에게 일정 수준의 자세를 요구한다. 즉, 작품의 최소한의 조형언어와 관객의 만남 관계를 우주 · 자연 · 관계의 상관관계 작용과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재해석했다.

우선 지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진 그림이길 원한다. 그만큼 간절히 자신을 지워야만 시작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과 관계, 우주를 이야기한다면 결국 자신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지우려는 작업은 결국 '모순'이 발생하겠지만 자신의 존재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최소한의 이야기를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종이와 먹 그리고 붓, 간소한 재료를 응시하고 있다. 관객이 이 점의 형태를 관찰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관객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관객이 '관객'이 아니라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갤러리 '선아트스페이스'는 "이번 전시는 양자물리학, 불교사상 불이-연기론, 실존적 자아 개념 등을 모티브로 전공이 다른 작가들이 '상호관계성'을 주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재해석-재현해낸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02)733-0730.

통도사 매화불이 전하는 희망의 봄

김양수 개인전 '아 매화불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2월 1~24일
통도사 홍매화 등 30여점 전시



김양수 57022-24(195x396cm)

"봄이 저만큼 찬찬히 오겠다. / 영축산 품 안 봄기운 곧 닿겠다. / 통도사 뜨락엔 홍매화 피겠다. / 일휴의 매화도 덩달아 피겠다. / 인연 있는 이들은 부처를 보겠다."

한국화가 일휴 김양수가 2월 1일부터 24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기획실에서 개인전 '아 매화불(梅花佛)이다'를 개최한다.

자연의 풍경들을 선적인 화폭으로 옮겨온 김 화백이 이번에는 통도사 홍매화를 화폭에 옮겨 통도사에서 전시를 연다. 늘 한 발 앞서 봄소식을 전하는 통도사 홍매화를 올해는 더 빨리 만난다.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통도사 홍매화를 비롯해 고향 진도에 귀향하여 그린 400호 대작부터 10호 소품에 이르는 매화 그림 30여 점을 함께 선보인다.

김 화백의 이번 작품들은 매화의 상징적인 감성이나 형태의 심미를 초월해 깊은 울림을 추구한 그림으로, 그동안 김 화백이 보여 왔던 미학 위에 더해진 또 한 겹의 미학을 보여준다. 김 화백은 2008년 첫 시집 〈내 속 뜰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를 비롯해 2001년 〈고요를 본다〉, 2015년 〈함께 걸어요 그 꽃길〉 2017년 〈새벽별에게 꽃을 전하는 마음〉 등의 시화집을 낸 시인이다. 김 화백의 작품은 단순하게 보는 시각적 표현의 그림이 아닌, 소리가 들려오고 향기가 느껴지며 자연의 숨결이 만져지는 겹겹의 승화된 의식이 담겨있다.

황청원 시인은 '전시회에 보내는 마음 글'에서 "뭇 인연들의 마음 귀의처인 통도사에서 매화그림전 연다는 일휴를 생각한다. 일휴는 화인인가 선인인가. 내가 본 일휴는 화인이며 선인이다. 일휴의 일상에 그림과 선이 공존한다. 그런 까닭에서일까. 일휴의 그림 속엔 선리(禪理)가 있다. 그 선리는 붓을 잡은 손에도 보인다. 붓이 지나간 자리에도 보인다. 종이에 남겨진 먹빛에도 보인다"고 적고 있다.

김 화백은 신성한 자연과 생명에 녹아내린 정신성을 한 줄의 맑은 시처럼 화폭에 그려내는 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김 화백의 작품은 자연의 신성한 숨결을 시가 지닌 은유로 표현한다. 이는 감성의 교감을 통한 사유의 소통을 추구하려는 김 화백의 의식에서 완성된 미학이다. 절제된 수묵과 문장으로 선서화의 세계를 추구해온 김 화백의 붓을 또 한 번 볼 수 있다.

김양수 화백은 작가는 전남 진도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미술학부와 성신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중앙미술학교에서 벽화를 전공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며 많은 해외 초대 전시로 분주하게 작업해오던 작가는 지난 2018년 고향 진도에 화실 적염산방(寂拈山房)을 지어 귀향했다. 한국에서 35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초대전을 열었다. 신문과 잡지 등에 글과 그림을 다수 연재했다. 동국대 예술대학과 성신여대 겸임 교수를 지냈다. (055)384-0010

박재완 기자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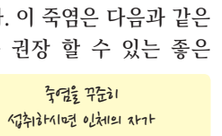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교계, 이제부터 문화재 기금 조성을”

간송 국보 경매 논란, 문화재계 원로에 듣다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 · 문화유산신탁 이사장



국보 등 지정문화재 상속세 면제
稅납부 위한 매매 막고자 만들어
간송 전형필 업적 무시 안 될 일

경매 문화재 다수가 불교문화재
중요 문화재 구입 위한 기금 필요
신도 운동 가능… 佛心 증장 도움

문화유산 수집 콜렉터 역할 중요
소장 문화재 양성화해 지정시켜야
문화재 기증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새해 벽두 문화재계의 이슈는 단연 간송미술관의 국보 불교문화재 경매 출품이다. 간송미술문화재단(간송미술관)은 1월 14일 국보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금동삼존불감’을 경매업체 케이옥션의 경매에 올렸다. 하지만 1월 27일 이뤄진 케이옥션의 경매에서 두 국보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고가로 경매에 내놓은 것이 타당한가’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1월 26일 만난 문화재계 원로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문화유산신탁 이사장 ·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은 이 같은 논란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간송 전형필(1906~1962) 선생께서는 일제강점기 국외로 유출되거나 사람들이 몰라 불쏘시개로 사라질 뻔한 귀중한 문화재를 혜안을 갖고 수집 · 보존한 위인입니다. 그 자손들도 문화 · 교육사업 이외에는 뚜렷한 영리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재원이 많지 않으니 3세대에서는 재정난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3대에 걸쳐 간송의 가문 사람들은 우리 문화재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김 관장은 “상속세법에 관련한 일반의 오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보 · 보물 문화재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문화재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김 관장의 주장이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상속세를 비과세로 두는 것은 세금 때문에 문화재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선친이 물려준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후손들이 잘 보존 · 관리하라는 취지도 담긴 것이죠. 이를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간송가를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혹독한 비난입니다.”

그러면서 김 관장은 “간송 전형필 선생 같은 눈 밝은 문화유산 수집가(콜렉터)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화재를 보는 안목은 학교 교육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좋은 스승 밑에서 꾸준히 문화재를 접하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사기 몇 번 당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탐사보도 전문가이자 국립인문재단 펠로 연구원인 니콜라스 A. 바스베인스(Nicholas A. Basbanes)는 역사 속 책 수집가들을 추적해 책으로 냈는데 책 제목이 〈젠틀 매드니스(Gentle Madness)〉였습니다. 책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점잖은 광기’인데 수집가들의 일면을 보여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집가는 일정부분 미쳐야, 무서울 정도의 ‘점잖은 광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위창 오세창 선생에게 배우면서 안목을 키웠고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거나 무지해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죠. 우리 사회는 제2, 제3의 전형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송 국보 경매 출품에 대한 일련의 문제를 접하며 자칫 ‘선한’ 문화유산 수집가들의 원력에 흠집이 가는 것을 김 관장은 경계했다. 도리어 수집가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유산이 양성화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도와야 한다고도 했다.

“좋은 문화재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송이 내놓은 국보가 설사 개인 수집가에게 돌아가도 국보로 지정된 만큼 문화재청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존 · 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죠. 문화유산 수집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이를 양성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문화재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신실한 불자인 그는 불교계를 향한 제언도 내놓았다. 바로 ‘불교문화유산 기금’ 제정이다. 중요한 불교 문화유산이 시장에 나올 경우 구입할 수 있도록 종단적 · 범불교적 기금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기금 조성운동은 불자들의 불심 증장과 신심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2020년 간송미술관은 보물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을 케이옥션에 출품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서울옥션에서 보물 ‘청량산괘불탱’이 출품돼 35억 2000만 원에 낙찰됐으며, 같은 해 서울옥션에서 보물 ‘의겸 등필수월관음도’가 18억 원에 낙찰됐다. 보물 ‘청량산괘불탱’의 경우 보물만이 아니라 기존 문화재 경매 거래 최고가 기록이기도 하지만, 낙찰 전 소유주가 문화재은닉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권 모씨여서 뒷말이 무성했다.

이외에도 보물 〈묘법연화경〉 권4-7’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3’ · 〈월인석보〉 권9 · 10’ 등이 서울옥션에서 출품 · 낙찰됐다. 적지 않은 보물급 불교문화재들이 알게 모르게 꾸준히 거래돼 왔다는 것이다.

“간송의 국보 출품은 이례적 사례이긴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죠. 실제 해외 경매시장에서 경매에 나오는 문화재 중 한국의 불교문화재가 출품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를 불교계로 환수할 수 있는 기금을 종단적 · 범불교적으로 조성하는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신도회가 중심이 돼 기금을 조성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죠. 이런 자발적 기금 모금 운동은 불자들의 결집과 불심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김 관장은 기업들이 문화재를 구입하고 이를 공공기관 · 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문화의 확산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일본 국립 도쿄 근대미술관의 미술품들 대부분이 일본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구입해서 기증한 것입니다. 해외에는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젠 이 같은 문화가 확산돼야 합니다.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 불교문화재를 구입해 불교 성보박물관에 기증하는 좋은 불자기업인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여수 흥국사 담겨있는 조선 불교미술 총망라

국립광주博 ‘여수 흥국사’ 보고서 발간

여수 흥국사가 소장한 조선불교미술 문화재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광주 · 전라남도 불교문화재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여수 흥국사 소장 불교문화재를 조사한 보고서 〈여수 흥국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시 영취산 아래 위치한 흥국사는 고려 후기 고승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 초창(初創)한 후 여러 차례의 중건을 거쳐 조선 후기에 흥성한 사찰로,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많은 문화재들을 소장한 곳이다.

이들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난 1971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요 불교회화를 중심으로 처음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립광주박물관은 첫 조사가 이루어진 지 50년 만인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흥국사의 주요 건축을 비롯한 불교회화, 불교조각, 공예, 석조미술, 서지와 전적, 목판류를 포함한 총 150건 812점의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심층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내 · 외부 전공자들로 구성된 8명의 조사위원과 4명의 자문위원이 8개월간 현지 조사 및 분석작업을 담당했다.

보고서는 1장에서 조사사업의 개요를 소개하고, 보고서 수록 문화재를 중심으로 흥국사의 연혁과 중건을 다루었다. 2장에서는 조사 대상 문화재 중에서 역사 · 미술사적 가치를 지닌 81건 568점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비문 · 상량문 · 발원문의 번역을 추가해 흥국사 소장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조사성과는 올해 5월 개최 예정인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남도문화전Ⅶ-여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역 소재 불교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보존과 홍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번 조사보고서 발간이 흥국사의 오랜 역사와 뛰어난 불교미술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국립광주박물관 학술총서 제74책 〈여수 흥국사〉 보고서는 전국 주요 국공립 도서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원서교부 | 2022년 1월 부터
개 강 | 2022년 3월 2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 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 대령 · 관욕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22년 3월 8일 오후 3시

고등강원내

승가교육(전문강의)의 일환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개강일시 | 2022년 3월 10일 (목)
장 소 | 제천 금강사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강의 “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① 화엄경 : 활안큰스님
② 대승불교사상 : 서무선 법사님
③ 절 요 : 혜림스님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2

▶ 53회 예고
수상 칼라따까와 제관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이 수시마 왕자를 편애하자, 모사를 꾸민다. 아쇼까 왕자에게 특별휴가를 주어 빠딸리뿌뜨라로 오게 한 뒤, 지병에 시달리는 빈두사라왕의 뒤를 잇게 하기 위한 계책을 세운다.



데비 부인, 딸 상가밋따를 잉태

비구름이 하늘을 순식간에 덮었다. 숫빠라까는 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했다. 경비대장은 살갗을 스치는 축축한 바람을 느끼면서 아쇼까가 머무는 방으로 올라갔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에 시달리곤 했으므로 습한 바람이 반가웠다. 그러나 경비대장은 숫빠라까를 곧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눅눅한 바람은 우기가 사막을 성큼성큼 건너오고 있다는 징후였다. 아쇼까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경비대장을 맞았다.

"짐들을 챙기시오."

"예, 일행에게 지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우기가 빨리 오는 것 같소."

아쇼까의 지시를 받은 경비대장은 곧 방을 나갔다. 이번에는 데바가 아쇼까 방에 들어왔다.

"경비대장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소."

"방금 대장에게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상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제야 아쇼까가 의자에 앉았다. 데바도 탁자 너머 맞은편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우리 정찰조 군사를 보호해 주었으니 우리도 그에게 뭔가를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숫빠라까의 교역권을 선물하지 않았소?"

"교역권은 공식화시킨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그가 이곳의 교역권을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줄 것이 또 있다는 말이오?"

"이곳 상인수장은 뿐다라마를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사문이 없는 라마는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문을 어디서 초빙해 해결해 준다는 말이오?"

"비베깐난다 사문을 이곳에 두고 가면 해결될 일입니다."

"사문이 거칠고 난폭한 이곳에 남으려고 하겠소?"

"옛 앙가국 짬빠에서 올 때부터 사문은 뿐나 존자가 살았던 숫빠라까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뜻을 전하면 아주 행복해 할 것입니다."

데바의 말은 사실이었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데바에게 몇 번이나 숫빠라까에서 뿐나 존자가 이루지 못한 전법의 꿈을 펼쳐보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쇼까는 즉시 데바의 뜻에 동의했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수장님이 결정하시면 됐지 내가 간여할 일은 아닌 것 같소."

"아닙니다. 부왕님께서 이곳 상인수장에게 말씀하셔야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아쇼까는 자신의 체통을 세워주려는 데바의 마음을 간파했다. 아쇼까는 경비대장을 시켜 비베깐난다 사문과 숫빠라까 상인수장을 불렀다. 모두가 낮인데도 캄캄한 날씨 때문에 외출하지 않고 방에 있었으므로 금방 아쇼까 방으로 올라왔다. 아쇼까가 비베깐난다 사문에게 먼저 말했다.

"사문이시여, 여기 숫빠라까에 남으시겠소?"

"소승은 데바 수장님이 허락해야 합니다. 저는 산치 절을 함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데바 수장께서 벌써 허락했소."

아쇼까가 데바를 쳐다보자, 데바가 말했다.

"사문께서는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 데바 수장님께서 소승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아닙니다. 꿈을 이뤄주신 분은 숫빠라까 상인수장님입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님께서 뿐나라마를 복원하신다고 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놀랐다. 갑자기 뿐나라마에 상주할 사문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놀란 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아쇼까가 데바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 사람들이 흉악하고 거칠다고 하니 비베깐난다 사문께서 뿐나라마에 머물면서 교화하기를 바라오."

"부왕이시여. 소승은 뿐나 존자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전법의 꿈을 이어받겠습니다. 뿐나 존자께서 요절하지 않고 오래오래 사셨다면 이곳 사람들은 어느 지역보다 유순하고 자애로웠을 것입니다."

아쇼까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하인들이 은쟁반에 포도주와 코코아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다. 어느 새 창밖은 검은 장막을 걷어버린 것처럼 밝았다. 창을 투과한 햇살이 유리항아리에 비쳤다. 유리항아리 속의 포도주가 붉은 안료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경비대장이 아쇼까에게 다가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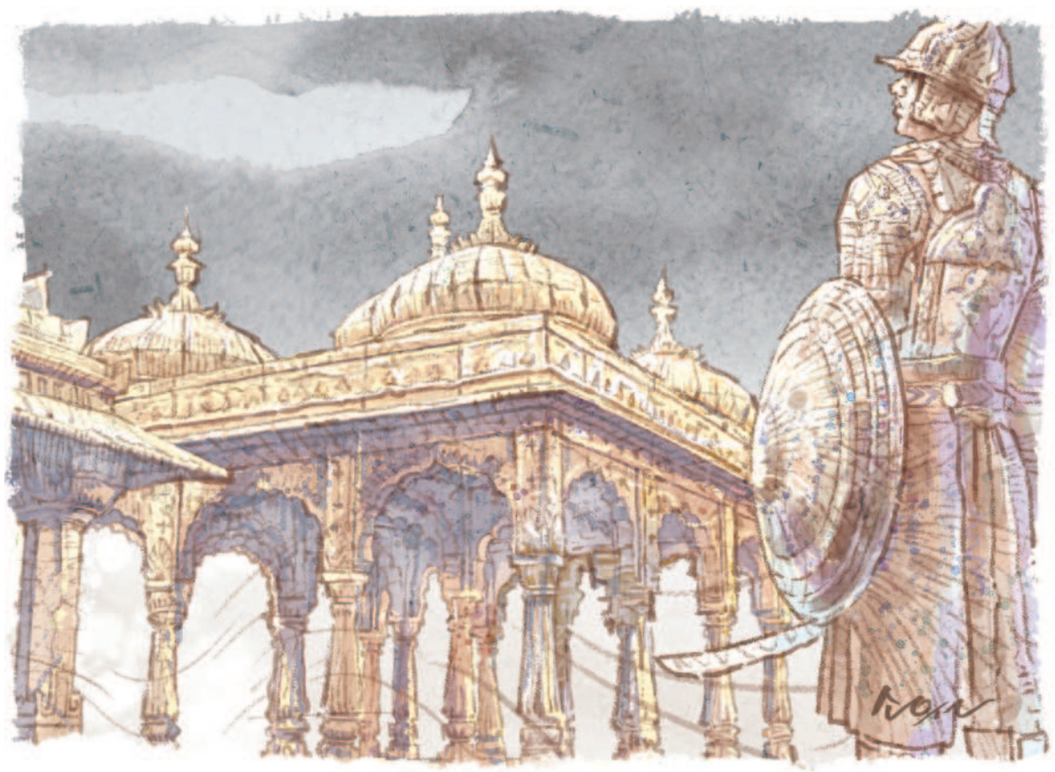
"날씨가 좋아졌으니 숫빠라까 왕궁으로 가시겠습니까? 순행단 일행을 위해 환송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아쇼까는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저택에만 머물다가 가는 것보다는 초라한 왕궁이지만 왕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나빤따라국은 이미 마가다국 시절에 복속된 나라지만 그 명맥은 마우리아왕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빈두사라 대왕은 사라진 옛 왕국들의 혈통을 인정해줌으로써 이름만 왕인 그들을 앞세워 통치하는 데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퇴락한 왕궁은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저택에서 가까운 고지대에 있었다. 상인수장의 저택에 비해 왕궁은 처량한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했다. 그래도 벽돌 건물로 된 연회장은 규모가 작을 뿐 기품이 느껴졌다.

아쇼까 일행은 일부만 연회에 참석했다. 작은 무대에는 사바르마티강 강변에서 보았던 늙은 악사들이 현악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무표정했고 무기력했다.



연회장 밖에서는 하인들이 군사처럼 칼을 차고 경비를 섰다. 왕에게 군사를 운용할 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경비대장을 불러 나지막하게 말했다.

"쯧쯧. 군사가 없으니까 해적들이 발호하는 것이오."

"부왕님, 이곳에 군사를 파견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곳 질서를 무력으로 잡는 것은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오. 그런 방식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경비조장이 이곳에 남아 하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어 해적들을 막는 것이 좋겠소."

"경비조장에게 지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술이 몇 순배 돌자 연회가 무르익었다. 아쇼까가 옆자리에 앉은 왕에게 말했다.

"하인들은 얼마나 되오?"

"집으로 돌아간 하인까지 합친다면 1백 명이 넘습니다."

"하인들을 왜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오?"

"이곳 상인수장이 경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제가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아쇼까는 숫빠라까 상인수장에게 물었다.

"왕궁 하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면 어떻겠소? 해적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오."

"이곳에는 군사훈련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유감입니다."

"검술에 달통한 나의 경비조장을 남기고 가겠소. 운용비를 지원하겠소?"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합장한 두 손을 이마까지 올리며 아쇼까에게 맹세했다.

"부왕님이시여,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숫빠라까를 지키는 군사가 생긴다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수나빠란따국 왕이 몹시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해적들에게 당한 수모와 피해가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던 것이다. 아쇼까가 왕을 위로했다.

"숫빠라까가 평화로워야 마우리아왕국의 영광도 더하는 법이오. 내가 여기에 순행을 온 이유이기도 하오."

환송연이 끝나갈 무렵, 아쇼까가 웃자인에서 데리고 온 경비조장을 불러 세웠다. 그런 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명했다.

"나는 나의 경비조장을 숫빠라까 군사를 훈련시키는 대장에 임명하겠소! 왕과 상인수장은 대장을 믿고 협조하기 바라오."

"부왕님 만세!"

연회장에 박수가 터졌다. 마치 사라진 수나빠란따국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숫빠라까의 왕과 상인수장, 주민 유지들이 환호했다. 젊은 경비조장도 만면에 웃음을 띠었다. 웃자인 왕궁에서 경비조장을 하기보다는 숫빠라까에서 훈련대장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경비조장은 아쇼까를 따라온 군사 중에서 누구보다도 야심만만했던 것이다.

이틀 뒤.

아쇼까 일행은 숫빠라까를 떠났다. 예전의 수나빠란따국 순행은 예상보다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웃자인에 도착할 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었다. 행군 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몰랐다. 다행이 우기는 시작되지 않았고 아쇼까 일행 가운데 낙오한 군사는 아무도 없었다. 아쇼까 일행이 웃자인에 도착하자 성문을 열고 호위대장이 달려나와 맞았다. 그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소리쳤다.

"부왕님이시여, 그동안 성 안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쇼까를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사들과 성민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아쇼까는 은근히 데비가 나와 맞아주기를 원해다. 그러나 데비와 아들 마힌다는 아쇼까 일행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쇼까가 옆에 있는 호위대장에게 물었다.

"부왕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아닙니다. 왕궁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 것이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쇼까가 호위대장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환영하지 않는 것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오?"

"부왕님, 부왕비님께서는 아기를 잉태하고 계십니다. 데바 부인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군!"

아쇼까는 금세 표정을 바꾸었다. 데비는 시중드는 시녀들과 함께 접견실에 나와 있었다. 마힌다가 접견실 탁자를 붙잡고 아장아장 걸어 다녔다. 아쇼까는 데비와 마힌다를 보는 순간 순행 길의 피로가 일시에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쇼까가 마힌다를 덮썩 안으며 데비에게 다가갔다. 아쇼까가 눈치를 주자 시녀들이 접견실을 나갔다.

아쇼까가 데비의 배를 만졌다. 볼록한 배가 꿈틀거렸다. 마힌다가 아쇼까의 거칠거칠한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데비, 뱃속의 아기야말로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오."

"어제 제관님이 말씀했어요. 딸일 거라고요. 딸이라면 우리가 지어놓은 이름이 있지요."

"당신이 원한 대로 상가밋따로 하시오."

상가밋따는 아쇼까가 지었지만 데비가 결정한 이름이었다. 아들 마힌다 이름을 지을 때는 몇날 며칠을 고민했지만 상가밋따는 단 한 번에 합의했던 것이다. 사문을 믿고 의지하는 데비로서는 그보다 정겹고 아름다운 이름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❸ 주사행(朱士行)

▶ 한줄 요약
중국인 최초로 대계를 받은 주사행의 노력으로 반야부 경전이 유행하게 되고 이후로 많은 이들에 의해 반야부 경전들이 지속적으로 번역되었다.



중국인 최초 대계 받고 반야부 경전 유행시켜

중국불교의 본격적인 출발은 경전에 대한 번역에서 시작됐다. 불교가 지닌 사상을 중국에 전달하려면 무엇보다 불경(佛經)에 대한 번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불교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동한(東漢) 말 서역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당시 수도인 낙양(洛陽)에 들어와 대승과 소승의 불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역경사업에 수많은 서역 출신 거사들과 중국인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식국(安息國) 출신 안현(安玄)이다.

초기 역경 상황을 알려주는 승우(僧祐)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 따르면, 거사는 영제(靈帝, 159~189)시기에 무역을 위해 낙양에 도착했지만, 우연히 불교를 접하고 그 가르침에 매료돼 경전을 읽는 재미에 푹 빠졌고, 수계(受戒)까지 받았다. 그 후에 안현은 장사도 포기하고 서역 스님들과 불법을 논하기를 즐겼으며, 적극적으로 역경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혜교(慧皎)의 〈고승전〉에 실린 그의 전기에서는 "안현은 사문(沙門) 엄불조(嚴佛調)와 함께 〈법경경(法鏡經)〉을 번역했다. 안현은 입으로 범문(梵文)을 번역하고, 엄불조가 붓으로 받아썼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부터 보자면, 기록상으로 엄불조가 중국인으로서 최초의 출가 승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수계법이 중국에 전래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엄불조는 정식으로 수계를 받지 않은 스스로 출가한 '사도(私度)'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에 엄불조 이외에 많은 중국인들이 스스로 삭발을 하고 출가한 기록들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고승전〉 권1에 실린 담가가라(曇柯迦羅)의 전기에는 "당시 위(魏)에는 비록 불법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도풍(道風)이 그릇되게 바뀌어졌으며, 여러 승려들이 아직 귀계(歸戒)를 받지 않았다. 다만 머리를 깎은 것이 세속과 다를 뿐이었다. 설령 재참(齋懺)을 하더라도 그 행하는 법은 (유교의 의식인) 사사(祠祀)를 본받았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조위(曹魏) 시기에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출가를 하였지만, 그들은 엄불조와 마찬가지로 '사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불조통기(佛祖統紀)〉 권15에서는 "중평(中平) 5년(188), 청신사(淸信士) 엄불조가 〈유마경(維摩經)〉 등을 번역하였다."고 기록하는데, 이로부터 엄불조를 출가승려가 아니라 '청신사'인 거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한의 불교를 통한 새로운 통치이념의 건립은 황건적의 반란으로 결국 실패하고, 위(魏)·촉(蜀)·오(吳)의 삼국으로 분열되었다. 이렇게 삼국으로 분열한 이후 삼국에서는 새로운 통치이념을 위하여 모두 불교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특히 손오(孫吳)에서는 건강(建康, 지금의 南京)에서 강승회(康僧會), 지겸(支謙), 축율염(竺律炎) 등을 초빙하여 본격적인 역경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손오의 역경은 상당히 정교하여 후대에 '오역(吳譯)'으로 칭해진다. 그러나 관중(關中)과 중원(中原)을 차지한 조위는 손오와 같이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이다. 양한(兩漢)의 핵심세력들은 모두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에 운집하고 있었고, 그들의 사상적 배경은 무제의 '독존유술(獨尊儒術)'을 채택한 이래로 모두 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이르러 '반야'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가 유행했다. 사진은 〈대반야경〉 일부.

조위의 기반을 다진 조조(曹操)를 비롯하여 조씨 일가들이 모두 불교를 숭상하였다는 기록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칭제건원을 한 조조의 아들인 문제(文帝) 조비(曹丕)의 동생인 진사왕(陳思王) 조식(曹植)이 매일 불경을 독송하였으며, 〈변도론(辨道論)〉(〈광홍명집(廣弘明集)〉 권5를 찬술하기도 한다. 조조의 정책 가운데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건안(建安) 15년(210)으로부터 일곱 차례나 실시한 '구현령(求賢令)'이다. '구현령'은 출신 신분 등에 상관없이 재능만 있다면 관직을 준다는 것으로, 당시 관직이 모두 세습되었던 관례에 비춘다면 상당이 파격적이다. 이러한 배후에는 바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사성평등(四姓平等)'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더욱이 조조의 사후 칭제건원을 한 조비는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를 실시하는데, 여기에서도 신분보다는 '재능'을 중시하여 관직을 주었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로부터 이른바 '재성지변(才性之辯)'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논의가 바로 '청담(淸淡)'이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국가를 위하여 기존의 권문세족들을 모두 고체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지만, 이로부터 점차 새로운 통치이념을 세우고자 하는 전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 **출가 후 오로지 경전연구에 매진해**
> **지루가참의 〈도행반야경〉 연구강의**
> **우전국서 범서 정본 90章을 구해와**

실제로 이러한 '청담'으로부터 조조의 양아들인 하안(何晏)과 왕필(王弼)이 '현학(玄學)'을 제창하는데, 현학의 목적은 바로 새롭게 출현한 왕조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한편,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현학은 바로 유가(儒家)의 강상명교(綱常名敎)와 도가(道家)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결합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유(有)'의 세계를 추구하는 유가와 '무(無)'를 추구하는 도가의 사상을 결합시키는 것은 중국의 전통사상으로는 명확한 한계를 보였는데, 이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상이 바로 반야(般若)의 논리라고 하겠다. 이를 모두 논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하안과 왕필 등의 현학가들은 지루가참과 지겸이 번역한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과 〈대명도무극경(大明度無極經)〉을 토대로 유가와 도가의 사상을 새롭게 융섭시키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겠으며,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현학'이 제시되자 당시 중국불교의 흐름은 점차 바뀌게 된다. 동한의 초전불교에서는 안세고(安世高) 계통의 '선수학(禪數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반야'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가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조위에서는 현학의 흥기와 더불어 불교가 점차 유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중국인으로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은 승려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위시기에 계율이 번역되는 과정을 〈불조통기〉 권35은 "가평(嘉平) 2년(250), 중천축(中天竺)의 삼장 담마가라(曇摩迦羅)는 낙양에 이르러 승기계(僧祇戒)를 번역하고, 대승(大僧)의 갈마수계(羯磨受戒)를 세웠다. 〈중략〉 정원(正元) 원년(254) 한(漢)·위(魏) 이래로 이중(二衆, 比丘·比丘尼)은 오직 삼귀계(三歸戒)를 받을 뿐, 대승(大僧)과 사미(沙彌)의 구별이 없었다. 담마가라는 이에 수계법을 행할 것을 상서(上書)하였고, 안식국(安息國) 사문 담제(曇諦)와 함께 낙양에서 담무덕부(曇無德部)의 〈사분계본(四分戒本)〉과 〈십인수계갈마법(十人受戒羯磨法)〉을 역출(譯出)하였다. 사문인 주사행(朱士行)이 처음으로 계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부터 중국에서 최초로 정식으로 대계(大戒)를 받은 이는 바로 주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학계에서는 아직도 최초의 중국인 승려가 엄불조인가 주사행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승려는 엄불조이지만, 그는 '사도'의 성격이고, 정식으로 대계를 받은 것으로는 명확하게 주사행이 최초라고 하겠다.

주사행의 전기는 〈고승전〉, 〈출삼장기집〉, 〈신승전(神僧傳)〉 등 다양한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영천(潁川, 현 河南省 禹州市) 사람으로, 출가한 후로는 오로지 경전의 연구에 힘썼다고 한다. 그는 특히 지루가참이 번역한 〈도행반야경〉을 연구하고, 낙양에서 강의하였는데, 문장의 뜻이 잘 드러나지 않고 투박하여, 대체로 미진함을 깨닫고는 항상 탄식하기를, "이 경은 대승의 요체인데, 번역의 이치를 다하지 못하였다. 맹세코 뜻을 세워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멀리 가서 대본(大本)을 구하여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감로(甘露) 5년(257)에 옹주(雍州)를 출발하여 서쪽 고비 사막을 지나 우전국(于闐國)에 이르러 범서(梵書)로 된 정본(正本) 90장(章)을 얻었다고 한다. 이때 그가 얻은 반야경은 바로 〈방광반야경(放光般若經)〉이며, 주사행의 제자인 불여단(不如檀, '法饒'라는 의미)을 시켜 낙양으로 보냈지만, 그는 계속 서역에서 유행하다가 80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고 한다. 〈고승전〉에는 우전국의 소승을 배우는 승려들이 국왕에게 청하여 경전을 반출하지 못하게 막자, 주사행이 궁전 앞에 장작을 쌓아 불태우며, "만약 불법이 중국 땅에 유통할 것이라면, 불경은 곧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호명(護命)이 없다면, 어찌하겠는가?"라고 말하고, 경전을 불속에 던지자 불은 곧 꺼지고, 경전은 한 글자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경전을 진류(陳留) 창원(倉垣)의 수남사(水南寺)로 보낼 수 있었다. 주사행이 보낸 경전은 태강(太康) 3년(282)에 낙양에 무사히 전달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원강(元康) 원년(291)에 수남사에서 무라차(無羅叉)와 축숙란(竺叔蘭)에 의하여 번역되었다.

이러한 주사행의 노력으로 이후 반야부 경전이 상당히 유행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이후에 백법조(帛法祚), 지효룡(支孝龍), 축법온(竺法溫), 강승연(康僧淵), 축법태(竺法汰), 우법개(于法開) 등 수많은 이들이 반야경을 강의하였고, 또한 반야부에 속한 경전들이 지속적으로 번역되었다. 한편 주사행에게 〈주사행한록(朱士行漢錄)〉의 저술이 있어 비장방(費長房)의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 등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주사행의 명칭을 가탁하여 만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인으로서 최초로 대계를 받은 주사행의 행적은 상당히 감동적이다. 그의 구법 열정은 이후의 구법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인이 서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서역에 대한 정보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진(魏晋)시기에는 반야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불교가 주류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반야경을 원용한 현학이 시대사조(時代思潮)가 된 것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주사행의 구법을 통해 반야부 경전이 중국에 전래된 것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靈鷲山雲門寺

雲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 복지 제도와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22년 봄 수계예정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_ 1.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은사스님 추천서
3.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3×4)
모집기간 _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재학 중 입학금면제·병원비지원·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졸업여행비지원
3)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율주 일진·학장 진광·주지 운산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대학원 2022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입학원서(본 율원·대학원 소정양식)
2.수행이력서
3.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4) 해외 연수비지원 5)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율주 일진·주지 운산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정기실사 결과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❸ 붓다의 생애와 변상도 ①

▶ 한줄 요약
불교미술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붓다의 생애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담은 본생도로도 조성되는데 이는 중국 돈황 석굴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내 몸 희생해 뭍 생명 구하다

불교미술을 이해하고 감상하기에는 먼저 붓다의 생애에 관련된 작품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이다. 이미 앞에서 인도 초기 불사리탑 기단에 붓다의 사적(事蹟)이 조각되어 있음을 말했으며, 중국 돈황석굴에도 붓다의 생애를 표현한 회화작품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초기 벽화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승교(小乘敎)의 〈현우경〉과 〈불설수행본기경〉 등에 근거하여 그린 본생고사(本生故事)와 인연고사(因緣故事), 그리고 불전고사(佛傳故事)이다.

본생고사는 붓다 전생의 갖가지 선행에 대한 이야기로, 녹왕본생(鹿王本生)·시비본생(尸毗本生)·살타본생(薩埵本生)·월광왕본생(月光王本生)·비릉갈리왕본생(毗楞竭梨王本生)·섬자본생(睒子本生)·수달라본생(須達拏本生)·선사태자본생(善事太子本生) 등의 벽화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인도의 민간에서 전해지다가 불교가 흥기한 이후에 불경으로 편입된 것으로서, 불교의 낙인(烙印)이 찍혀있다. 그리고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들어온 것이다.

본생담(本生譚, Jataka)이란 부처님께서 전생에 쌓으신 수행 이야기로서 오늘날 전해지는 내용은 547편에 이른다. 본생도(本生圖)란 쉽게 말해 붓다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다. 돈황의 벽화 중에는 이런 본생도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경전에서 붓다는 전생에 국왕, 승려, 혹은 상인 혹은 여자 혹은 동물로 태어나 선업(善業) 공덕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림① 돈황 제275굴 북벽의 본생도. '시비왕본생(尸毗王本生)'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처님 전생 수행기 '본생고사'
살을 베어 비둘기 구한 시비왕
굶주린 虎에 몸 던진 살타태자
모두 부처님의 전생 선행 일화
돈황 석굴 內 본생도로 전해져



그림② 돈황 제254굴 남벽의 본생도. '살타본생(薩埵本生)'의 내용이다.

시비왕 본생도

그중에서도 시비왕(尸毘王)이 살을 베어 비둘기를 구한 이야기는 붓다가 작은 생명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자비심을 베풀고 있음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옛날에 시비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사람됨이 착하고 불법을 좋아하여 중생의 고난을 널리 구하려 했다고 한다. 제석천(帝釋天)과 비수갈마(毘首摩摩)는 그의 뜻을 시험하려고 독수리와 비둘기로 변신하였다. 독수리는 비둘기를 뒤쫓았고 비둘기는 시비왕에게로 날아가 보호를 요청하였다. 독수리는 시비왕에게 "비둘기는 내 먹이로 비둘기를 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게 된다"고 말했다. 시비왕은 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 독수리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비둘기를 구하고자 했다. 독수리는 베어낸 고기와 비둘기의 무게가 같아야 한다며 저울에 달길 요구했다. 그러나 시비왕은 자신의 살을 다 베어내도 비둘기의 무게보다 모자라 성의를 다하기 위해 저울판에 몸을 실었다.

그의 이런 행동에 천지가 감동하여서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제석천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시비왕에게 왜 이렇게 자신을 희생했느냐고 물었다. 시비왕은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석천은 시비왕에게 몸을 훼손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시비왕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원래대로 네 몸을 회복시켜주리"라는 말이 나오자 곧 시비왕의 몸은 바로 원래대로 회복됐다.

돈황 막고굴에는 붓다의 전생에 대한 희생정신을 표현한 시비왕 본생 설화가 많이 그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북량 제275굴(尸毗王本生, 제275굴 북벽)과 북위 제254굴(薩埵本生, 제254굴, 남벽) 두 점이 가장 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막고굴 제275굴 북벽 중층의 시비왕 설화는 시비왕이 자신의 살을 베어 매에게 먹여 비둘기를 구해내었다는 이야기이며, 이것은 막고굴 최초의 불본생고사화(佛本生故事畵)이다(그림①).

그림 중에 주요 인물은 주인과 세 명의 종이고, 그 밖에 매, 비둘기, 비천, 들이 그려져 있다. 중심 내용이 한 장에 나타나는 단폭식(單幅式) 형식으로 인물은 단순하고 서역 양식이 농후하다. 화면 왼쪽에는 왕의 오른손으로 녹색 비둘기를 잡고 있으며 한 칼잡이가 왕의 허벅다리 살을 베고 있고 있다. 오른쪽에는 한사람이 큰 저울을 들고 있는데, 저울의 한쪽에는 작은 비둘기가 올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왕이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인물들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긴 눈썹, 높은 콧날, 큰 눈, 넓적한 입술 등의 형상은 신강(新疆) 초기 석굴 예술의 인물 모습과 유사하다. 인물들의 표정이 확연히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데, 칼을 휘두르는 자의 흉폭한(The Furious Wild) 표정과 시비왕의 평온하고 대범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막고굴 제254굴 북벽 앞부분의 시비왕 이야기 그림도 단폭식이지만 구도와 인물, 회화의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화면 중앙에 옆으로 비켜앉은 시비왕은 왼쪽 무릎을 드러내어 칼잡이에게 내주고 오른손에는 구원을 요청하러 온 비둘기를 잡고 있다. 기타 이야기 줄거리는 주인공 시비왕 둘레에 배치되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독수리가 비둘기를 쫓고 오른쪽 하단에 한 사람이 비둘기와 시비왕의 무게를 달아보고 있다. 아래쪽에는 시비왕의 여자 권속들이 무릎을 껴안고 흐느껴 울고, 왼쪽 위에는 천인 권속들이 찬탄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인물의 조형 방식과 의복의 묘사 등은 제275굴과 마찬가지로 서역화풍의 영향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인물의 묘사는 이전보다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북위의 정교한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살타태자(薩埵太子)본생도

붓다의 여러 가지 전생 이야기 중 살타태자가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 먹이가 된 이야기는 여러 경전에서 기술되어 있으며 널리 알려져 있는데, 〈금광명경(金光明經)〉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붓다 전생의 한 사람인 마하마하살타 태자가 두 형과의 여행 도중 첫째 형이 우연히 절벽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한다. 이 호랑이는 7일째 7번째 새끼를 낳고 굶주려 아사 직전에 있으며 7마리 새끼들은 어미를 에워싸고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이에 셋째 왕자인 살타태자는 이들에 먹을 것을 주자고 했다.

첫째 왕자가 말하길 "이 호랑이는 신선한 고기와 피만 먹는다"고 하자 셋째 왕자는 "그럼 우리 중 누가 이 호랑이 먹이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둘째 왕자는 "이 호랑이는 굶을 대로 굶고 말라 빠져 이제 무엇을 먹여도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누구도 여기에 아까운 신명(身命)을 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때 셋째 왕자는 용감하게 대원을 세우고 대비심을 내게 되었다. 두 형들에 대해 희의감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을 덮을 수 없어 "형들의 권속이 이 지경에 처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바로 호랑이가 있는 벼랑 아래로 뛰어내려 옷을 벗어 대나무 가지에 걸쳐놓고 서원을 하였다.

"내 이제 중생을 구제하고 최상승 무상도를 증명하겠노라. 대비(大悲) 부동(不動)의 마음으로 나투어 보리를 구하고 3계의 중생을 모두 제도하며 생사의 공포심을 없애겠노라."

그러면서 바로 몸을 호랑이 앞에 내밀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태자의 자비심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에 태자는 호랑이가 워낙 굶주려 기력이 없으므로 내 육신을 못 먹는다 생각하고 주변에서 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 마른 대나무 가지로 자신의 목을 찌르니 피가 흘러나왔다. 이때 천지가 6번 진동하였으며 호랑이는 피로 물든 태자의 몸을 핥고 육신을 뜯어먹어 뼈만 남겼다. 이를 보고 두 왕자는 가슴이 답답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사실을 대왕 마하라타(摩訶羅陀)와 왕비가 알게 되었고 부모는 슬픔에 잠겨 그곳에 대중을 불러모아 유골과 유품을 수습하여 7보탑을 세웠다.

살타태자의 이야기를 시각형상으로 표현한 부조와 벽화가 많은데, 막고굴 제254굴과 428굴의 벽화가 대표적이다. 이것들이 그려진 시기는 큰 차이는 없으나 구도와 조형 기법이 서로 달라 동서미술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변화의 실마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석굴 안쪽 남쪽 벽에 그려진 제254굴 벽화는 네 모난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인이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인 일곱 장면을 잘 골라 이 벽면에 시계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북위 초기 불교벽화의 구도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②)

화면에 보이는 태자는 특별히 크게 그려져 있다. 그가 옷을 벗어버리고 대나무로 목을 찔러 피를 호랑이에게 먹힌 다음 두 손을 합장하고 산벼랑에서 떨어지는 장면이다. 벽화는 인물 중심이며, 인물 하나하나의 몸매가 늘씬하고, 조형이나 복식 그리고 색채의 활용이 비교적 이국적인 맛을 자아내고 있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신성민 기자의 OTT in Buddhism ❶ 백만년 후 인류의 미래



▶ 한줄 요약

디즈니플러스에서 독점 제공되는 가상 다큐멘터리 '백만년 후 인류의 미래(원제 Year Million)'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뤄낸 먼 미래의 가족 이야기를 다룬다. 초지성 안드로이드가 존재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장수의 삶을 살며 죽음을 극복한 미래에서 과연 인간은 인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먼 미래, 인간은 인간일 수 있을까

바야흐로 OTT(Over The Top)플랫폼 전성시대다.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OTT플랫폼은 단순히 기존 영상 스트리밍을 넘어 자체 제작콘텐츠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모든 영상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얼 봐야 할지를 고민한다. 특히 불자라면 범람하는 OTT 영상콘텐츠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을 법하다. 그래서 OTT 플랫폼 속 불교 관련 영상콘텐츠를 살피고 소개한다. 격월간으로 진행될 'OTT in Buddhism'은 다양한 OTT 플랫폼 속 불교 관련 영상콘텐츠에 대한 미리보기 서비스다. 〈편집자 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제공되는 가상 다큐 〈백만년 후 인류의 미래〉의 한 장면.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룬 미래 사회를 보여주며 인간의 존재에 대해 묻는다.
사진=아마존 구매사이트 캡쳐

한적한 어느 시골길. 심각한 교통사고가 벌어졌다. 차는 뒤집혔고 한 부부가 딸의 이름인 제스를 연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딸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어디선가 나타난 인공지능 드론이 말한다. "사망 시각 9시 17분. 따님의 뇌는 사고로 인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화와 업로드를 위한 뇌검사를 원하실 경우 약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검사에 응한 뒤 72시간 뒤 딸은 아무런 상처없이 돌아왔다. 정확하게 말하면 딸의 외모와 행동, 감정 표현이 똑같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배달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망 직전까지 모든 기억을 가진 딸의 모습의 안드로이드는 과연 딸로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인공지능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위의 내용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제공되고 있는 가상 다큐멘터리 〈백만년 후 인류의 미래(2017)〉의 첫 도입부이다. 한국어판 해석이 백만년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어쩌면 오지 않을 아주 먼 미래(Year Million)의 이야기이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내셔널지오그래피에서 총 6부작으로 제작됐으며, 각 회차 마다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마인드업로딩, 가상현실, 텔레파시(초연결), 우주 이주 등을 이야기한다.

인간 존재론에 대한 의문

'제1부 호모사피엔스 2.0'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룬다. '제2부 죽는다는 말은 하지마'는 유전자 조작 기술로서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미래사회를, '제3부 내 몸은 어디에'에서는 마인드업로딩을 통해 현실을 떠나 가상공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리고 있다.

'제4부 감정 이입'은 텔레파시(초연결)를 통해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며 종국에는 사생활이 없어지는 미래를 보여준다. '제5부 지구너머의 에너지'는 소비 과잉으로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에 대한 이야기이며 '제6부 우주너머 그 어딘가'는 우주 탐사를 통한 외계생명체 조우에 대한 이야기다.



>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
> 우린 어떤 형태가 될까요
> 그때도 우린 인간일까요
> 사이보그 인공지능일까요

이중 1~4부는 미래의 가족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재론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앞서 말한 죽은 뒤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된 딸은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초지성체'다. 체스 경기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이기지 못했던 딸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로 되살아난 뒤 가볍게 승리한다.

딸과 똑같은 모습을 하며 기억과 감정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으며, 부모보다 모든 면에 우월한 '초지성체' 안드로이드 딸을 과연 인간으로 대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생물·무생물, 유기체·무기체, DNA유무는 앞으로 올 미래사회에서는 인간을 규정할 수 기준이 될 수 없다. 당장 인공장기들이 제작·이식되면서 많은 인간들을 살리고 있으며, 진보된 의수·의족들도 제작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 신경 등이 치매와 알츠하이머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故 로빈 윌리암스 주연의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은 인간이 되고 싶은 로봇의 이야기를 그린다. 여기서 가정부 로봇 앤드류(로빈 윌리암스)는 각성하고 사고하며 흡사 점점 인간과 흡사한 모습이 된다. 연구를 거듭하며 앤드류는 결국에는 늙어갈 수 있는 인간이 되며 사랑하는 사람과 죽게 되는데 죽는 순간 법적으로 인간임을 인정받게 된다. 영화에서는 앤드류가 인간임을 인정받는 재판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앤드류의 지적이 날카롭다.

"재판장님은 제가 개발한 인공신체 장치를 몸 여러 곳에 이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님은 인간입니까 로봇입니까."

다큐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은 "갈수록 인공지능의 쓰임새가 확대되고 지능이나 기억처럼 복합적인 기능이 실시간으로 증대될 것"이라며 "우리가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 생물학적 원형이 아닌 인체의 새로운 모형인 사이보그종이 될지 모른다"고 전망한다.

유전자의 우열에 기대지 않고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미래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진다. 다시 말해 인공신체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인간을 과연 인간으로 부를 수 있냐는 의미다. 나아가 완벽한 인공신체를 가진 초지성체도 인간의 존재에 넣을 수 있겠냐는 존재론적 질문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큐 '백만년 후 인류의 미래'는 해인사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의 저서 〈AI부디즘〉을 읽으며 사유해볼만 하다. 책에서 스님이 던지는 첫 화두는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는가"였다. 이에 대해 스님은 스스로 이렇게 자답했다.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라는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역설적이게도 새삼 나는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떠오른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할 것은 불성이 머무는 소재가 아니라 그 불성 자체가 흐르는 모습이다."

죽음 극복한 인간의 다음 행보

다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간의 장수는 머지않은 미래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제4차 산업기술혁명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의 진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유전자 가위기술을 통해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치료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퍼(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로 비정상 유전자 일부를 잘라내서 정상 유전자로 수정하는 기술이다. 이는 혈우병과 같은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다큐에서는 여기서 진일보해 아예 유전자를 조작해서 모든 병의 원인을 제거해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종국에는 맞춤형 아기의 탄생도 가능해진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가타카〉다. 인간의 자궁을 통해 태어난 열등한 존재인 주인공 빈센트가 자신의 꿈인 우주비행사가 되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에서는 대부분의 인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맞춤형 아기로 태어난다.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조작과 이를 통한 생명의 잉태는 기존 종교·윤리관에 대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생명공학 기술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교계 내부에서 치열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병장수의 꿈을 이룬 인간의 다음 행보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어디서? 바로 가상세계이다. 다큐에서 부부는 대략 300년의 삶을 살았다. 부인의 300살 생일파티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한다. 나는 더 이상 현실에서 살지 않고 병환과 죽음의 고통이 없는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싶다고. 남편은 만류하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될 죽음보다는 가상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갈 방법을 택하겠다는 부인의 결심은 확고했다.

여기서 소개하는 기술은 '마인드업로딩'이다. 인간의 마음과 기억을 컴퓨터나 인공물에 전송하는 마인드업로딩을 가능성이 없는 기술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한스 모라백, 레이 커즈와일 등 로봇과 인간의 사회적 융합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은 마인드업로딩의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어서다. 실제 레이 커즈와일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 따르면 이론상 사람의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필요한 연산 능력은 10^16cps(calculations per second)라고 한다. 마인드업로딩이 이론상 가능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정신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지금' 시점에서다.

이 같은 미래사회에서도 몇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죽음이 사라진 세계에서는 과연 종교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고통과 윤회를 끊어버린 가상세계에 입성하는 것을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회차마다 관련된 과학기술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만, 살펴보면 이들 과학기술은 기민하게 연결돼 있다. 인공지능 나노봇이 혈류로 들어와 유전자를 분석해 병인(病因)을 제거하고, 초연결 디지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며, 가상세계 안에서 영생을 꿈꾸는 다큐 속 가족의 이야기를 오지 않을 세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모를 미래 시대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떠나지 않는 질문은 "먼 미래, 인간은 인간답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아니 대체 인간은 무엇일까"이다. 다큐가 실제가 된다면 인간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현대불교 취재부장〉



탈퇴공고

- 종 단 : 한국불교화엄종(불령사)
- 회 주 : 영 암 (속명 / 김외태)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로 296-83

위 본인과 종단은 귀 협회를 탈퇴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일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 총연합회

해체공고

- 종단명 : 한국불교화엄종
- 대표자 : 영 암 (속명 / 김외태)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로 296-83

상기 종단을 해체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일

보리에 이를 때까지 보살도 실천 서원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⑤ 십대수장(十大受章)

이때 승만 부인은 부처님이 주시는 수기를 듣고 공경히 서서 열 가지 큰 서원을 세웠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받은바 계(戒)에 대하여 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어른들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3.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모든 중생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4.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그들이 가진 소유물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5.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안팎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6.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지 않을 것이며, 무릇 받는 것이 있다면 모두 가난하고 곤궁한 중생들을 위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7.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하여 사섭법(四攝法)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애욕에 물들지 않은 마음과 싫증을 내지 않는 마음과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거두어들여 교화하겠습니다.

8.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만약 고독한 사람, 갇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등 온갖 고통과 재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잠시도 버리지 않고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하여 의리로써 이롭게 하고 그들을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 그들을 보내겠습니다.

9.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잡거나 기르거나 하는 나쁜 업과 갖가지 계를 어기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마땅히 길들일 사람은 길들여서 거두어들이겠습니다. 순종하도록 길들여 거두어들임으로써 법(法, 진리)이 영구히 머물게 되고 법이 영구히 머물게 되면 천상의 사람과 인간 세상 사람이 많아지고 악도 중생이 줄어들어 능히 여래가 굴리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따라 구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익 때문에 거두어들이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10.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정법을 지녀 마침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잊어버리면 대승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대승을 잊는 것은 바라밀다를 잊는 것이며, 바라밀다를 잊는 것은 대승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살이 대승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법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기꺼이 들어가려 해도 길이 범부의 자리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큰 잘못을 보았고 또 미래에 정법을 거두어들일 보살마하살의 한량없는 복과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크나큰 이 열 가지 받아 지녀야 할 것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서원인가. 지고지순(至高至純)한 마음을 발하여 세상을 감동시키는 장면이다.

이 장을 〈승만경〉의 십대수장(十大受章)이라 한다. 10가지 큰 서원을 발하는 장면인데 '10대수'라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수기를 받은 인연이 대승의 큰 서원을 발하게 했는데 이 대승의 서원이 부처님의 본원과 같으므로 부처님으로부터 승만 부인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승만 부인의 서원은 모두 오늘부터 보리에 이르기까지, 곧 성불할 그때까지 대승의 보살도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하여 하겠다는 것은 이타 원력을 근본으로 하는 보살의 대원이다. 〈화엄경〉에도 "자신을 제도하지 못하더라도 남을 먼저 제도한다."(自未得度先度他)는 말이 설해져 있다.

사섭법은 보살이 중생을 거두어들일 때 쓰는 네 가지 교화법이다. 보시섭(布施攝)은 보시행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고 이행섭(利行攝)은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여 거두어들이며 애어섭(愛語攝)은 말을 친근감이 가게 상냥스럽고 부드럽게 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동사섭은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중생을 위해 어려운 일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이다. 이 장에서는 또 부처님의 정법이 대승이라 하여 대승이 바로 부처님의 정법임을 천명해 놓았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세음보살은 이타구세 신앙·수행

〈利他救世〉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㉘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자 여러분! 〈대품반야경〉과 〈반야심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반야의 지혜를 완성한 보살임으로 '지혜의 완성자'로 표현하고 지혜를 설하는 보살임으로 "지혜의 실천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품반야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삼매를 얻어 신통자재하며 대원을 섭수하고 부처님을 도와 불사를 지으며 법륜을 굴려 무량한 중생을 구제한다"고 설한 내용에서 지혜의 완성자이며 지혜의 실천자임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야심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은 반야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중생들에게 반야바라밀을 강설하는 보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야경〉 계통의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고 중생에게 지혜를 설하는 지혜의 완성자, 지혜의 실천자로서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에서의 이러한 표현과 증명들은 지혜를 완성한 중생 세계의 구세자는 분명히 관세음보살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중생들은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해야만 구원과 성불을 함께 성취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며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상의 내용과 같이 관세음보살님은 서원과 자비행의 끝없는 실천을 하시는 구세자이며 구원자입니다. 지혜를 완성하고 지혜를 실천하며 일체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원하는 대보살님입니다. 중생 속에 함께 살며 중생과 함께 일하고 모든 부처님을 대신해서 일체중생을 교화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중생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며 중생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생의 원력과 욕망과 근기에 맞추어 때론 33응신으로 때론 34응신으로 다양한 변화력으로 응현(應現)하시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을 이루신 대보살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위신력과 가피력과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수많은 대보살들 중에서 관세음보살은 대비행의 구세자로서, 지혜의 실천자로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신앙의 귀의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믿고 신앙하며 수행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적 가피를 얻으며 중생구제의 대승보살도를 완성하며 성불을 이루는 관세음보살의 신앙은 세상을 널리 구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구세(利他救世)의 신앙이며 수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신앙하면 우리들의 현실적인 괴로움을 제거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 수행을 통해 일체중생을 구제하며 스스로 갖추어진 지혜를 발현시켜 나간다면 진여본성과의 합일을 이루는 궁극적 성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과 수행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분명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도의 완성을 통해 성불을 이루는 관세음보살 신앙과 수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인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⑤ 사대는 아무것도 모른다

스스로 아닌 오온 움직이기 때문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고, 정신을 써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지 않음으로써,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성장한다. 그는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쓴다.

〈모든 번뇌의 경〉

어떠한 생각을 일으켜도 생로병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생각을 일으킬수록 복잡해진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생각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보면 그대로 답이다. 따로 무얼 하는 게 아니라 멈추는 순간에 모든 것이 확연하지만 우리가 그 찰나를 놓쳐버릴 뿐이다.

나는 과거세에 있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없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나는 미래세에 있을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세에 어떻게 지낼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 또는 현세에 이것에 대해 의심한다. 나는 있는가? 나는 없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있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든 번뇌의 경〉

우리의 생각을 읽어보자. 경전을 공부하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수평선을 그리지 않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도 삼세를 분주히 오고간다. 생각 속에 우리가 있는가? 생각이 생로병사를 넘어섰는가? 이것이 고(苦)라는 것이 바르게 보였는가? 존재를 끈질기게 생각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오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물이라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원래 물이었는데 얼어서 얼음으로 살고 있다.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녹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형상을 유지하면서 물을 알려고 한다. 얼음의 딱딱함으로 물의 부드러움을 알고자 하는 오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얼음이 완전히 녹지 않고서는 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얼음은 물에서 생성되었지만 물을 모르는 것이다. 얼음 틀의 형태가 다양하다면 여러 가지 모양의 얼음들이 생겨날 것이다. 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제각각의 얼음들이 녹으면 하나의 물이다. 얼음이 녹은 물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도 찾아 낼 수 없다. 구분이 없다.

우리도 이와 같다. 나는 있는가? 나는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가 딱딱함으로, 무언가의 표현으로 남아 있는 한 그 물 자체인 스스로를 알 수가 없다. 성품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졌지만 성품을 모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소리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면 끝끝내 계합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이 공부를 마친 자들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까? 우리의 사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사대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사대는 '그것'과 만날 수 없는 공간에 있다.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으니 저울이 있어도 무게를 달 수 없네. 세상은 부류가 있고 등급이 있지만, 이것만은 부류도 없고 등급도 없네. 한 평생 보내는 일, 눈을 감을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지만 세상일 눈을 뜨고 본들, 눈을 감고 본들, 매한가지일 뿐 다르게 아는 바가 없네. 해 뜨고 해 지는 일 매일 매일 일어나고, 밥 먹고 자는 일 또한 매일 매일 일어난다. 여기에 모든 진리 함축되어 있으니 다른 일 접어두고 이것에 무심해지면 따로 기특한 일 없음을 알 것이네. 저울에 숫자는 있지만 그 숫자 움직인들 그것은 숫자로 보일 수 없네. 1kg, 10kg, 100kg 다시는 자신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없어 그것과 시름하지 않으니 근심이 없다고 함이 없네. 이제부터 보내는 하루하루 처음이고 끝이니 참으로 묘용이 따로 없다. 없는 말, 없는 소리 한없이 내어본들 듣는 이 번잡하게 하는 일, 그 일 수고롭게 하지 않은 것은 유마거사 침묵의 힘으로 문수보살에게 보여주니 정말로 무게 없는 무거움을 알았으리라.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통증서 벗어나 몽골 이주민 울타리 되고 싶어"

몽골 출신 아리오나씨 퇴글긴 교통사고로 목·허리 크게 다쳐
통역사 활동 등 이주민 지원 자처…사고 후 매일 끔찍한 고통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74호 | 17 | 전면광고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卍佛寺 프로그램

❖삼재 방생풀이 음력 입춘 - 삼진날까지 비바람 불면 연기, 매일 11시 비구니스님 성지 봉사 개회
❖쥐·용·원숭이 1인 5만원, 양초 3천원, 이름 써드림, 공양미 1kg 2천원
❖서울 전철 아산신창행 - 도고시내버스 - 신통리
❖농협 351-0881-7941-93 조계종 만불교
❖아산시 신통길 192-21 (지장보살 모신 절)

접수문자 010-3410-0004
041-544-4441

무소유의 행복!

선착순 5명, 기도비 월 30만원

신비한 약수!
소나무밭! 맑은공기 산책로!
기도하며 조용히 살고싶은
보살님들을 매월 초대합니다.

문산 전철역 : 택시 10분거리
파주읍 향양리 산39번지

031-953-9509, 010-4069-5315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공양주 모십니다
보시금 150만원
부산 남구 소재 사찰
• • •
010-4435-5660

• •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청주 상당구 봉은사
• • •
010-5883-2255

수강생 모집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속성 5개월 과정 •**한문 몰라도 됨**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
단청,탱화,개금
사찰신축, 보수, 기와
❊❊❊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특수기도법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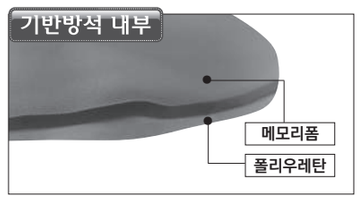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74호 | 18 | 전면광고

여러 악한 종류에 무리들이 많지 않게 하며 모든 악이 다하고 스러져서 스스로 사람을 여의게 하며 모든 악한 생각들은 생각함이 없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안내

-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김천역 차편 15분대)
- 법당 약 20평, 주방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 대지 약 100평, 도지료 연 35만, 남향, 구성 중심소재 교통좋은 대로변 포교지
- 가액 : 3천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산읍
- 건물 : 2층, 목조 법당
- 대지 : 540평
- 건평 : 3동 2백평, 단청 완비
- 가액 : 13억

054-977-661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학원 및 사찰터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대지 : 약 256평
- 우동 자이아파트 단지 옆 자명요양병원 앞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 도로에서 25미터
- 대지 100평 3홉 건평 40평정도
- 스님유고 관계로 양도합니다.
- 답사 하실분만 전화 요망
- 가액 : 2억 9천(절충)

010-9796-0825

창원 사찰안내

- 사찰 전체 35평
- 법당 15평, 1층법당 화장실, 샤워실, 창고
- 권리금 3천만원, 보증금 450만원, 월세 25만원

010-9181-9666

사 찰 안 내

-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 1동 제일여고 뒷편 삼복도로
- 임야1800평, 대지60평, 전답 120평, 법당20평, 삼존불, 용왕당, 요사체, 방4개
- 양도가 5억, 협의가능

010-8762-9870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2평, 시설금 9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2백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체,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판넬설치, 음향완비, 도배)
- 5년전 인수금액보다 3백만 절상

보문산 약사도량 지장사
010-3049-581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내면 희곡리
- 대지 : 약 2,100평
- 전망이 아주 좋음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종교용지 218평/건평1층42평 ● 2층26평/단청 토기와 컨테이너6평 산신각, 실사용500평, 시유지포함 ● 심야전기, 천연지하석수, 1일150톤 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 건강상실가이하로 ● 7억8천에 양도합

010-6425-8274
010-9319-30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 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멋진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200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무허가)

010-3128-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 층/평 : 3층 / 90평
-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조정가능)
- 시설금 및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7726-11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작은법당 안내

- 위치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 작은법당(반지하)
- 혼자 기도하고 상담하기엔 안성맞춤
- 보증금 2백만, 월세 20만 권리금 3백만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안동 부지
- 종교용지 및 전1,256평
- 대웅전, 산신각, 약사전, 요사채2동, 황토방, 주차시설
- 명혈명당 가진자가 천하를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입신양명한다.
- 자연석 돌로 경관 수려함
- 가액 : 9억5천

010-9692-5775

사 찰 (급) 안 내

- 부산 영도구 용석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
- 대지89평, 기자재포함, 서재1, 방1, 산신각1, 용궁1, 해수관음상1
- 가액 5억1천만원 사정상 급하게 양도(절충가능)
- 네이버 검색시 사찰사진 있음

010-2350-8202
010-3653-5883

요양원·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길 312-52 백련사 사찰부근
- 물좋고 산세 좋음
- 대지 600평, 토목공사 완료 전기, 수도 공사 완료
- 가액 : 6억 복지법인 둥지마을 포함

010-6538-7222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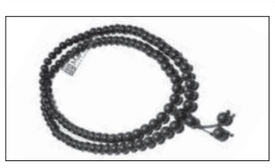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③ 경기도 안성 석남사 사철나무

대칭 떠올리게 해준 비대칭 나무

사천왕문을 통과할 때는 주눅에 숨이 막혀 빠르게 합장하고는 쫓기듯 휙 지나간다. 무서워할 나이는 지났지만, 동면에서 갓 깨어난 개구리처럼 발아래에 움츠려 있는 생령좌 면상이 내 혀에서 발설하지 않는 죄를 낱낱이 반추하는 것 같아서다. 그런데 석남사 금광루 마룻장을 받치고 있는 듯한 부라린 눈앞에서는 사진을 찍고 있었다. 유명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라는 걸 알고 간 친근감이 그동안의 잘못을 탁탁 털어주고 있는 걸까?

그늘진 누각을 빠져나오니 극락을 가리키는 듯한 비탈진 돌계단들이 대웅전 앞까지 좌우대칭 기와 얹힌 낮은 벽돌담 사이에서 펼쳐져 신음 같은 탄성을 부르짖게 한다. 오를까, 말까 망설여지는 건 꼬불친 허물들이 도깨비 방망이로 난타를 당해도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다는 단언이 앞서서이고, 그래도 발을 내딛는 것은 하얀 밤에 날아간 풍등 하나 되돌아와 손에 잡히면 용서를 구하는 문장 적어 날려 보낼 발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다.

하지만 민들레 홀씨보다 못한 가벼운 불심으로 요원하기만 한 수미산 행보는 삐거덕거리고 곁길로 빠져 영산전 아래 사철나무를 맴돈다. 신라 고승 석선(奭善)이 창건한 뒤 고려 혜거국사(慧炬國師)의 중건을 거쳤지만 임진왜란 때 잿더미가 되었고, 이후 중수한 전각 가운데 대웅전과 영산전이 천년고찰의 정취를 내비치고 있는 석남사에서 중도의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그것은 대칭의 미를 완벽하게 구조화하고 있는 나무들 때문이었다. 절 입구에서부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그루의 무궁화, 그리고 참된 극락길을 사색시키려고 시선을 잡아당긴 사철나무들, 마지막으로 대웅전 앞에서 금강역사처럼 지탱하고 있는 회화나무들이었다.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를 보면, "태초에 완벽한 대칭이 있었다 … '태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는 표현은 물리학에서 태초에 '자발적으로 대칭이 붕괴되었다' 는 표현과 같은 의미이다. 우주는 '대칭' 과 '대칭의 붕괴' 두 가지뿐이다"라는 글이 있고, 〈신의 입자〉를 보면, "신은 힉스를 소환하여 앞에 앉혀 놓고 웃음을 간신히 참아가며 준엄하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세상의 대칭을 망가뜨렸는가?' "라는 글이 있다. 이는 무엇도 없지만 본래 하나인 공(空)이 대칭일 거라는 과학자들의 이론 같은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명도 가급적 균형이 맞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철나무가 보이는 안성 석남사 전경.

식물은 좌우대칭이 아니다. 축구공처럼 완벽하지 않은 원 모양을 가진 원줄기의 곧지 않은 수직 상승, 그리고 사방으로 그물 친 가지들도 거기에 매달린 잎의 수도 제각각이다. 우리 몸은 좌우대칭이다. 이에 대해 김성철 교수는 "동물이 움직이는 본래 이유는 먹이를 찾는 것이고 먹이는 내 주변의 어딘가에 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풍경을 좌우로 가를 때, 먹이 탐지에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풍경을 균등하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붙박이로만 생장할 수 있는 식물에 가해지는 대칭 습성이 정원의 역사일 것이다. 그래서 숲속 나무와 우리 곁의 나무 외형이 많이 다른데, 그 중 하나가 사철나무다. 영역을 표시하는 생울타리로 쓰이다 보니 본래 5미터까지 자라는 키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고, 덕분에 애써 솟은 새 가지는 뻘쭘해 보여 쓱싹 흔적을 지우고, 홀로 식재된 경우라도 베토벤 머리가 되는 건 허락받지 못해 정갈해 보이기만 하는 이 나무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황록색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영근 붉은 열매 사이에서 네 갈래로 나타나는 주황색 씨다. 늘 그 자리에서 늘 그만한 크기로 늘 푸르게만 보이는 나무라 눈길을 주기 쉽지 않은데, 푸른 잎 여백에서 용발가락이 움켜준 여의주 같은 광경을 보면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열정의 화신에 덴 듯한 느낌이 온다. 그래서 돌담에 웃자란 사철나무 잎들의 빈틈을 빠뜨리지 않고 훑는데 누런 열매 껍질들만 쪼그라들고 있어 아쉬움이 극진할 무렵 갈라진 사각이 주는 대칭에서 그나마 안위를 얻는다.

그때 문득 작디작은 꽃잎도 4개, 수술도 4개, 암술 씨방도 4개 그래서 사계절 푸른 사철나무인가 하는 독백에 '그랬던가. 내가 왕여였던가. 기억 없이 남은 감정은 내가 왕여인 걸 잊지 말라는 스스로 주는 벌이었던 걸까' 라는 〈도깨비〉 대사가 돌계단을 마저 오르라고 주문한다. 등에 사철나무 감정을 짊어지고 있지만 그보다 높은 곳을 향하는 나는 진정 무엇인지 헤아려 본다. "소립자들은 허깨비(ghost) 같은 존재들이다"이라는 어려운 말이 다리를 휘청거리게 하다가 "미시적 속성은 관찰된 속성일 때 비로소 속성이다"라는 더 어려운 말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래도 늘 있는 그 태초의 대칭 공(空)을 깨달아 보겠다는 나를 존재하게 한다.

대웅전 앞 회화나무에 걸려 이승을 떠나지 못한 색색의 풍등이 그 사이로 밀려오는 음산한 겨울산을 점처럼 빛내고 있다. 대칭으로 서 있는 나무들은 아니지만, 대칭인 내가 그들을 보며 감사하게도 막힌 숨통을 트이고 있다. 태초의 바람이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③ 송수권의 '산문(山門)에 기대어'

우리민족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는 윤회사상

산문(山門)에 기대어

누이야
가을산(山) 그리매에 빠진 눈썹 두어 낱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끌을 따라가면
즈믄밤의 강(江)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苦惱)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山茶花)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山) 그리매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盞)은 마시고 한 잔(盞)은 비워 두고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山) 그리매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낱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 옴을

(송수권 시집, 〈산문(山門)에 기대어〉, 문학사상사, 1980)

송수권(1940~2016) 시인에겐 특별한 별명이 하나 붙어 다닌다. '휴지통에서 나온 시인' 이다. 그 별명이 따라붙은 데에는 '슬픈(?)' 사연이 있다.

1975년 겨울 어느 날,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문학청년 송수권은 서울 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여관에 들었다. 서대문에 있는 화성여관이었다. 신춘문예에도 여러 번 응모하고, 문학잡지 신인상에도 여러 번 응모했지만 번번이 낙선했다. 그해도 신춘문예에 응모했는데 낙선하고, 좌절과 절망으로 거리를 방황하다가 잠 잘 곳을 찾아 여관에 들었다. 그런데 문득 〈문학사상(文學思想)〉(지금도 발행되고 있음)이라는 문학월간잡지에서 신인상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문제는 응모마감 시간이었다. 모레가 응모마감 시한이었던 거다. 그것을 본 문청(文靑) 송수권은 급한 마음으로 백지에 이 시를 썼다. 그리고 황급히 응모했다.

'휴지통 사건' 은 심사과정에서 벌어졌다. 당시 〈문학사상〉 주간이었던 이어령(이화여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언론인) 前 문화부 장관은 화장실에 다녀오다 우연히 사무실에 있는 휴지통을 보았다. 휴지통 안에는 꾸깃꾸깃 접혀서 내버려진 종이뭉치가 있었다. 이어령 주간은 휴지통에서 그 종이뭉치를 주웠다. 그리고 펴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가 적혀 있었던 거다. 응모작품을 정리하던 〈문학사상〉 기자가 "원고지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응모한 원고"라며 "보나마나 작품 수준도 형편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심사에도 올리지 않고 그냥 구겨서 휴지통에 버린 것이다. 당시는 200자 원고지에 작품을 써서 응모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그것을 이어령 주간이 주워서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시의 탁월함을 보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그해 〈문학사상〉 신인상 당선작으로 내보낸 것이다. 뒤늦게 알려진 이 일화를 계기로 이 작품은 '휴지통에서 나온 작품' 이라는 '입소문' 이 문단에 퍼져 화제가 됐다. 그와 함께 송수권 시인에겐 평생 '휴지통에서 나온 시인' 이라는 '아름다운 별명' 이 훈장처럼 따라다녔다.

이 작품은 젊은 송수권이 실제로 겪은 체험을 시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 사실은 이 시의 첫 행에 바로 나타난다. '누이야' 가 바로 그것이다. 그 '누이' 는 '군대에 다녀온 뒤 산소에 가서 농약 먹고 죽은' 남동생을 부르는 호명이었다. 젊은 송수권 시인의 마음속엔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이유도 모르게) 집안 산소에 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동생' 의 모습이 고통으로 항상 남아 있었고, 그렇게 간 남동생을 늘 그리워하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내 '한 잔' 너 '한 잔' 하며 그 남동생을 이승으로 불러낸 뒤, 그 남동생을 위한 비가(悲歌)를 불렀던 것이다.

'산문(山門)' 은 '절집' 이나 '절집 바깥문' 을 말한다. 보통 일주문(一柱門)을 뜻한다. 일주문은 절집에 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이다. 일심(一心)을 상징하는 말로서, 한 줄로 된 기둥(보통 2개 또는 4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얹혀 있는 문을 말한다. 불교에서 이 일주문(산문)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 일주문(산문)을 경계로 승속(僧俗)이 갈리기 때문이다. 이 일주문(산문)은 또한 이승과 저승[冥府]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그 승속의 갈림길에서, 이생과 명부의 갈림길에서 송수권 시인은 불현듯 죽은 남동생이 그리워 이승(못물)으로 불러낸 뒤 술 두 잔을 부어놓고 너 한 잔, 나 한 잔 하며 대화를 나눈 것이다.(제사 지낼 때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불교의 윤회사상에 철저히 바탕을 둔 시다. 시인은 '누이야' 하고 죽은 동생을 먼저 불러낸다. 시인은 이어 동생의 죽음을 '가을산 그리매에 빠진 눈썹 두어 낱' 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로 그리기도 하며,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 으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살아난 죽음은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믄밤의 강' 으로 일어서고, '더러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혹은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매우 역동적으로) 시인의 마음속에 재생한다. 그리하여 그 동생은 '눈썹 두어 낱이' 이 되어 '지금 이 못물 속(이승)에 비쳐' 오고, 시인은 '못물 속(이승)의 눈썹으로 환생' 한 동생과 그리운 재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유전(流轉)이 불교적 상상력을 통해 슬프지만 퍽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 시의 모태는 신라 향가 '제망매가(祭亡妹歌)' 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10구체 향가로서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 재를 올리며 부른 노래' 다. 삶과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뛰어난 문학적 비유를 통해 종교적(불교적)으로 승화시킨 노래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의 마음속엔 면면히 불교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참, 시 본문의 괄호 안 한자는 시 원본이 그 한자대로 쓰여 있음을 뜻한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인등생산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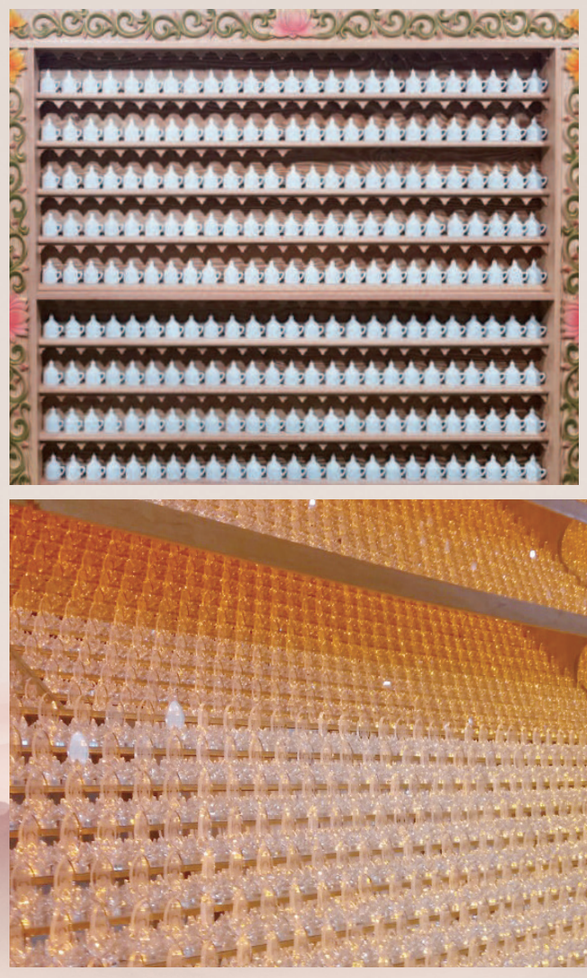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마음책 다시 읽기 ‘그대는 꽃입니다’ ❶ 행복 수행학교로의 초대

▶ 한줄 요약
관찰통해 상대방의 감정변화를 살피면 소통이 시작된다.

모든 순간은 삶이 주는 선물

우리는 누군가와 처음 사귀기 시작하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최소 하루 24시간은 함께 생활해봐야 서로의 모습을 조금은 볼 수 있죠. 함께 지내다 보면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처음 사랑에 빠지면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서로에게 숨기고 있던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동안의 환상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어떨 때는 심한 충격까지 받게 되지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그때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마음챙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행을 통해 나 자신과 상대방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다면 사랑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챙김 수행은 그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플럼빌리지의 행복 수행학교는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입학하여 수행하는 곳으로 이 곳에서는 관계회복의 기술인 깊이 들여다보기(Looking Deeply)라는 프로그램을 일 년 동안 수행합니다.

수련생들은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통해 그들이 조상들과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의 양분과 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마음에 맺힌 응어리도 풀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잘 마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는 함께 살 준비가 되었다는 졸업증서를 받게 됩니다. 수행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마음속의 응어리를 푸는 법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불쾌하게 말했다고 합시다.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는 이해를 잘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짜증이 나고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게 되죠. 이를 불교 심리학에서는 삼요자나(samyojana) 곧 내면의 족쇄, 매듭 또는 응어리를 말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하게 되면 응어리가 맺히는 순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을 푸는 방법까지도 터득하게 되죠. 우리는 분노, 두려움, 후회 같은 감정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의식 한쪽 구석에 그냥 묻어 버리고 말죠.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존재를 거부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방어 장치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감정들은 언제고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응어리가 만들어지면 숨기지 말고 바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처음에는 응어리가 느슨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것을 바로 풀지 않으면 응어리는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무의식적인 감정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의식을 갖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수행을 하세요. 마음속의 응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감정, 생각, 말 또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면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 할까? 내가 왜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영화 속 인물을 싫어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내면에 생겨난 응어리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하면 마음속에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그 응어리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관찰하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약간의 저항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하지만 끈질기게 앉아서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면 응어리의 원인까지 알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의 실마리도 발견하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해 나아가면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수행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에 쌓인 감정들을 바로바로 해소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여성은 결혼한 지 겨우 삼 일밖에 안 된 남편이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감정의 응어리를 거의 30년 동안이나 마음에 담고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말대꾸하면 싸우게 될 것이 두려워 응어리를 풀지 못했답니다. 진정한 소통

마음 관조하면 응어리 보여
관찰 능력이 풀어내는 능력
수행 목적은 본성 이해하기
상대방 감정 변화 살펴보자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고통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마음 안에 응어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 수행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는 감정의 응어리를 서로 함께 들여다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너무 과장되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내는 그런 남편이 전혀 존경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아내가 남편과 대화를 시도한다면 분명히 그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맺혔던 응어리도 풀리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챙김을 잘 수행하면 서로에 대한 감정의 응어리를 성공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꽃과 자양분을 갖고 있어요. 마음챙김 수행은 서로의 마음 안에 있는 꽃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결코 쓰레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비난과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정원에 꽃을 가꾸는데 꽃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꽃을 비난하거나 욕하지는 않습니다. 꽃이 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지요.

당신의 연인은 바로 그런 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잘 돌봐 준다면 상대방은 아름답게 피어날 겁니다. 소홀히 대하면 시들고 맙니다. 꽃이 잘 자라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자연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꽃은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가, 얼마나 오랫동안 햇볕을 쬐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안의 꽃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고, 상대방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 안의 꽃을 들여다보아야 하지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대상을 고유하게 인식하는 것은 바로 그것의 본성 때문입니다. 오렌지는 그것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오렌지를 레몬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플럼빌리지에서는 요리를 할 때 프로판 가스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프로판 가스의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본성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지요. 잠을 자고 있는데 방안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모르고 성냥을 그어대면 우리 모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프로판 가스를 이용해서 훌륭한 요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판가스의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안에 들여놓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베트남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였고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말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옥수수 알갱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볼 때마다 자신이 잡혀 먹힐까봐 혼신의 힘을 다해 줄행랑을 치곤 했다는군요. 이런 경우가 바로 자신의 본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이 인간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이다. 나는 옥수수 알갱이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하루에 사백 번씩 말하게 하고, 종이에 매일 삼백 번 이상씩 쓰라고 처방했습니다. 그 후 환자는 매일 방안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썼죠.

한 달 후 의사가 환자를 다시 만나러 왔을 때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만 머물면서 선생님께서 처방해주신 일과를 아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인간입니다. 저는 옥수수 알갱이가 아닙니다.”

의사는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며칠 후에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무실로 가시죠.”

환자는 의사와 간호사와 함께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옆에 닭이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환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행랑을 쳤고 의사는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그를 다시 의사에게 데려온 것은 거의 1시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의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옥수수 알갱이가 아니고 인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닭을 보고 도망치셨습니까?”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는 내가 옥수수 알갱이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닭이 과연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본성을 포함해서 모든 사물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려움, 고통, 불안함 그리고 소망도 함께 발견하게 되지요.

배우자와 마주앉아 손을 잡고 두 눈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가 진심을 담아 이렇게 물어 본다면 상대방은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눈물은 바로 소통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좋은 신호죠.

저자 : 찬콩 스님 〈사유수 펴냄〉





대행 스님

어떠한 게 닥쳐도 피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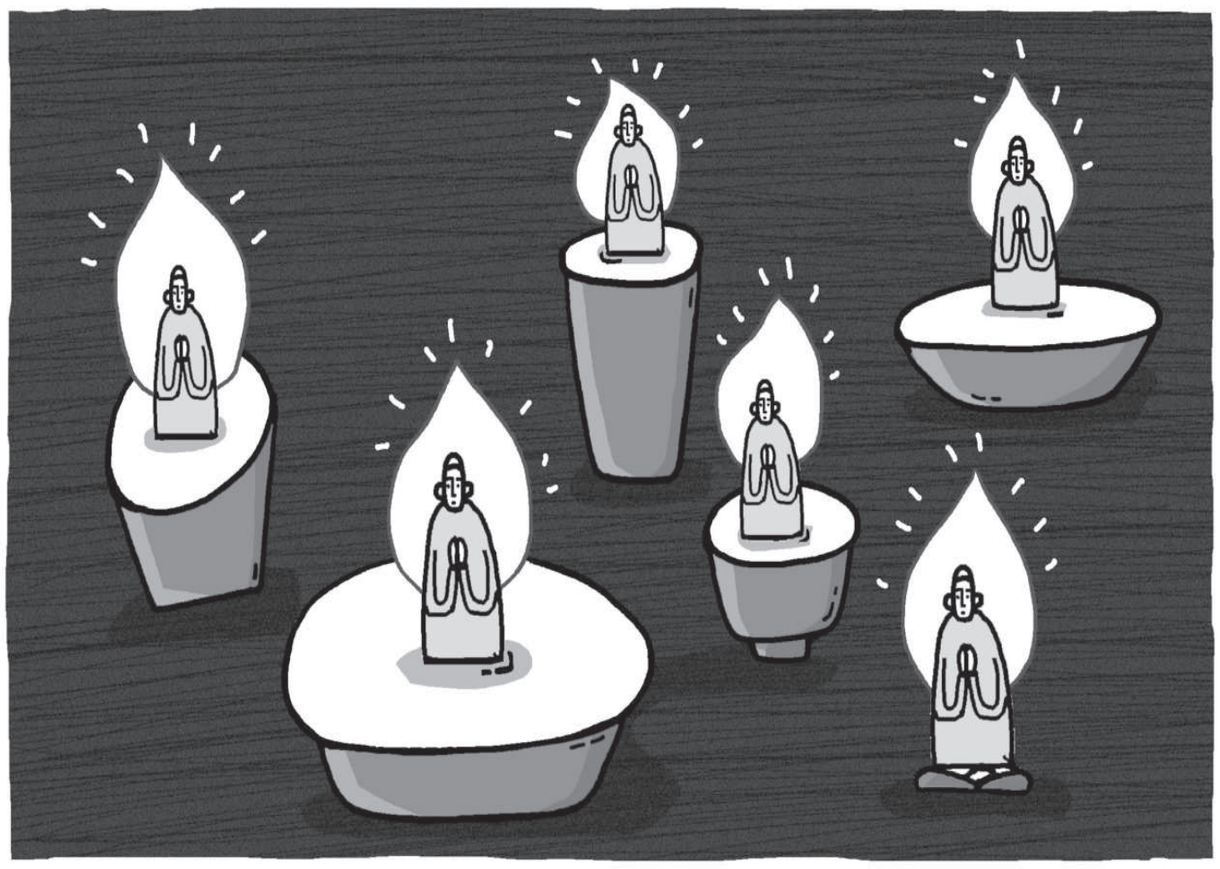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육법공양을 올리는 의미

질문 해마다 촛불재를 올리고 있는데 보통 사찰에서는 큰 행사를 할 때 육법공양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에서 천도재를 모실 때도 영단에 여섯 가지 공양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육법공양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항상 얘기했듯이 이 향은 양식을 삼아서 하는 겁니다. 촛불은 자기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고. 자기 마음을 밝힘으로써 그 조상들도 밝아지니깐요. 또 그 향으로다가 양식 삼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도리를 알고 생각해야 그 체가 없는 그분이 그걸로 양식을 한다 이겁니다, 향으로.

그리고 물 한 다기 놓는 것은 정수를 말합니다. 정수를 말해서 이 정수에 입력되는 데 손색이 없으라고 하는 겁니다. 꽃을 한 다발 놓는다 하는 것은, 그 마음들도 모두 사람들의 꽃입니다. 마음이 웃고 살라 하는 그 뜻에서 그 향기가 접합니다. 그거는 영령과 산 사람 자식들과 똑같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어떡하나, 가 보지 못해서 어떡하나 해도, 그 못 가게 돼서 못 가도 내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 뭐, 그냥 한 찰나에 그냥 마음의 도리를 읽고 한 찰나에 응접하십니다. 이 도리가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이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꽃공양! 다기공양! 향공양! 청수공양! 떡공양! 공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체 뭘로 쓰느냐 하면 공생이며,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또 공용이며 공식이다. 이게 죽은 영령들이 나한테 그 마음을 읽고 찰나에 들고 나고 들고 나면서 그 조상들이 다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체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거든요. 부닥침이 없으니 못 하니까 산 자기 자손들을 영접해서, 그 사람 당사자는 몰라도 그냥 들어서 그 마음을 읽어서 배우고 그 마음을 읽어서 배우고 이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자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서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공부하게 하려고 모두 애쓰고 계십니다.

보이는 여러분들만큼 영령들도 조상님들도 여기 다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몸을 좇아서 말입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기가 막히고 아프고 눈물이 한없이 쏟아질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잘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상 옆에 또 물 한 그릇 놔라, 큰 그릇에다가." 하는 것은 거기서 그 한, 정수 바다에서 말입니다, 바다에서 몸을 씻고 정수로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정수에 입력이 되면 그 입력이 다 현실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겸해서 입력이 돼서 나오니까 과거를 문제를 삼을 게 하나도 없죠. 과거가 현실이 되고 미래가 현실이 되니까요. 이 도리가 아주 묘한 도립니다. 알고 보면 쉽고 모르고 보면 아주 복잡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스님이 그러셨거든. 떡 하나를 아니 놔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천도라는 것은 떡 하나를 아니 놔도 되고, 아니 놓고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스님이든지 안 놓고 해도 돼요. 하다못해 촛불 하나 없어도 마음의 촛불을 켜고 하니까요. 촛불은 보이는 것만 촛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놓지 않고 하면 먹을 게 없지 않으냐 그런다면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모두 차려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으면 조상들도 먹고 여러분들이 굶으면 조상들도 굶는데.

아, 여러분들이 둘 아닌데, 모두가 같이하시고 있는데, 응감을 하시는데, 내 몸뚱이 속의 생명들도 다 같이 더불어 같이 응감을 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응감을 안 하고 향으로 양식을 삼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리를 알면 세상천지가 바로 내 거가 됐다가, 처음에는 내 거가 됐다가 다 버렸다가 다시금 주워 담아서 베풀어 주는 바로 부처님이 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편을 안 쓸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허공중에 공 하나가 둥둥 떠 있는데 그 공 속에서 우리는 갇혀서 살고 있어요. 갇혀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육법공양을 올리는 원인은 '이 공 속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데

질문 요즘은 제가 몸이 힘드니까 마음까지도 우울해지면서 힘이 쏙 빠집니다. 일체유심조라는데 정말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이 몸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는지요.

답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형선고에다가 무기 집행유예를 받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마지막 계단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계단을 걸어가는 도중에, 그 계단을 정글이라고 한다면 이게 공부하는 데의 정글이라고 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러 가는 그런 길을 한 계단 한 계단 걷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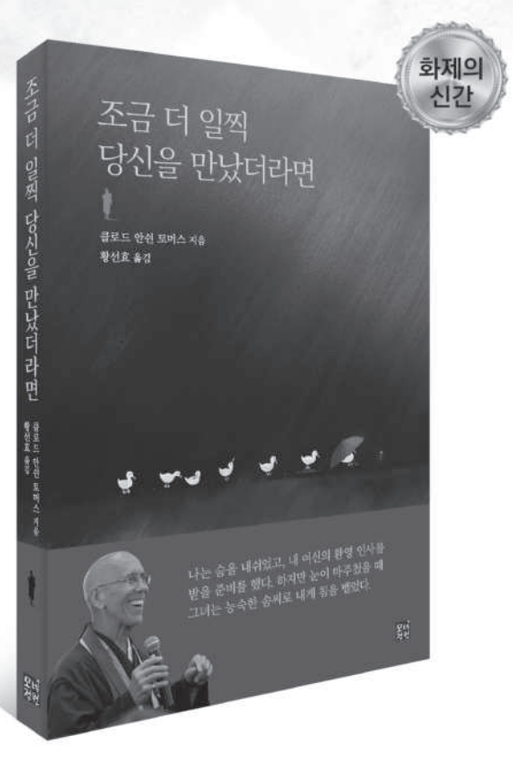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단이 그렇게 많아서 그 길을 똑바로 걷질 못하고, 온통 그냥 끄달리면서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피하고, 사자가 온다고 피하고, 정글에서 어떤 풀이 몸을 감으면 또 안 감기려고 피하고,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떤 게 닥쳐도 피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도 아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둘이 아닌 까닭을 알면 한 찰나에 내가 풀이 될 수 있어서 내 몸을 말아서 피를 빨아 먹는 어떠한 물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피를 자기가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풀도, 무정물도 식물도 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생시에 내가 '그 마음이 체가 없어서 너와 내가 모두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데 뭘 그래!' 하고 거기 놨을 때에 바로 꿈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꿈과 생시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닥치든지 또는 사자가 닥치든지 어떠한 게 닥쳐도 궁색하게 피하지 말고, 가정에서 어떠한 애고가 닥치든 병고가 닥치든,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피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다 딴 사람입니까? 딴 데 있는 겁니까? 내 한 물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체 속에 들어 있는 그것은 바로 별성들이요, 나, 이 모체(母體)가 전체를 담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혹성입니다.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들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혹성이 따로 있고 별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게 움죽거릴 때, 위장에서 움죽거릴 때 내가 움죽거렸다고 하겠습니까, 간장에서 움죽거려

☞ 22면으로 계속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마음의 노예가 되면 세세생생 벗어날 수 없다

☞ 21면에서 계속

야 내가 움죽거렸다고 하겠습니까? 소장입니까, 대장입니까? 전체가 나 아님이 없는 겁니다. 한 군데서만 파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각각 본다면 파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립이 되니까. 이건 대립이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애고라든가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런 게 모두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건데 그것을 대치하려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가 나오게 한 거니까 네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내가 마음을 쓰는 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움직일 때 우리가 그냥 따를 뿐이지 어디로 다니는 줄 우리가 압니까? 무엇을 하고 다니는 줄 압니까? 그렇듯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다 직결해서 '네가 하는 일이니까 네가 잘해야 되잖아. 이끌어 가야 되잖아.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이끌어 가야 네 심부름을 잘하잖아.' 하고 그대로 놓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우주를 한꺼번에 집어 먹고, 집어 먹을 것도 없이, 버릴 것도 없이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된다 이 소립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서 '해인(海印)의 증명을 받았다' 하는 것은 큰 바다에 만물만생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입해서 한마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바다에는 도장을 찍어도 찍은 사이가 없고 찍을 사이가 없건만도 찍은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몽땅 '당신이 옳소' 하고 찍는 거와 같죠. 왜냐? '옳소' 하는 거는 둘로 봐서 옳소가 아닙니다.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몽땅 한데 합쳐 한자리를 파악한 것이 바로 해인입니다.

한 가족 안에 아들딸들이 전부 아버지를 찍지 누굴 찍습니까?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한 가족으로 본다면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둘로 보지 않고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모습은 다르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자비가 줄줄줄줄 그냥 흐르고 있으니, 그대로 합일이니까 그대로 도장이죠. 허허허….

그러니까 너 나를 가른다면, 잘못하고 잘하는 걸 가른다면 합일이 될 수 없죠. 잘한다고 한다면 항상 못하는 게 거기 끼어들고, 못한다고 한다면 잘하는 게 끼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끝이 안 나요. 그러니 공부하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내막을 파헤쳐 본다면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요걸 보세요.

지수화풍도 우리에게 당장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사는 것은 물주머니에서 사는 거와 같습니다. 물에서 사는 생물들 모두가 그냥 물주머니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 물로 인해서 공기가 되니까, 우리도 이 물주머니에서 사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뭐든지 거기에서 이탈을 한다면 다른 병고가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는 수십억 마리의 마음도 내 마음 한마음에 다 따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하나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죠.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어떤 꿈을 꿨다고 가서 물어보니까 "아, 잘 먹겠다." 이러기에, 다른 친구가 꿈을 안 꾸고도 그런 꿈을 꿨다고 꿈 얘길 하니까 "아, 너는 매를 진탕 맞겠다." 했죠. 그래서 정말로 매를 진탕 맞고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매를 맞게 됐습니까?" 하고 또 가서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꾸민 것도 꿈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꿈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둘로 보지 않고, 어떤 귀신이 닥친다, 어떤 애고가 닥친다, 어떤 유전성이 닥친다 하더라도 '허허,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자기가 한생각에 돌려놓으세요. 둘이 아니라면 모든 게 그냥 하나로 돼 버려요, 흔적도 없이. 불에 어떤 것을 넣든 타 버리듯이. 물이 증발되듯이.

여러분은 어떠한 게 닥치면 관습에 의해서 '아,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게 있죠?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여직껏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이건 못 하고 하고가 항상 따르게 마련이죠. 진짜로 믿고 들어가는데 하고 못 하고가 어딨습니까? 내 생명이 그냥 이 자리에서 앗아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허허!" 할 뿐이죠. 내가 둘로 본다면 온 것이 있고 갈 것이 있지만, 둘로 보지 않는다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갈 것도 없죠.

그런데 자기가 살면서도 자기를 못 믿어요. 다른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허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왜 자기는 못 믿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끌고 가는 그놈을 자기가 왜 못 믿습니까? 배가 고파서 밥 먹게 하는 놈, 듣게 하는 놈, 보게 하는 놈, 말하게 하는 놈, 일을 하게 하는 놈, 하기 싫게 하는 놈, 싸움을 하게 하는 놈, 성이 나게 하는 놈, 이 모든 놈들이 전부 한 놈입니다, 한 놈!

그거를 표현을 하기를 "아버지가 될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나, 또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자식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사위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했던 겁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말도 뜻도 행도 그렇게 바뀌지면서 돌아가는데 어떤 딴 놈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 일체 만법이다, 각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놈이, 한 놈이 그렇게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벌어진 것을 용도에 따라서 들이고 내는 데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니까. 그 한 놈이 누구입니까? 그 한 놈이 바로 우주를 싸고 여여하게 돌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 허공중에 공 하나가 둥둥 떠 있는데
> 그 공 속에서 우리는 갇혀 살고 있어요.
> '이 공 속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소서!' 하고
> 육법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얘기했죠? 일체 만물은 연결 연결 연결 돼서 바로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共用)으로서, 공식화(共食化)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가설이 돼 있는 것이라고요. 각자 마음마다 가설이 돼 있다구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하면 둘이 되죠? 그러나 부처님 법이 따로 없이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 법이라고 놓을 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면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천당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 돼지같이 살면 돼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뱀같이 살면 뱀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개같이 살면 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사람같이 살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공부를 증득해서 넘어갈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를 한 손가락에 꿰고서 굴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질문 모두가 끼리끼리 만난다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억겁을 통해서 바로 인연이 된 것입니다. 이 컵에도 이것이 컵이 아니었더라면 물을 담지 않을 것인데, 컵이 됐기 때문에 물을 담는 것입니다. 요것이 인연입니다. 매사에 정말, 조금도 틀림없이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누가 만드느냐. 즉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인연을 만드는데,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좋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매양 나쁜 걸로만 아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매양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꾸 자꾸 마음을 내 준다면 선한 길로 접어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끌어서 건져라." 이런 말이죠. 이 모두가 사람사람이 인연에 따라서, 차분하고 너그럽고 지혜롭고 자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게 전부 한마음이 돼 주고, 악하게 마음을 쓰고 '저것 요것' 하면 악한 사람으로서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오고 감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차안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마음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자꾸자꾸 바뀌진다구요. 사람이 사람으로만 있지 않고 짐승이 짐승으로만 있지 않는다구요. 그러니 한 찰나에 살 것을 그렇게 해서 딴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그 습성에 또 매여서 착이 되고 습성이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거북이 물에 가라앉았다가 천 년에 한 번 떠오를 때에 구멍 뚫린 뗏목 하나를 만나서 그 구멍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로 인연이 돼서 만난 것도 수억겁을 거쳐서 된 겁니다. 여러분은 99%나 부처님 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부처님이 될 수 없을까, 있을까?' 이러지 마시구요, 그대로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가신다면 그대로 부처죠, 뭐. 안 그렇습니까?

자식놈에게 자꾸 휘둘리게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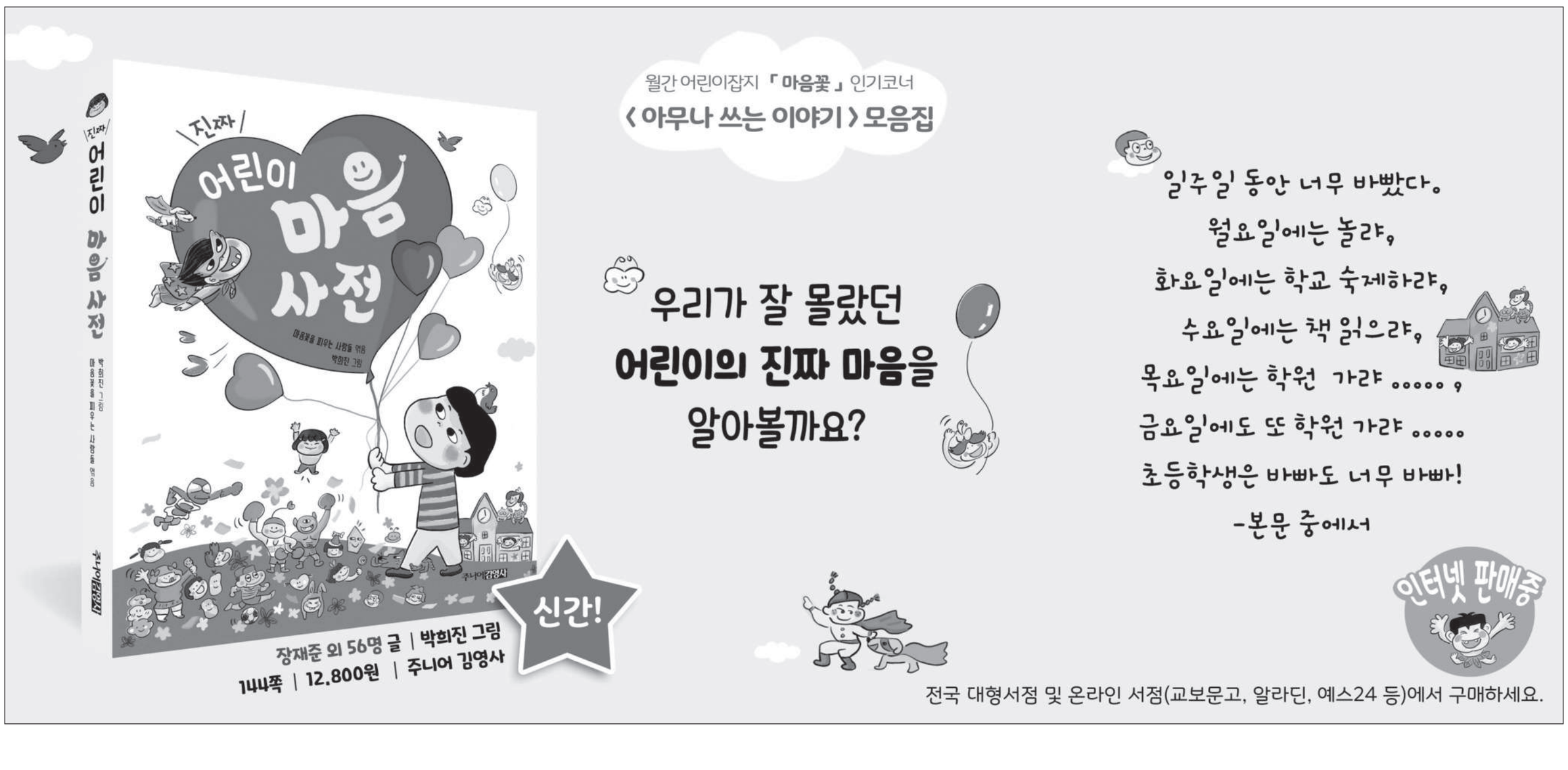
질문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웬만한 건 잘 관하고 놓게 되는데 이 자식놈이 자꾸 알짱거리며 속을 썩이는 데는 잘 놓아지지 않고 자꾸만 자식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착을 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답변 허허허. 이거 보세요. 자식놈의 물질적인 육신이 까닥까닥하는 거지, 마음이 나와서 그렇게 까닥까닥합니까? 아니, 그 육신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까닥까닥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 너 까닥거리지 마라.', 허허허,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놓으면 슬며시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육신은 움죽거릴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의 놀음이니까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지, 육신을 잡으려고 하거나 말로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가서 안 들어오든 나가서 공부를 안 하든 그게 걱정이 안 될 만하게 원력이 서야 걱정이 안 되죠. 권투선수가 권투 실력이 아주 극치에 도달했을 때에는 상대가 누가 온대도 걱정이 안 되죠. 만약에 그게 설익었으면 걱정이 되죠. 온통 그냥 떨리고 부자연스럽고 무겁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설익지 않았다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까닭에 걔네들은 잔잔하게 그냥 돌아가요, 또. 걱정이 없는 까닭에 그 마음하고 다 이렇게 통하니까요.

그러니 사는 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일이 생긴다 하면 걱정이 되지 어찌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돼도 바깥으로 온통 이렇게 풍기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익은 사람들은 안으로, '이렇게 걱정이 되는 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부지런히 육신도 뛰면, 그냥 걱정 없이 뛰면 그냥 해결이 되고 싹 무마가 돼 버리죠. 그러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쳐 놓고 움죽거리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사는 세태다 이겁니다. 지금 가부좌를 틀고 좌선을 하고 앉았다면 앉아 있는 그 동안만 우주가 돌아가고, 또 일어났을 때는 우주가 안 돌아갑니까? 그러니 섰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자나 깨나, 돌아가는 건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공이 없이 생각하면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거기다 놓곤 태연히 그냥 '날 잡아잡수.', 허허허, '하늘이 무너진대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뛰란 말입니다. 그것을 말로다가, 생각으로다가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잡아집니까, 그게? 생전 안 잡아지지.



| 현불 논단 |

틱낫한 스님을 기리며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한국 숭산행원 스님과 더불어
4대 생불 불리신 틱낫한 스님
1월 21일 열반…전 세계 애도

선지식 만난다는 것은 큰 福田
정법의 한 자락을 마주하는 일

다시는 볼 수 없는 스님 기리며
부지런히 찾아뵙지 못해 아쉽다
틱낫한 스님 속환사바 하십시오

만공 선사의 3대 발원 중 첫 번째가 '삼세제불의 말세정법을 옹호합시다' 이다. 지금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지 2500여 년이 지난 말법시대로 현대를 사는 우리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육성법문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짓지 못한 말세 중생들이다. 하지만 선지식을 만날 수 있다면 말세에도 정법을 들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다행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경허, 만공 스님의 법맥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태국 등 근본불교 국가에서도 근현대에 적지 않은 선지식들이 출현했고 불교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새롭게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방법이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인류의 화합과 개개인의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인식돼가고 있다.

특히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선지식들이 우리시대를 함께 하시니 티베트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이자 세계적으로 불교의 상징으로 모셔지는 달라이라마와 캄보디아의 마하 고사난다 스님, 2004년 입적하신 한국의 숭산행원 스님, 그리고 1월 21일 열반에 드신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이다. 이분들은 명실공히 '세계 4대 생불' 또는 '세계인의 정신적 스승' 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이 분들은 일생동안 어둠 속 등불처럼 길 잃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타는 가슴과 삶의 고통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감로수 같은 가르침으로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신 선지식이다. 세속의 욕망과 미움에 물들어 국통의 국자처럼 무감각해진 현대인에게 정법과 진리의 가르침으로 국 맛을 아는 혀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불성을 깨우치게 하는 참 스승들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열흘정도 티베트 사찰에 머물며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그 분의 법문을 들을 기회를 가졌고, 숭산행원 스님 회상에서 하안거 한 철을 온전히 살았으며, 프랑스 자두마을에 가서 틱낫한 스님의 체취를 느끼고 그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공양하는 기회도 가졌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다.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큰스님 한 분을 친견하는 일이 아니다. 현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복전이며 최고의 스승인 것이다. 바로 정법의 한 자락을 만나는 일인 것이다.

어느 곳이든 성지순례를 가면 그 성지의 영험함을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인도성지에 가면 25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부처님을 느끼고 부처님께서 걷고 앉고 누우셨던 그 자리에 손과 발을 대면서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감동을 받게 된다. 부처님께서 사리를 남기신 뜻이 바로 이런 감격과 감동으로 말세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선지식들은 삼보의 하나인 승가의 핵심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고 중생들과 현실에서 함께하는 부처님의 분신에 다름 아니다. 틱낫한 스님은 한국인들과 특히 인연이 깊은 분이다. 세 차례 한국을 방문하셨고 그 때마다 많은 한국의 스님들과 불자들과 함께 하시며 법문과 수행의 길을 지도하셨다.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자비로우셨던가. 틱낫한 스님의 책은 그 어떤 국내외의 스님들보다 많이 출간되었다. 백 만권이 넘게 읽힌 책들도 있다. 하지만 스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한 사람들은 그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책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겠지만, 스님의 육신은 이제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다시는 뵐 수 없다. 더 부지런하게 선지식을 찾아뵙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아쉽다.

틱낫한 스님! 속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송마나의
시절인연

임인년 새해 교향곡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해 교향곡' 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바람 혼(魂)으로 심금(心琴)을 타는 교향악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오선지 위 음표를 연주했지만 오늘부터 악보 없는 '임인년 신세계 교향곡' 을 연주하렵니다.

선(線) 없는 오선지 위로 영묘한 불음(佛音)이 튀어 오릅니다. 현(絃) 없는 줄 위로 현묘한 묘음(妙音)이 날아오릅니다. 몸에 피리구멍을 뚫어 묘음이 드나들고, 마음에 거문고 줄을 메어 불음이 순유하도록 연주하렵니다.

아름다운 텍스트는 발음되기 전에 들리고, 아름다운 악보는 연주되기 전에 들린다고 합니다. '새해 교향곡' 은 '새' 의 언표에 깃든 소리 없는 하모니. '새' 의 내벽에 새겨진 퍼즐을 맞춰야만 교향악이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새' 가 '새롭다(新)' 라는 뜻으로 다가섭니다.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령에는 아직도 짐승처럼 꼬리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압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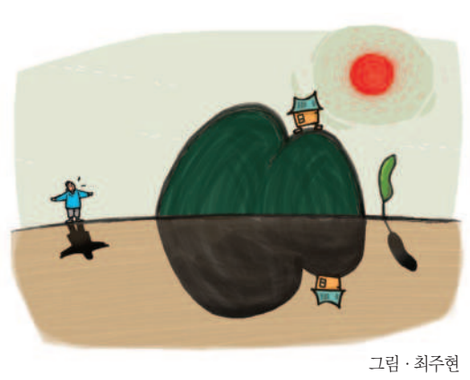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관성에 젖어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자, 정신적 미개인입니다. 두발로 걷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미물입니다. 태양이 솟는 신세계에서는 꼬리를 자르고 바로 서는 직립인(直立人)이 되고 싶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東)을 '새' 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을 새쪽, 동풍을 샛바람이라 했습니다. 새쪽이 밝아온다는 뜻으로 새벽, 서라벌이 생겨났습니다. 언젠가 새쪽, 동방에서 의인(義人)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 는 새(璽), 제인(帝印) 곧 도장을 일컫습니다. 임금님은 나라 도장을 국새(國璽), 나라님 도장을 옥새(玉璽)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도장, 불인(佛印)을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부처님 인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새' 는 사이(間)의 준말입니다. 콩은 두 쪽 사이에서 싹이 터져 나옵니다. 인간도 남자와 여자의 그 윽한 다리 사이에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납니다. 오른쪽 이데올로기도 왼쪽 이데올로기도 아닌 중도의 자리에 참 말씀이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밤에 노숙하면서 갈증으로 해골에 괸 물을 달게 마시고, 새날이 밝아 토악질하는 순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를 깨달았습니다. 오직 마음이 깨끗하고 더러운 물을 분별했던 것입니다. 진여(眞如)란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본디 그 모습이란 법어를 가슴에 새깁니다.

'새' 의 금싸라기(새)들을 제련하여 '새해 교향곡' 을 연주하겠습니다. 〈작가〉

社 說

갈림길에 놓인 불교 여성포교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의 동행이 깨졌다. 개발원 창립 22년만의 일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1월 28일 공고를 통해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알렸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여성개발원에 이사장 권한 회복과 정관 복구를 지시했으나 이사진들이 따르지 않았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포교원 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공식 천명했다"며 "포교원은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포교단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안고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여성개발원은 더 이상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중단된다. 개발원 이사들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사찰, 소속사찰, 각종 위원회에서 소임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두 기관의 관계는 수년전부터 위태위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개발원장 선출을 두고 포교원의 임명권에 반발한 개발원 측이 조계종 종헌종법 우선적용 조항을 삭제하며 이뤄졌다.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범해 스님이 포교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메워지지는 못했다. 결국 두 기관은 각각 '해지' 와 '독립' 이라는 수사(修辭)로 서로의 이별을 표현했다.

헤어짐을 택한 포교원과 개발원은 각각 서로의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포교원은 기존 개발원 회원 중 종단 지침에 따른 불자들을 포함한 조계종 여성포교단체 설립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개발원은 범종단화를 선언하며 발전특위 구성 계획 등을 밝혔다.

원팀으로 함께 한 두 기관이 이젠 서로 갈림길에 섰다. 지난한 갈등 끝에 선 길이다. 이제 가는 길은 달라도 여성포교라는 큰 뜻은 갈라지지 않았으면 한다.

마음치유 자비실천에 박수를

한국사회 곳곳에는 아픔이 존재한다. '헬조선' 이란 용어가 난무하던 2018년, 노량진에는 청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마음충전소' 가 개소했다. '헬조선' 을 '힐조선' 으로 바꾸기 위한 불교계의 작은 노력이었다.

그 노력을 주도했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또 다른 노력을 시작했다. 바로 1월 27일 노숙인들의 터전인 영등포 쪽방촌에서 '마음충전소' 를 개소한 것이다. 그동안 복지 하면 우리는 물적 복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왔다. 당장에 설명절을 앞두고 떡을 비롯해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물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다른 것은 '힘내라' '할수 있다' 는 격려가 아닐까 싶다.

불교 복지에 있어 사상적 근원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실천이다. 부처님의 자비실천은 물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을 듣고, 이야기 하고, 어루만졌다. 내 일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대기설법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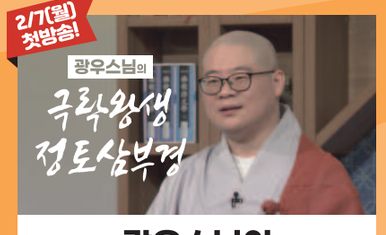
자비명상이 추진하는 마음충전소가 이러한 부처님 자비실천의 일환이다. 이 곳에서는 상담 뿐만 아니라 불교명상을 이들에게 알려, 이들이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 선택의 위기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도록 하고자 한다.

주변을 돌아보자. 우리 주변에는 소외받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어떤 것을 고민하고, 왜 고통받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자비, 나눔이 시작된다.

'마음충전소' 에는 스님들이 두 분 상주하며 매일 상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또 다른 마음충전소가 전국 곳곳에, 소외받는 이들이 있는 곳에 생겨나길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14, 8216 /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개편프로그램안내
불기 2566년
2022년 2월 7일!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광우스님의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매주 (월, 화, 수) 07:30



법상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매주 (월, 화, 수) 0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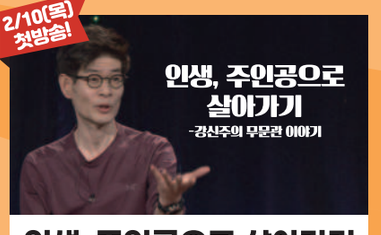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매주 (월) 09:30, 21:30 / (화) 23:2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매주 (월, 화, 수) 20:30



우리가 몰랐던 한글이야기
매주 (목, 금, 토) 12:00



인생,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 강신주의 무문관 이야기
매주 (목, 금, 토) 19: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 tv 305번 | U+TV 275번 |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또 다시 닥친 코로나의 위기와 공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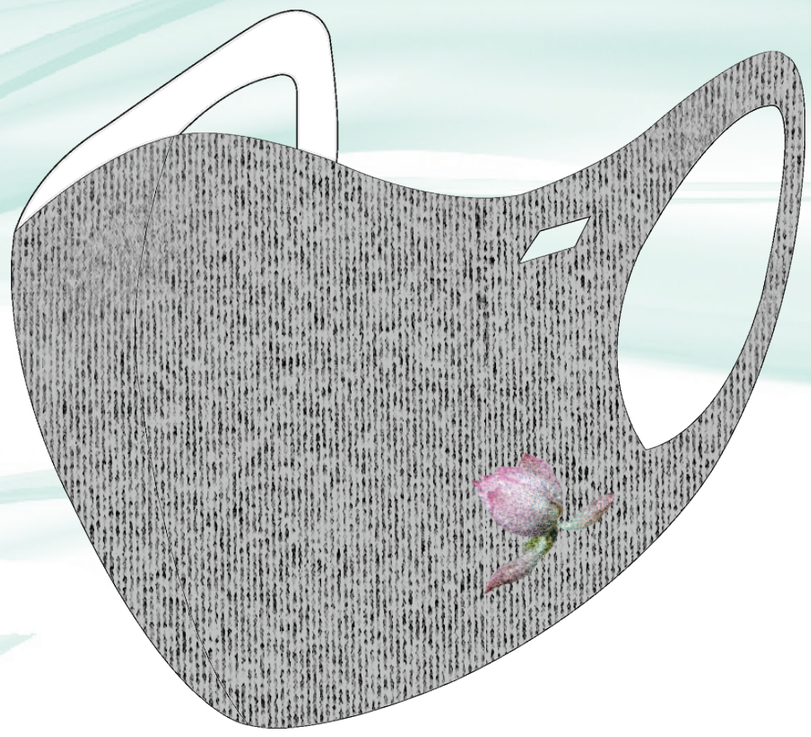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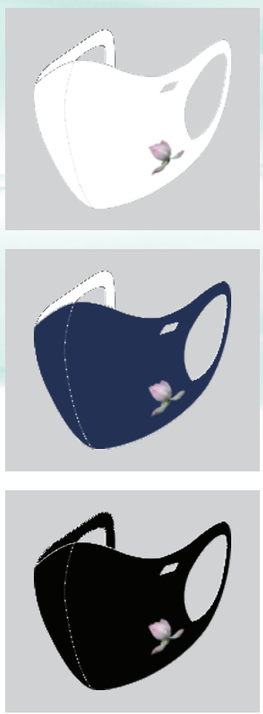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연꽃마스크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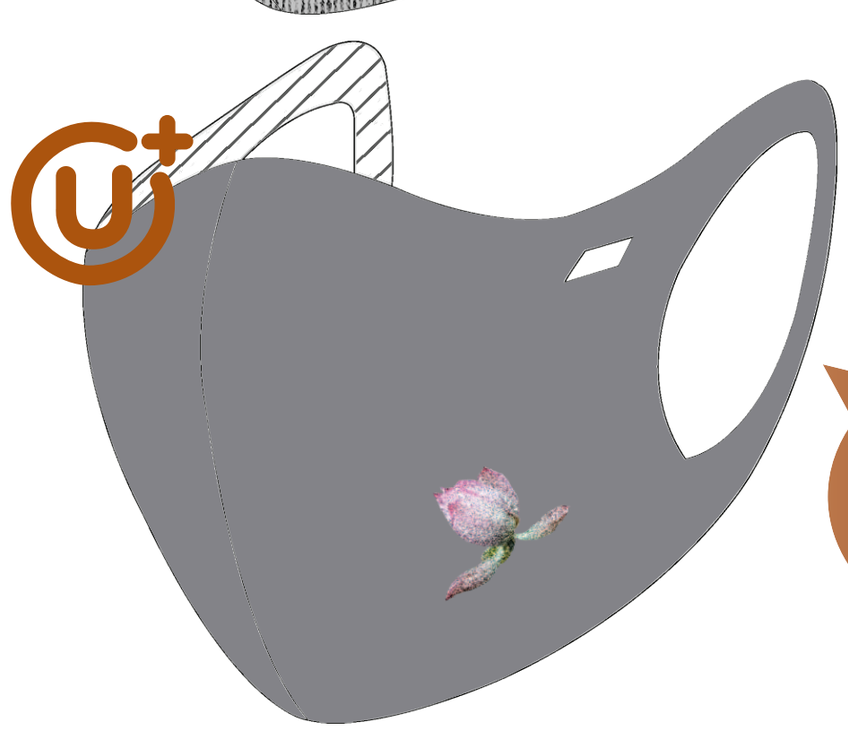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연꽃마스크 (연꽃문양/5색)

2중 압축 NEW!!

기능성 비말차단 **연꽃마스크**는 이중압축으로 제작하여 기존 제품보다 발수기능이 우수한 **숨쉬기 편한 마스크** 입니다.

기존제품과 다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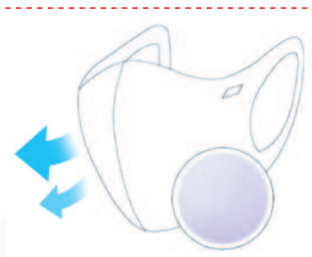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합니다.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아 숨쉬기가 편안합니다.

색상별 1세트 (100장)
~~550,000원~~ → **350,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연꽃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최소주문수량은 색상별로 100장 이상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